

Hamlet

윌리엄 셰익스피어 저 | 최재서 역 영미문학연구회가 선정한 최고의 번역본이다. 셰익스피어 운문의 살아있는 대사와 시적 상상력을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담아냈다. 원문을 충실하고 정확히 옮기면서도 우리말의 아름다움까지 되살린 전무후무한 번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살아 부지할 것인가, 죽어 없어질 것인가, 그것이 문제다.” 한 줄 한 줄의 대사를 곱씹으며 햄릿의 고뇌에 동참해 보는 것은 어떨까.



햄릿 Hamlet

*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사단법인 올제에 있으며,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2 Olje All Rights Reserved

올재의 꿈

올재는 지혜 나눔을 위해 2011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예술과 문화 속에 담긴 지식과 교양을 널리 소개하고 향유함으로써, 격변하는 세상의 지향점을 찾고, 올바르게 창의적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올재의 꿈입니다. 특히 올재는 인문고전이나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혜 나눔의 계기와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은 인문고전입니다. <올재 클래식스>는 최고 수준의 번역본을 부담 없는 가격에 보급합니다. 각 종당 5천 원을 발행하며 4천 원은 교보문고에서 6개월 간 한정 판매합니다. 미판매된 도서와 발행 부수의 20%는 복지시설, 군부대, 저소득층 등에 무료 기증합니다. 출간한 번역본은 일정 기간 후 올재 인터넷 홈페이지([www. olje. or. kr](http://www.olje.or.kr))에 게시합니다.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올재의 벗

〈올재 클래식스〉《햄릿》의 발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상당액은 헤럴드디자인포럼의 자선경매 기금으로 마련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서점 교보문고는 〈올재 클래식스〉의 유통 지원에 도움을 주셨고 코리아헤럴드와 헤럴드경제를 발행하는 (주)헤럴드는 출판인쇄와 교열을 도와주셨습니다. 표지 제호를 재능 기부해 주신 강병인캘리그래피연구소 술통 대표 강병인 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귀한 번역본을 남겨주신 고 최재서 선생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선친의 글을 올재에서 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최창 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올재 클래식스〉 출간이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 나눔으로 뜨겁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 〈올재 클래식스〉 출간에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신 벗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합니다.

정기 후원과 일반 후원으로 올재의 지혜 나눔에 참여하세요.

올재의 벗들이 심은 작은 흙씨가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올재 후원함 | 예금주 사단법인 올재

국민은행 023501-04-184681

신한은행 100-027-966986

우리은행 1005-401-996902

하나은행 162-910013-46904

농협 301-0100-8607-71

후원 문의처 | 올재 사무국

☎ 02/720-8278 🌐 www.olje.or.kr © olje.classics@olje.or.kr

📷 @olje.classics 📘 www.facebook.com/olje.classics

지혜 나눔을 함께 한 벗들



〈햄릿〉과 셰익스피어

최재서(崔載瑞)

셰익스피어는 각본 제작에 별로 신기한 재료를 구하지 않았다. 그의 37편 희곡들 중에서 약 반수(半數)는 극장 레퍼토리의 개작이었고, 나머지 반수도 일반 민중이 잘 알고 있는 역사, 로맨스, 전설 등에서 취재했다. 그러한 평범하고도 대중적인 재료를 가지고 그는 불후의 작품들을 썼다. 실로 셰익스피어는 납이나 무쇠를 가지고 황금을 만들어 내는 연금술사였다. 〈햄릿〉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작품이었다.

암살당한 부왕의 혼령이 아들에게 나타나서 복수를 명한다는 이야기는 중세기 이래로 덴마크에 전해지고 있었다. 그러한 〈햄릿〉의 전설을 기록한 최초의 사람은 덴마크 사(史)를 쓴 삭소 그라마티쿠스(Saxo Grammaticus, 1150~1220)였다. 기록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이 셰익스피어 각본의 그것들과 동일하진 않지만, 사건의 대강 줄거리는 서로 일치한다. 햄릿의 양광(佯狂)이라든가, 오�필리아가 햄릿의 정신 상태를 시험해 보는 장면이라든가, 햄릿이 어머니를 힐난하다가 방 밖에서 엿듣던 사람을 찔러 죽이는 일이라든가, 기타 햄릿의 추방(追放)과 해상(海上)의 활약 등, 셰익스피어는 전설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다만 다른 점은 전설에서는 햄릿이 복수를 실현하여 왕위에 앉음으로써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셰익스피어 작품에서는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은 비극으로 끝난다는 점이다.

16세기 중엽에 독일의 시인 한스 작스(Hans Sachs, 1494~1576)가 이 전설을 독일어로 운문화했다. 시 자체는 생경(生硬)해서 별반 문학적 가치가 없지만, 유럽 전체에 이 이야기를 보급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570년에는 프랑스에서 〈비극적 역사(Histoires Tragiques)〉란 제목으로 볼어 산문판이 나왔다. 저자는 프랑수아 드 벨포르스트(Francis de Belleforest, 1530~1583)였다. 1608년에는 그 영역본이 〈햄릿의 역사(The Historie of Hamlet)〉란 제목으로 나왔다. 그러나 번역 책이 나오기 전에 영국 사람들은 이미 벨포르스트의 산문에 친숙해 있었던 모양이다. 그것은 영역본이 나오기 전, 즉

1589년에 이미 이 책을 재료로 쓴 연극이 런던 극장에서 상연된 사실로 미루어 추측할 수 있다. 그러면 셰익스피어가 이 세 가지 대본들 즉 프랑스판과 영어판과 또 1589년 상연의 대본 중에서 어느 것을 재료로 썼는가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셰익스피어가 작품의 내용을 직접으로거나 간접으로거나, 벨포르스트에서 끌어온 것만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셰익스피어가 이 스토리에 착안하게 된 직접 동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설명 재료가 될 것이다. 1594년, 즉 <햄릿>이 상연되기 십 년 전에 토머스 키드(Thomas Kyd, 1558~1594)의 <스페인의 비극(The Spanish Tragedy)>이 상연되었다. 키드는 셰익스피어의 선배이며, 또 한때는 셰익스피어의 경쟁자였다. <스페인의 비극>은 1580년경의 스페인을 배경으로 하는 왕녀의 사랑과 암살과 복수의 비극이었다. 이 극에서는 암살당하는 사람이 아들이고 복수를 실현하는 사람이 아버지로 되어 있지만, 셰익스피어의 <햄릿>과 현저한 유사점들을 가지고 있다. 서막에서 혼령이 나타나 복수를 애원하는 점, 그 아버지가 복수의 계획을 숨기기 위해서 양광하는 점, 가해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극을 꾸며 그의 딸과 더불어 배우를 가장하고 출연하는 점, 마지막 딸의 결혼식장에서 (딸은 가해자와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되었었다) 복수가 실현되어, 관계되는 모든 사람이 자살 또는 타살로써 처참한 광경을 이루는 점 등은 분명히 <햄릿>을 연상시킨다. 셰익스피어가 이 작품을 모방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키드의 작품이 <햄릿>에 대해서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플롯과 장면의 힌트를 주었다는 비교적 외면적인 데 있지 않고, 이 작품이 런던 극단에 한 유행을 만들어 냈다는 데 있다. <스페인의 비극>은 전체의 구성이 그리 긴밀하지 못하고, 인물들도 살아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성격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결점을 들어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관객 대중의 심리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 매양 정력적, 능동적이어서 약탈과 정복이 국민적 미덕으로 찬양된 엘리

자베스 시대에 있어, 섬세한 것보다는 화려한 것, 조화적인 것보다는 강렬한 것, 사색적인 것보다는 행동적인 것을 즐겨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풍조였다. 그러한 일반적 요구에 대해서 〈스페인의 비극〉의 멜로드라마성은 무조건(無條件)하고 만족을 줄 수 있었다. 이 각본이 초연 이래 인기를 지속하여 자주 상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모방하는 작품들이 끊임없이 나왔다. 이리하여 약 십 년 동안 런던의 극단은 선풍 같은 복수극의 인기에 완전히 지배되어 있었다.

1589년 상연의 〈햄릿〉이 누구의 작품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이 키드의 제작이라는 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탄생된 작품이었다. 관객 심리의 천재 셰익스피어가 이러한 시대적 경향에 무관심할 이치가 없었다. 현실 속에 뛰어들어가 현실과 같이 흘러가면서 현실을 독특하게 살리는 평소의 그의 예술 태도를 생각할 때, 셰익스피어가 여기서 〈햄릿〉 극에 손을 댔다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햄릿〉은 대중적 흥미가 많기 때문에 자주 상연되지만, 셰익스피어 연구가에게는 가장 힘든 작품의 하나다. 그것은 이 작품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또 앞으로로도 완전히 해결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소위 〈햄릿〉 문제—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 문제는 예술적, 도덕적으로 다기광범(多岐廣範)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만, 극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간단하고도 실질적인 문제로 귀착된다. 햄릿은 어째서 복수를 실현하지 못했는가?

이 연극에서는 주인공과 그 적수 클로디우스 왕 말고도 여섯 사람이 죽는다. 오펔리아와 그 아버지 폴로니우스와 그 오빠 레어티즈가 죽고, 왕의 내명을 받아 스파이질을 하던 길든스틴과 로젠크란츠가 죽음의 길로 떠난다. 마지막 검술 시험장에서 왕의 흥계(兇計)로 마련된 독배(毒盃)를 잘못 마시고 왕비 거트루드가 죽는다. 만일 햄릿이 기민하게 행동해서 제때에 복수를 실현하였던들, 적어도 이 사람들의 횡사(橫死)는 없었을 것이고, 또 잘하면 햄릿 자신도 죽음을 면했는지 모른다.

이 각본의 비극성은 결코 이와 같이 다수한 인명이 희생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사실만으로도 비극을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결말은 물론 햄릿 자신의 계획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클로디어스의 흥계대로 된 것도 아니다. 우연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무슨 신비한 힘이 나타나서, 부패한 덴마크 왕궁을 피로 숙청한다. 단순한 복수의 사실만 가지고 따진다면, 이 연극은 완전히 실패작이다. 그러면 셰익스피어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작품을 구성했던가?

앞서도 말한 바처럼, <햄릿>은 37편의 셰익스피어 각본 중에서, 대중적 흥미의 요소가 가장 많은 작품이다. 자칫하면 활극(活劇)으로 끝나기 쉽고, 신중히 처리해도 일종 윤리적인 극이 될 수 있는 소재다. 셰익스피어가 이 작품에다 그런 평범한 결말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는 복잡하고 신비스러운 인생의 비밀을 파헤쳐, 그 진상을 관중 앞에 제시하려고 했는데, 말하자면 그 비밀을 해명하는 열쇠로서 햄릿의 성격을 사용했던 것이다.

햄릿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들이 있다. 정신병설, 양광설, 외부적 장애설, 의지박약설, 우울증설—이 설들은 햄릿의 복잡한 성격의 일면들을 설명하지만, 그 전면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또 이 설들의 대부분은 19세기에 나타난 것인 만큼, 시대적인 사조(思潮)—낭만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다. 나는 현대적인 입장에서 햄릿을 지성인의 전형이라 보고, 이 극 전체를 지성인이 처해 있는 바 숙명적인 비극으로 해석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해석의 일단을 나는 《사상계》 1955년 12월호에서 <지성의 비극>이라는 제목 밑에 발표한 바 있었다. 아직도 미비한 논문이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 골자는 들어 있다. 그 골자는 다음 일절로써 대표된다.

“나는 이미 이 글의 결론에 도달했다. 이제는 이 연극이 어떤 의미에 있어 비극이

나 함을 말하는 일이 남았을 뿐이다. 그것은 <햄릿>을 다른 비극들과 비교해 보면 얼른 알 수 있다. 셰익스피어 사대 비극 중에서 <맥베스>는 야심이 빚어내는 비극이고, <오셀로>는 질투심이 빚어내는 비극이고, <리어 왕>은 오만심이 빚어내는 비극이다. 야심, 질투심, 오만심—이들은 모두 다 그 자체로서 인격의 결함이다. 그들이 비극을 빚어내고 주인공이 처벌될 때에 우리는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거기에는 어떤 도덕적인 제재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적인 위안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러나 햄릿으로 하여금 비극의 주인공이 되게 한 지성의 가지가지 특질들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나 그 자체로서 결함은 아니다. 그것은 과학적 진리를 발견하고, 기계를 발명하고 예술을 창조하고, 도덕을 보급시키어, 인류의 역사를 한걸음 진보시키고 인간의 생활을 더 풍족하게 만들 수 있는 고귀한 힘이다. 그러나 그 힘이 충분 적절한 현실적 정세 안에 놓여지지 않을 제 그 힘은 낭비된다. 햄릿의 일생은 깨어진 구슬이요, 무너진 이성의 탑이다. 이 비극에 대하여 인류는 아무런 변명의 구실도 발견해 내지 못할 것이다.

충분 적절한 행동의 계기를 얻지 못할 때에, 지성은 다만 낭비될 뿐만은 아니다. 그것은 거의 자율적으로 파괴의 힘으로 변질한다. 천진한 오�필리아가 무서운 충격을 받아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마침내 물에 빠져 죽는 순간까지 노래를 부르는 눈물겨운 장면은 이 비극의 특질을 무엇보다도 뚜렷하게 상징화한다. 인간이 지성을 가졌음으로 해서 비극을 체험해야 한다는 인류의 숙명을 그린 이 작품은, 가장 비극적인 비극일 뿐만 아니라, 가장 현대적인 비극이라 나는 생각한다.”

셰익스피어 비극의 개념

최재서(崔載瑞)

1

1601년을 경계로, 셰익스피어의 작품 세계는 그야말로 극적 전환을 하였다. 동년 이후를 그의 비극 시대라 일컫는데, 이 시기에 속하는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햄릿〉, 〈줄리어스 시저〉, 〈십이야〉, 〈이척보척(以尺鞞尺)〉—자에는 자로(Measure for Measure), 〈오셀로〉, 〈리어 왕〉, 〈맥베스〉, 〈페리클레스〉,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 〈코리오레이나스〉. 사대 비극이 이 속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나머지 희극들도 비극적 색채가 짙은 희극들이다.

이 작품들을 그 이전의 작품들과 비교해 본다면, 누구나 대조가 현저한 데 놀랄 것이다. 그 이전의 것들은 꿈과 낭만과 쾌활을 기조로 삼는 작품들이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 시기에 속하는 유일한 비극이지만, 그 속에는 청춘을 노래하는 환희와 정열이 넘쳐흐르고 있다. 수다스러운 유모와 익살맞은 머큐쇼는 이 비극 속에서도 끊임없이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 1601년 이후로, 이러한 낙천적인 기분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자취를 감추고 만다. 〈호사다행(好事多幸)〉—끝이 좋으면 다 좋아(All's Well that Ends Well)〉과 〈이척보척〉에서는 작품이 비극으로 가라앉는 것을 건지기 위하여, 작자가 몹시도 애쓰고 있다는 인상을 받으며, 〈트로일러스와 크레스이다〉에서는 연발하는 웃음이 어디까지나 침통하고 냉혹하고 풍자적이다. 그의 마지막 희극이 되는 〈코리오레이나스〉는 흑일색(黑一色)의 엄인주의(嚴人主義)로 물들어 있다.

무엇이 셰익스피어로 하여금 이와 같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Kopernikanische Wendung)을 하게 만들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비한 셰익스피어 생애의 지식은, 이 의문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 그의 전기 작가(傳記作者)들이 지적해 주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 (1) 1601년 셰익스피어는 그의 아버지를 잃었다.
- (2) 이 시기에 그는 친구와 애인에게서 배반당하여 정신적(精神的)으로 고민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시기에 쓰인 <소네트>를 기초로 하는 내면적 고증이고, 그것에 대한 외적 증거는 없다. 따라서 셰익스피어를 고민의 세계로 이끈 친구와 여인이 누구인지는 전연 수수께끼이다.

(3) 1601년에 에섹스 백작(Earl of Essex)의 처단이 있었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패트런(patron)인 사우샘프턴 백작(Earl of Southampton)을 통해서 에섹스와 친분이 있었다. 에섹스는 엘리자베스 왕조의 충신이었다. 그러나 여왕의 비위에 맞는 신하는 아니었다. 그는 자주 여왕과 논쟁했다. 1598년에 여왕과의 논쟁 끝에 여왕에게 등을 돌리자, 남성적인 여왕은 만좌(滿座) 중에서 이 충신의 뺨을 후려갈겨, 크게 욕을 보인 유명한 사건이 있었다. 그 후 아일랜드(愛蘭) 총독으로서의 6개월의 재직은 에섹스의 실패였다. 그는 모든 직위를 박탈당하고 감금되었다. 이때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위촉을 받아 기소문(起訴文)을 작성한 사람은 유명한 법률가였던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이었다. 베이컨은 에섹스의 주선으로 대법관의 요직에 앉게 되었으니까, 말하자면 에섹스는 그의 둘도 없는 은인이다. 과학의 아버지로 숭상되는 이 법률가는 출세를 위해서는 과거의 은인을 헌신짝처럼 버려, 각박한 세상인심의 모양을 그대로 그려 냈다. 에섹스는 1601년 2월에 반란을 계획했으나, 미연에 발각되어 마침내 런던탑에서 처형되었다.

에섹스는 군인, 정치가 겸 외교관으로서 혁혁한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문학의 패트런이었으며, 그 자신이 소네트 시인이었다. 그는 당대 지식층의 숭배와 경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가 비참한 말로를 갖게 된 것은, 변덕이 많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탓도 있었겠지만, 그의 권세와 명망을 시기하는 군신의 음모가 더 큰 원인이었다. <햄릿> 극에서 궁정의 부패가 자주 규탄되고, 여왕의 변절(變節)이 통매(痛罵)되는 것은 이 현실과 무슨 연관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근소한 자료를 가지고 비극 시대의 셰익스피어 작품들을 짚게 물들이고 있는 회의주의와 시니시즘(Cynicism—냉소주의)과 금욕적인 숙명관(宿命觀)

을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시기에 나타나는 돌연한 전환을 우리는 그의 예술적 태도의 자연적인 전환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 전환이 돌연해서, 꼭 무슨 외부의 강한 동기가 있었을 것을 암시하는 듯 보이나, 예술가의 전향(轉向)이 오랜 동안의 잠복기를 걸어 나오다가, 어느 시간에 와서 별안간 작품 활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실이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시대 이러한 자연 발생적인 사건이었다고 본다.

셰익스피어는 1564년 출생이니까, 1610년이면 46세다. 46세라면 인생의 단맛 쓴맛을 다 맛보아 인생의 진미를 알게 되고, 따라서 인생의 적막을 느낄 나이다. 그 때에 셰익스피어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의 경쟁자들은 죽어 없어졌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취를 감추어 런던의 극단은 사실상 셰익스피어의 독판이었다. 엘리자베스 시대에는 극작가가 극장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었으니까, 극작의 성공은 곧 물질적 윤택을 의미했다. 그가 어려서 도망하다시피 버리고 온 고향 스트랫퍼드어폰에이븐(Stratford-upon-Avon)에 끝끝내 잊지 못한 저택, 뉴플레이스(New Place)를 매수한 것은 1597년. 그는 펜 한 자루의 힘으로 자수성가했던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이러한 물질적 생활의 향상은 그의 사회적 출세와도 동반되었었다. 그는 앞서도 말한 사우샘프턴과 에섹스 외에도 펴브로크 백작(Earl of Pembroke), 망가마리 백작 등, 당대의 일류 귀족들과 교분을 가졌고, 또 그의 각본은 자주 어전상연(御前上演)의 영광을 입어 궁정 출입의 기회도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공과 영예는 도리어 그의 예술적 감수성을 인생의 적막에 눈뜨게 하는 자극제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 시기의 비극들을 다른 시기의 그것들과 비교하면 현저한 차이를 발견하며, 다른 작가의 비극들과 비교하면 더욱 큰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이리하여 사대 비극—〈햄릿〉, 〈오셀로〉, 〈리어 왕〉, 〈맥베스〉—에 대표되는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근대 비극의 전형으로서 남는다. 셰익스피어는 무슨 비극 이론을 가지고 각본을 쓰

지는 않았지만, 그의 사대 비극을 분석하면 거기서부터 공통된 몇 개의 이념을 끌어낼 수 있다. 그러한 이념들을 가지고 우리는 비극의 개념을 구성해 볼 수 있다. 이것이 이 서론에서 의도하는 바이다.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읽는 데 어째서 그러한 절차가 필요한가? 대개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로, 비극의 개념을 가지고 작품들을 읽으면 무심히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여러 면들에 주의(注意)가 가기 때문에, 작품으로부터 더 많은 의미를 끌어낼 수 있다. 둘째로, 이념은 완성이니까, 그러한 표준을 머릿속에 세워 두면, 그의 작품을 다른 작품들과의 비교 밑에 얹게 되어, 그의 우수성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셋째로,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일에서 한걸음 나아가 비극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며, 그것은 결국 인생과 문학의 관계라는 지극히 막연하지만 흥미 있는 분야로 자연히 계통 있게 인도될 수 있다.

2

셰익스피어 비극의 개념을 파악하는 데는 유럽의 고대와 중세의 비극의 개요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희랍(그리스) 비극에서는 성격보다도 플롯이 중요시되었다. 주인공은 희랍 사람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신화나 전설에서 선택되었고, 또 스토리도 그들이 익숙한 것들이었다. 따라서 희랍의 비극 시인들은 그들의 온갖 정력을 플롯 구성에다 기울였다. 그들은 대개 아래와 같은 패턴을 따라서 플롯을 구성했다. 주인공은 고귀(高貴) 유덕(有德)한 인물로서, 그 자신에 대해서는 물론, 민족과 국가에 대해서도 선의를 가지고 행동하지만, 그 결과가 그의 의도와는 전연 반대인 악(惡)으로 나타난다. 주인공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늦어서 수습할 도리가 없다. 비극 시인은 이러한 행동의 의도와 결과 사이에 나타나는 대비(contrast)를 최대한도로 이용하여, 관객의 비극적 체험을 충실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면 주인공의 의도와 결과 사이에 개재(介在)하여 그를 비극의 구렁

으로 전락시키는 힘이 무엇인가? 물론 무대 위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것이 네메시스(Nemesis)라 함을 희랍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고, 또 극의 코러스가 자주 암시하기도 했다. 네메시스는 대개 운명이라 번역할 수 있지만, 희랍의 신들까지도 그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었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운명보다는 더 힘 있는 존재다. 이러한 플롯의 전형을 우리는 소포클레스(Sophocles, 496~406 B.C.)의 <오이디푸스 왕(Oedipous Tyrannos)>에서 볼 수 있다.

오이디푸스가 탄생되기 전에 그의 아버지인 테베(Thebes)의 왕 라이오스(Laius)는, 그의 아들이 그를 죽이리라는 예언을 들었다. 그는 아들이 탄생되자 곧 키타이론(Cithaeron) 산으로 끌고 가, 두 발에 말뚝을 박아 내버렸다. 어린 오이디푸스는 요행(僥倖) 코린트(Corinth)의 목양자(牧羊自)에게 발견되어 구원되었다. 코린트의 왕 폴리보스(Polybus)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자기의 아들처럼 길렀다. 오이디푸스가 자라서 철이 나자, 자기의 경력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어렵듯이 깨닫고, 델포이(Delphi)의 신탁을 찾아갔다. 여기서 그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리라는 무서운 예언을 들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다시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하고, 코린트의 땅을 버렸다. 그는 길을 가다가 노상에서 그의 친부 라이오스를 만났다. 물론 두 사람은 서로 모른다.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를 죽였다. 이리하여 델포이의 예언은 일부 실현되었다. 오이디푸스는 다시 여행을 계속해서 스팅크스를 만났다. 스팅크스는 그에게 수수께끼를 던졌다. 그에 대답하지 못하는 자는 죽기 마련이었다. 수수께끼는 ‘아침에는 네 발로 걷고, 낮에는 두 발로 걷고, 저녁때에는 세 발로 걷는 것이 무엇이나?’였다. 오이디푸스는 ‘인간이라’ 대답함으로써 그 자신의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오래 테베 사람들을 괴롭히던 괴물 스팅크스를 자감(自滅)케 했다. 테베 사람들은 그들을 해방시켜 준 은공에 보답하기 위해서 마침 행방불명이 된 라이오스 대신에 오이디푸스를 그들의 왕으로 삼았다. 이리하여 오이디푸

스가 이오카스테(Jocaste) 왕비—그의 생모—와 결혼했을 제, 텔포이 예언의 나머지 부분이 실현되었다.

여기까지는 희랍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오이디푸스 왕>의 이야기이다. 소포클레스는 이러한 전통적인 이야기 속에서 운명의 비꼬임—희랍 사람들은 그것을 아이러니(Irony)라 불렀다—을 끌어내서, 그것을 지레 삼아 관객의 마음속에 연민과 공포의 격동을 일으키고, 또 그것을 카타르시스로 가라앉히어, 마침내 충족한 예술적 만족감에 도달하도록 노력했으며, 또 성공했다.

주인공이 저 무서운 발견—진리의 해명(解明)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박두해 가는 과정을 소포클레스는 교묘한 플롯 속에서 정밀하게 전개시켰다. 네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코린트에서 온 사자—이는 오이디푸스를 구원한 목양자였다. 그는 폴리보스가 오이디푸스의 실부가 아니라는 것만을 안다. 다음에는 이오카스테—이는 사자(使者)의 말에 의하여 그가 현재 남편으로 삼은 오이디푸스가 그의 아들임을 알고 절망해서 퇴장한다. 끝으로 불러 들어온 늙은 목양자—이는 어린 오이디푸스를 산으로 데리고 갔던 목양자이다. 그는 코린트의 사자의 이야기에서 과거를 추억하고 오이디푸스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했는가를 안다. 그는 왕의 불행을 폭로하기가 무서워서 자백을 거절한다. 그러나 오이디푸스는 진실을 알고 싶은 불붙는 열정에서 그를 고문한다. 이와 같이 다른 모든 인물들이 알고 있으며, 따라서 관객도 알 수 있는 진리—그 해명과 동시에 그의 최후의 파멸이 오게 되는 진리를 향하여 어둠 속에서 해매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락하는 주인공의 내면적 격투는 보는 사람에게 운명의 힘의 무서움과 동시에, 주인공에 대한 연민의 정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마지않는다. 그러한 대립적 정서의 격동은 시인의 깊은 철학적 사색으로 말미암아 조화(調和) 상태로 높여진다. 시인 소포클레스의 철학적 사색은 코러스의 노래에서 투철하게 표현되어 있다. 무서운 진리의 해명을 보고 오이디푸스가

아아! 왔구나 왔구나, 모든 것이 진리로구나!
광명아! 너를 보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으로 삼자.
나는 이제 별거숭이! 수치 속에 나서, 수치 속에 혼인했다.

고 부르짖으며 퇴장한 뒤에, 코러스의 다음 노래는, 마치 폭풍이 지나간 바다 위에
비치는 달빛처럼 맑고도 시원하다.

아아! 인류의 세대들이여!
살아 있지만 그대들의 생명을 무(無)라 생각한다.
오직 행복해 보일 뿐, 다음 순간에는 행복의 그림자마저 사라져 쓰러질 뿐—
아마도 이 이상 행복을 갖지 못하며,
유한한 인생은 다만 그뿐이다.
그대의 운명은, 아아 불행한 오이디푸스여,
그대의 운명은 참으로 처참하여
유한한 인간을 복되다 부를 수 없이 하는도다.

시간은 모든 것을 안다. 그대의 의도(意圖)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그대를 폭로하여 심판한다—
아들이 애비를 더럽힌 괴악한 혼인을.
라이오스가 얻은 아기는 재앙이로다,
차라리 그대를 보지 않았더라면.
내가 부르는 노래는 그대를 위한 만가(挽歌)다.
노래의 끝은 이리하다.—나를 구원한 사람은
나를 망케 했다.

무서운 진리의 폭로를 보고 이오카스테는 자살하고, 오이디푸스는 스스로 두 눈알을 후벼 내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도 유명하다. 한편 오이디푸스의 처창(悽愴)한 독백들은 듣는 사람의 가슴을 찌른다. 이리하여 관객의 마음속에 정서의 격동이 일어나지만, 참은 시인의 운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귀의(歸依)로 말미암아 진정되고 초극(超克)되어, 마침내 고요한 조화로 가라앉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한 예술적 효과를 카타르시스(Catharsis)라 불렀다. 희랍의 비극 시인들이 노리는 바는 그러한 희유(稀有)한 체험의 일순(一瞬)이었다.

중세기에 연극은 없었지만(다만 교회의 예식의 일부로서의 신비극은 다름), 비극의 이념은 설화시들 속에 보존되어 있었다. 그러한 비극을 우리는 단테(Alighieri Dante, 1265~1321)에서 볼 수 있지만, 초서(Geoffrey Chaucer, 1340~1400) 속에서 더욱 편리하게 볼 수 있다. 초서는 두 편의 장편 설화시 <파라몬과 아사이트>와 <트로일로스과 크리세이드(Troilus and Criseyde)>를 비극으로서 구상했고, 또 《캔터베리 이야기(The Canterbury Tales)》에 나오는 <수도사의 이야기>는 여러 개의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모아서 한 편의 설화시를 이루었다. 그것은 조반니 보카치오(Giovanni Boccaccio, 1313~1375)의 <유명인들의 운명에 대하여(De Casibus Virorum Illustrium)>는 위대한 인물들의 몰락의 역사를 이야기한다. 그러한 이야기를 ‘tragedy’라 부르는 것은 유럽 중세기의 전통이었다. 초서도 이 로맨스에서 그러한 전통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 수도사는 다음과 같은 말로써 이야기를 시작한다.

한때 높은 지위에 서 있었지만 몰락하여
다시 역경에서 끌어올릴 수 없이 된 사람들의
불행을 비극적으로 한탄하려 한다.

확실히, 운명이 달아나려 할 때에
아무도 그를 붙잡지는 못한다.

(이것은 로마의 철학자 보이티우스(Anicius Manlius Severinus Boethius, c. 480~524 B.C.)의 사상을 요약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한다) 수도사는 루시퍼(Lucifer), 아담(Adam) 이래 시저(Gaius Julius Caesar, 100~44 B.C.)와 크라수스(Marcus Licinius Crassus, 115~53 B.C.)에 이르기까지, 극적인 몰락으로 유명한 17명의 위인의 이야기를 끝낸 뒤에 다음 같은 말로써 그의 설화를 맺는다.

크라수스 왕은 그의 오만 속에서 교수되었다.
그의 왕좌도 소용이 없었다.
비극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비극을 노래하며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운명의 여신은 뜻밖의 타격으로
오만한 왕국들을 치려고 항상 기다리고 있음을.
사람들이 그를 믿을 때에 운명의 신은
인간을 버리고 그의 얼굴을 구름 속에 감추어 버린다.

초서는 <수도사의 이야기>의 시초와 끝에서 두 번 운명의 힘을 강조했지만, 그것은 그저 번덕스러운 우연의 힘이라 생각되었을 뿐이고, 그 이상 깊은 해석은 이 작품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앞서 말한 바처럼 <파라몬과 아사이트>와 <트로일로스 와 크리스에이드>는 비극으로 구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운명에 대한 작자의 좀 더 깊은 해석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운명의 비극이라는 인상을 준다.

한 여자를 다투는 두 청년 파라몬과 아사이트가, 결투장에서 승부를 결정짓게 되었을 때, 천상에서는 인간 세계를 그려 낸 듯한 신들의 언쟁이 벌어진다. 파라몬을 지지하는 비너스와, 아사이트를 지지하는 마르스는 서로 자기의 허락이 먼저였다고 주장하여 양보하지 않으므로, 심판해야 할 주신(主神) 조브(Jove—Jupiter)도 난처하다. 이때에 교활한 새턴(Saturn)이 타협안을 제출한다. 일단 마르스에게 승리를 돌리지만, 결국 비너스에게 상을 준다는 방법이다. 이것이 그대로 지상에 실현되어, 장쾌한 시합은 아사이트의 승리로 끝나, 그날의 상인 에밀리아는 아사이트의 것이라 선언된다. 그러나 그가 말을 타고 의기양양하게 왕의 앞에 와서 인사하려고 하는 순간에, 말이 별안간 뛰어 그는 말에서 떨어져 치명상을 받는다. 그것이 원인으로 아사이트는 죽고, 에밀리아는 영구히 파라몬의 아내가 된다.

천상에서 신들이 언쟁하는 장면은 물론 초서가 자주 이용한 바 은유이다. (이 경우에 초서의 은유는 꼭 효과적이다. 인간 행동에 대한 운명의 심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데는 이런 방법밖에는 없을뿐더러, 이 이야기는 희랍의 이야기니까, 작품 속에 신들을 끌어들인대도 부자연하지 않다) 이 은유를 통하여 초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의의 심판이다. 이 이야기는 사랑과 정의의 갈등을 줄거리로 삼는다. 파라몬은 에밀리아를 먼저 보아 사랑에 사로잡혔지만, 그의 친구 아사이트보다 그리 앞서지는 못했었다. 아사이트도 거의 같은 때에 에밀리아를 보아 사랑에 사로잡힌다. 이리하여 두 친구는 다툰다. 파라몬은 자기가 먼저 보았으니까 내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사랑에는 법률이 없다고 아사이트는 대항한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정의의 법칙을 위반했다. 그 심판이 그의 죽음으로서 나타났던 것이다.

〈트로일로스과 크리세이드〉에는 초서의 운명관의 별다른 일면이 나타나 있지만, 대개 이상의 소개로써 초서의 비극의 개념은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비극은 고귀한 지위에서 행복을 누리던 사람이, 역경에 빠져 불행으로 끝나는 이야기다. (2) 행복을 뜻밖의 불행으로 전락시키는 힘은 운명이다.

(3) 운명은 정의에 입각해서 인간의 행동을 심판한다.

이러한 사상은 초서 개인의 인생관이 아니라, 중세기 사람들 전체를 지배하는 사상이었다. 그 사상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 보이티우스의 《철학의 위안》(De Consolatione Philosophiae)이었다. 그것은 토마스 아켄피스(Thomas à Kempis, c. 1380~1471)의 《그리스도를 본받아》(De Imitatione Christi)와 더불어 중세기에 가장 많이 읽힌 책이었다. 그것은 비록 로마의 이교 사상이었지만, 그리스도교 사상과 배치되지 않을뿐더러, 더욱 후자를 보충하는 바 있었기 때문에 단테를 비롯하여 다수의 중세기 지성인들에게 위안과 동시에 정신적 양식을 제공해 주었다. 초서도 그 감화를 받은 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 책을 산문으로 번역했다. 〈파라몬과 아사이트〉에서는 보이티우스의 말(그것은 앞서 인용된 수도사의 말과 같다)을 직접으로 인용하면서, 그것에 첨부하여 그 자신의 비극 정의를 내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서의 비극 개념을 중세기의 그것이라 보아 무방하다.

3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고전 비극이나 중세기의 비극적 설화시와 비교할 때에, 월등히 뛰어나다는 것을 곧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전자는 후자의 요건들을 제외하지는 않는다. 전절(前節)에서 말한 바 비극의 개념이 셰익스피어의 작품들 속에도 들어 있다. 다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요건이 나타나면서 기성(既成)의 개념을 훨씬 높여, 마치 전연 새로운 종류의 문학인 듯한 인상을 줄 뿐이다. 셰익스피어 비극의 개념을 붙잡으려는 사람은, 그의 작품 속에서 무엇이 새로운 요소이며, 무엇이 재래(在來)의 요소들인가를 분간해 보는 일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셰익스피어의 비극들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있어, 고귀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불행한 죽음으로 끝나는 이야기들이다. 그의 주인공은 리어나 맥베스처럼 왕이거나, 햄릿처럼 왕자거나, 오셀로처럼 일국의 장군이 아니면, 브루투스나 안토니우

스나 코리오레이너스처럼 그 나라의 정치를 좌우할 수 있는 지도적인 인물이다. 로미오와 줄리엣도 예외는 아니다. 그들은 비록 귀족의 아들이며 딸에 지나지 않지만, 그들의 집안싸움은 다만 사가(私家)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베로나의 안녕질서에 지대한 관계를 갖는 문제이다. 이 점에 있어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재래의 비극 개념과 일치한다. 이 점은 꼭 주목할 만한 점이다. 비극의 주인공이 왕후 귀족 중에서 선택되는 것은 구식이라고 해서, 리얼리즘에서 많이 비난을 받아 왔지만, 그렇게 가볍게 처리할 수 없는 문제다. 그 이유를 다음에 설명한다.

(1) 주인공이 갖는 바 비극적 체험은 왕후 귀족에 있어서나 전야필부(田野匹夫)에 있어서나 동일하다. 그러나 느끼는 바 강도에는 차이가 있다.

가령 아내가 배반했다고 생각하는 데서 발생하는 질투심에는 왕이나 농부나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농부가 오셀로처럼 강렬하게 질투심을 느낄 수 있는가? 만약 농부가 그의 질투심을 오셀로와 같은 말들로써 표현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자연성을 느낄 것이다. 감수성은 인간 능력의 일부이다. 다른 능력들에 있어 뛰어나는 사람만이 질투심에 있어서도 뛰어난다. 이것은 우리를 다음 문제로 인도한다.

왕후 장군은 과연 능력들에 있어 뛰어나는가? 아무 능력도 없이 왕좌에 앉아 있는 범용한 군주가 역사에는 존재한다. 그렇지만 셰익스피어 비극들에 있어 주인공은 출중한 능력을 타고난 사람들이다. 맥베스는 비록 무도(無道)한 수단으로써 왕위를 찬탈했지만, 그는 그 자리에 자기를 앉혀 놓고 상상해 본대도 어색하지 않을 만한 유자격자(有資格者)다. 오셀로가 반 흑인이면서도 베니스 공화국 원로원 의원의 딸을 무난히 획득하는 것은 그가 공화국에 없어서는 안 될 유능한 군인이었기 때문이다. 햄릿의 우수한 능력에 대해서는 길게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는 능력의 과잉 때문에 행동에 실패했다고 보는 견해는 너무도 소박하지만, 진리를 포함한다.

비극적 체험은 본질에 있어 수난의 과정이다. 그 과정이 예술적 효과를 발휘하려

면 무엇보다도 먼저 강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강렬성은 군주를 비롯하여, 지도적 지위에 있는 사람 속에서 더욱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비극의 주인공이 왕후 귀족에서 선택될 때에, 그가 출중한 능력자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된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에 있어 그 조건은 완전히 충족되어 있다. 맥베스의 능력은 그가 덩컨 왕을 암살해서 왕관을 쓰는 실행 자체보다도, 자기 자신의 범죄 의식에 고민하는 수난 속에 나타나 있다. 리어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이 인물의 위대성을 저 유명한 광란의 장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2) 비극은 본질에 있어 행복하던 사람이 불행으로 전락하는 이야기이다. 행복과 불행의 대비는 비극의 흥미의 핵심부가 된다. 그러한 대비는 모든 종류의 인간 속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만, 지위가 높은 사람 속에서 가장 현저하다. 미친 리어 왕을 보고 코델리아의 수행 신사는

천부(賤夫)라도 가련한 폴리어늘

하물며 왕이라서야 언어도단이다 (4막 4장)

라고 말하고 있는데, 비극의 주인공이 어째서 지위 높은 사람이라야 하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일국의 왕이었던 사람이 그 어리석은 선심 때문에 도리어 딸들에게 배반당하여, 집을 쫓겨나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발광하는 장면은, 인간의 소위 지위가 얼마나 허약하고, 소위 행복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도록 평이하고도 인상 깊게 보여 준다. 다른 작품들에 있어 이만큼 명료하지는 못하지만, 행과 불행의 대비는 일관적인 사실로서 나타난다. 맥베스는 지상 최대의 행복을 꿈꾸며, 실로 넘기 어려운 일선(一禪)을 넘어 왕을 죽였다. 그러나 맥베스 부인이 “모든 것이 소비되었는데,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3막 2장)”고 탄식하는 순간까지가 이론상으로는 그의 행복한 시기지만, 그것은 너무도 짧고 너무

도 무가치하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표현되지도 않는다. 오셀로의 행복한 시기는 그가 데스테모나와 결혼하고 즉시에 사이프러스 섬에 출동해서부터 이아고의 독사 같은 중상과 모략에 빠지는 순간까지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셀로 부부가 사이프러스 섬에 도착한 날 밤(2막 2장)뿐이다. 그날 밤에 캐시오의 취광(醉狂)이 나타나고 이튿날이면 데스테모나가 파면당한 캐시오를 위하여 남편에게 선불리 알선함으로써 이아고의 모략에 걸려들고, 오셀로는 다시 해엄쳐 나올 수 없는 의심의 지옥에 떨어진다(3막 3장). <햄릿>에서 대비의 윤곽은 더욱 흐리다. 우리는 무대 위에서 행복한 햄릿을 못 본다. 행복한 햄릿이란 말 자체가 모순인 만큼, 무대 위의 햄릿은 처음부터 불행한 왕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응당 행복했던 햄릿을 마음속에서 그려볼 수 있다. 그것은 주로 오�필리아를 통해서 가능하다. 오�필리아는 정신병자로 타락하고 만—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애인을 다 음과 같이 슬퍼한다.

“궁정(宮廷)의 눈이요, 학자(學者)의 입이요, 무인(武人)의 검이요, 국민(國民)의 기대요, 나라의 꽃이요, 풍속(風俗)의 거울이요, 예절(禮節)의 모범으로서 만인(萬人)이 우러러보던, 그 높으시던 정신이 아주 땅에 무너지고 말았구나. 아름답게 우리는 종소리들처럼 거룩하고 장하시던 이성의 조화는 간 곳이 없고, 마치 불종을 난타하는 듯 어지럽고 귀 아픈 소리들뿐. 한참 피어나는 꽃처럼 비할 바가 없던 그 용모, 그 자태가 산벼락을 맞는 꼴을 이 눈으로 보다니—(3막 1장).”

셰익스피어가 이처럼 주인공의 행복하던 시절을 시적으로 암시하는 데 멈추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운명의 돌변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과장하면 멜로드라마가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는 그러한 멜로드라마를 <햄릿>의 극중극에서 의식적으로 이용했다.

아서라, 말아라, 운명의 여신아!
천상의 제신(諸神)은 중의(衆意)로써 그 권력을 빼앗고
그 수레바퀴에서 살과 테를 부수어
둥근 바퀴통만 구천(九泉)을 굴러 굴러
지옥의 악귀들 위로 떨어뜨리라! (2막 2장)

운운하는 배우의 대사는 셰익스피어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라, 그 시대에 유행하던 멜로드라마의 과장된 표현을 일부 흉내 냈다. 운명의 돌변을 골자로 삼는 점에 셰익스피어의 비극들은 초반 대중적 비극과 동일하지만, 그들이 멜로드라마로 타락하지 않는 것은 순전히 그의 시 때문이다. 그러한 예는 <맥베스>의 5막 5장에서도 볼 수 있다.

(3) 제왕의 몰락은 야인의 그것보다는 영향이 크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모두 5막에 가서 주인공이 죽는 동시에, 무대 위에 너저분한 시체들을 깔아 놓음으로써 막을 내리는데, 만약 주인공이 아무 지위도 권력도 없는 일개의 사인(私人)이었다면, 그런 처참한 결과를 낼 수는 없을 것이다. 클로디어스 왕이 로젠크란츠와 길든스틴에게 햄릿의 암살을 명했을 때 로젠크란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사로운 한 개인일지라도, 자기의 생명이 위해를 면하도록, 모든 정신력으로 무장을 하고 보호해야 한다 함은 당연한 일이옵거늘, 하물며 무수한 생명이 오로지 그 앞에 달려있는 바 옥체로서야 다시 이를 말씀이 있겠습니까? 지존의 봉어는 옥체 한 몸에 그치지 않으으며, 마치 소용돌이와 같아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것은 높은 산봉우리에 장치되어 있는 거대한 수레바퀴, 그 큰 살들에는 무수한 잔 것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 수레바퀴가 굴러 떨어질 때에는, 작은 부속물 하나하나가 다 같이 따라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려옵니다. 지존이 한 번 탄식하시면 반드시 만백성이 신음을 하게 됩니다(3막 3장).”

다소 과장된 허물은 있지만, 이 말은 비극에 있어서의 왕자의 지위를 가장 웅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위에서 셰익스피어 비극의 주인공들이 어쩌서 지위 높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같이 주인공을 선택함에 있어,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고전 비극의 이념과 일치한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고전 비극의 개념을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그것은 동시에 셰익스피어 비극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명백히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 정의는 이러하다. “비극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참혹한 죽음으로 끝나는 불행한 이야기이다.”

4

위에서 비극은 고귀한 인물이 죽음으로 끝나는 불행한 이야기라 정의했지만, 그 죽음이 우발적이어서는 안 될 것은 뻔한 이치다. 가령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급사한다든가, 혹은 질병이 밤도둑처럼 침노해서 죽는다든가 하는 경우엔 비극을 운운할 여지는 전혀 없다. 행복하던 사람이 불행한 죽음을 당하는 경로가 필상적(必然的)으로 제시되지 않고서는 비극이 성립될 수 없다. 그러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은 완전한 인간 행동을 모방한다”고 《시학》에서 말했다. 완전하다 함은 도덕적으로 그러함을 의미하지 않고 시초와 중간과 결말을 가지는 행동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원인에서 출발하여 일정한 과정을 밟아, 일정한 결말에 도달하는, 그 자체로서 충족한 체험이 비극적인 행동을 형성한다. 그러한 의미의 행동을 무대 위에 재현하는 것이 비극이라는 점에서는 고전 비극이나 셰익스피어 비극이나 다름이 없지만, 차이는 그 원인에서 나타난다. 비극적 행동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제2절에서 본 바처럼 고전 비극에서 행동의 원인은 운명—개인이 예견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따라서 외재적인 힘이었다. 오이디푸스가 생부에게서 버림을 받아 타국의 왕가에서 자라나고, 뒤에 그 아버지를 살해하고, 또 그 어머니와 결혼하는 과정이 비록 아무리 필연적이라 할지라도, 끔찍끔찍한 행동들이 모두

그의 예정된 운명을 실현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 행동들의 원인은 그에게는 순연히 외재적이다. 이와 같이 외재적인 원인에서 발생한 행동에 대하여 주인공이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는 데서, 고대 비극 시인은 운명의 두려움과 인간의 무력함을 강조할 계기를 발견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셰익스피어의 비극들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여기서 비극적 행동들은 인물 자체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다만 인물이 행동자라는 표면적인 의미만은 아니다. 그 행동은 행동자 자신이 충분히 의식하고 하는 행동이다. 그것은 행동자 자신을 완전히 표현하는, 따라서 그의 특징적인 행동(Charistic actions)이다. 그러한 특징들을 집합적으로 성격(Character)이라 부른다. 위에서 말한 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

—셰익스피어 비극에 있어 행동은 성격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근대극 전체의 특징이지만, 그것이 가장 철저하게 추구되었다는 점에서,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근대극을 대표한다. 맥베스의 범죄적 행동에 대해서는 그의 야심 이외에 아무것도 책임이 없고, 리어 왕의 말로는 순연히 그의 어리석은 관대성의 결과이고, 오셀로가 저 순결한 데스데모나를 학살하는 것은 그의 인정에 어두운 반면에, 사람을 믿기 쉬운 그의 성품의 비극적인 결과이고, 햄릿의 비극은 하나부터 열까지 그의 지적이며 회의적인 성격의 소산이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비극에 있어서는 성격이 꼭 운명이라는 말도 일단 성립될 수 있는 말이다. 물론 그것은 과장된 말이다. 성격 이외에도 행동을 결정하는 다른 힘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의 비극들에서 성격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본질적이며, 가장 강한 힘이라 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셰익스피어 비극에 있어 성격 이외에 행동을 결정하는 다른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다음 절에서 고찰해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비극적 행동과 성격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로 한다. 비극은 완전한 인간 행동을 모방한다 하지만, 주인공의 행동이 단독으로 나타날 수는 없다. 비극적 행동은 언제나 적역

(antagonist)과 주역(protagonist)의 투쟁의 형태로 나타난다. 〈햄릿〉의 행동은 햄릿과 클로디어스의 투쟁이다. 이 대립은 주역을 중심으로 하는 인물단과 적역을 중심으로 하는 인물단의 투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맥베스〉는 맥베스와 그의 아내 일단(一團)이 되어 덩컨의 부하들과 충돌한다. 그러나 〈리어 왕〉과 〈오셀로〉에 있어 주역과 적역은 누구누구인가? 간단히 대답하기 어렵다. 의문은 여기에 멈추지 않는다. 〈맥베스〉를 다만 주인공과 덩컨의 투쟁이라고만 보는 것은 너무도 피상적이다. 〈햄릿〉에서 주인공 햄릿이 클로디어스와 투쟁한다고 말한대도, 그것은 이 비극의 내용을 일부분밖에는 설명하지 못한다. 우리는 셰익스피어 비극에 있어 투쟁의 참된 성질을 좀 더 깊이 관찰할 필요가 있다.

〈맥베스〉는 표면상으로는 대역무도(大逆無道)한 맥베스와 어디까지나 왕에 충성한 맥더프, 펠컴 등 일단의 인물들과의 투쟁이지만, 그러한 투쟁—야심과 충성심의 투쟁—은 맥베스의 정신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그의 독백과 또 그의 고민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환영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물론 그러한 내면적 투쟁이 외면적 투쟁과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흥미를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항구(恒久)한 인상을 주는 점에서 후자는 전자보다도 오히려 중대하다. 셰익스피어는 그렇게 되도록 작품을 구성했다. 〈햄릿〉에 있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투쟁을 의지하지만, 외면적인 투쟁은 별반 눈에 띄지 않는다. 이 극의 투쟁의 대부분과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인공의 정신 내부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햄릿의 내부에서 무엇과 무엇이 투쟁하는가? 간단한 말로 이 질문에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지적 양심과 타락한 권력과의 투쟁이라 보는 것은 한 견해가 될 수 있다. 하여튼 투쟁의 성질을 내면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이 비극은 전연 알 수 없는 독백의 연속이 되고 말 것이다. 〈오셀로〉는 투쟁이 나타내는 바 흥폭성(兇暴性)에 있어 으뜸가는 작품이며, 또 그러한 작품으로서 기억되고 있지만 그 투쟁의 정체는 기묘하리만큼 막연하다. 오셀로는 누구와 싸우는가? 데

스테모나와 싸우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는 데스테모나를 미워서 죽이지만, 데스테모나는 그를 죽는 순간까지도 사랑하고 있다. 이것은 전연 투쟁이 아니다. 이 아고는 최후 순간—그의 모든 흥계가 탄로되는 순간—까지는 그의 가장 충실하고도 신임받는 부하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투쟁이 있을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극은 무서운 투쟁의 연속으로서 진행된다. 그 투쟁은 순연히 오셀로의 내면적 투쟁이다. 그 투쟁의 모습을 가장 명백히 보여 주는 것은 다음 말이다. 5막 2장에서 오셀로가 데스테모나를 살해할 목적으로 침대에 가까이 오니, 데스테모나는 잠을 자고 있다. 그때에 하는 말이다.

오셀로 원인은 죄다. 원인은 죄다. 순전히.

정숙한 별들아, 그대들 앞에서 차마 죄명을 들지는 못하겠다.

원인은 죄다. 그렇지만 피는 흘리지 않겠다.

눈보다 희고 백고상(白膏像)처럼 매끄러운

저 여자의 피부에 상처는 내지 않으련다.

그렇지만 죽어야 한다. 또 술한 남자를 속일 터이니까.

먼저 이 불(촛불)을 끄고 다음에 저 불(생명)을 끈다.

화염의 역군이며, 그대의 불을 끄고 났다가도

마음이 돌아서면 다시 켤 수도 있으리라. 그렇지만

너는 지묘(至妙)한 자연의 정교한 예술품이라,

너의 불은 한 번 끄면 다시 켤 수 있는

프로메테우스의 불이 어디 있는가를 모른다.

(촛불을 내려놓는다)

장미꽃은 한 번 꺾으면 다시 살릴 수는 없다.

필연코 시들밖에. 가지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향기를 맡자.

(키스한다)

오오, 향기로운 입김이여, 정의도 칼을 꺾겠구나!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죽은 뒤에도 이대로만 있으라.
죽이고 나서 내 다시 사랑하마.
한 번만 더 키스,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렇게도 달고 그렇게도 쓴 것이 또 어디 있으랴!
울지 않을 수 없구나. 그렇지만 이 눈물은 잔인한 것
이 슬픔은 자비로운 것으로 알라. 사랑하면 때리기도 한다.

이때에 데스데모나가 눈을 뜬다. 지금 오셀로의 머릿속에는 무서운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데스데모나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과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사랑과 질투의 사투이다. 이 투쟁에서 질투가 승리하여 사랑은 압살되고 만다. 그것은 데스데모나가 무고하게 이불 속에서 압살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또 오셀로 자신의 멸망을 의미한다. 왜 그러냐 하면, 데스데모나는 그 피부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눈처럼 결백하니까. 오셀로가 간악한 이야기의 중상과 모략에 빠져서, 그의 정숙한 아내를 의심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그러니까 오셀로의 머릿속에서 그의 사랑과 싸우는 것은 질투가 아니라, 사실은 이야기라고 이해해야 옳다.

오셀로는 데스데모나를 죽일 때에 정의를 운운하여 심판자로서 자처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변장한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이야고는 정의를 가장하고, 오셀로의 머릿속에 들어가, 악(惡)의 독소(毒素)를 퍼치어 그의 선한 모든 것을 말려 버렸다. 존 밀턴(John Milton, 1608~1674)의 《실낙원(Paradise Lost)》에서 사단 이브를 유혹하기 전에 졸고 있는 뱀 속으로 잠입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오셀로>에서도 발생한다. 이야고는 사단 같은 간사한 지혜로 오셀로의 충복을 가장하

고, 그의 머릿속에 들어가 그를 죽이고 만다. 그러니까 이 비극에서 적역은 그 표면상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라고라 단정할 수 있다.

주인공의 내면적 투쟁을 흔히 선악의 투쟁이라 말한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쓴다면 그것은 꽤 편리한 말이다. 맥베스의 내면적 투쟁은 명백히 선악의 투쟁이다. 오셀로의 경우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해석한다면 마찬가지로 선악의 투쟁이다. 그러나 햄릿의 경우는 그렇게 명백하지 않다. 햄릿은 그를 포위하고 있는 악의 세력과 싸우지만, 그의 내면적 투쟁은 그러한 외면적 투쟁이 그대로 주인공의 의식 위에 묘사되어 있지는 않다. 그는 도덕적 의무감—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과, 그의 자연적인 경향과의 괴리에 고민하며, 후자를 극복하려고 투쟁한다. 그러니까 그의 경우에 있어 투쟁은 이중(二重)이다. 다시 말하면 그의 성격적 결함을 극복함으로써 도덕적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통일적인 영혼에 도달하는 동시에, 그렇게 통일된 성격을 가지고 외부의 절대한 힘과 싸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중의 투쟁이다. 햄릿은 그러한 투쟁에서 실패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격상 결함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얻게 된다. 햄릿의 내면적 투쟁이 선악의 투쟁이라 할 때에 악의 개념 속에는 그 자신의 성격적 결함도 포함된다. <햄릿>은 그 점에서 특이한 비극이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해서 관찰한다면, 그것은 셰익스피어의 모든 비극적 주인공들에 공통되는 특징이다. 맥베스의 야심, 오셀로의 질투심, 리어 왕의 오만심—이들은 각기 인물의 성격상 결함이다.

셰익스피어 비극의 주인공들은 그들의 높은 지위에 어울리는 비상한 능력과 동시에 고귀한 성품을 타고난 사람들이다. 오셀로까지도 그 검은 피부 속에 고귀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보다 훨씬 떨어지는 소인물(小人物)이라도 능히 면할 수 있는 성격적 결함 때문에 악에 걸려들거나, 또 악과의 투쟁에서 실패하여 비극을 저지른다. 인간은 누구나 완전할 수는 없다. 한 가지 장점이 있으면 그에 대응되는 한 가지 단점이 있다. 평범한 인간에 있어서는 장점도 단점도 미

약하기 때문에 쉽게 타협될 수 있지만, 위대한 인물의 능력은 비범하니만큼 그에 대응되는 결함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그것은 선(善)에 수반되는 필연적인 악(惡)이다. 이 악이 결국 그를 비극으로 인도한다. 이 점에 주목할 때에 성격은 운명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

어린 꽃나무가 바람에 쓰러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애처로움을 느낀다. 그러나 교목(喬木)이 폭풍에 쓰러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비창(悲愴)을 느낀다. 셰익스피어의 비극들이 주는 효과도 그러하다. 고귀한 인물들이 필연적인 악과 싸우다가 쓰러지는 모양은 슬픔과 공포와 장엄을 결합함으로써, 우리에게 최고도의 비극을 체험시킨다. 그러한 체험이 내포하는 바 인간적 의미를 고찰하는 일은 뒤로 미루기로 하고, 여기서 일단 기왕의 설명을 정리해 보자. ‘비극은 고귀한 인물이 죽음으로 끝나는 불행한 이야기’라는 정의 대신에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비극은 고귀한 인물의 생애 속에 예외적인 불행을 만들어 내어, 그를 비참한 죽음으로 인도하는 인간 행동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 행동은 성격에서 출발한다.’

5

셰익스피어 비극의 주인공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내면적 투쟁을 갖는다. 그의 초기의 작품들로부터 말기의 작품들로 걸어오면, 그 경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발견한다. 초기의 비극들—〈로미오와 줄리엣〉, 〈리처드 3세〉에서 주인공은 외부의 어떤 힘과 투쟁하지만, 내면적 투쟁이라고 할 만한 것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반면에 그의 마지막 비극이 되는 〈코리올레이나스〉에서 내면적 투쟁은 외면적 투쟁을 압도할 정도다. 또 이 점에 관해서 적역과 주역들을 비교해 보면, 더욱 흥미가 있다. 셰익스피어 비극의 적역에는 내면적 투쟁은 없다. 그들은 악이거나 선이거나 간에 통일된 정신 상태에서 그의 목적을 전적으로 추구한다. 이와 같이 셰익스피어가 내면적 투쟁을 가져오는 성격의 분열을 그의 주인공들에게만 허

용했다는 것은 그들을 도덕적 존재로서 취급하려는 그의 의도를 반영한다. 이 점이 셰익스피어의 가장 특이한 점이다. 그의 주인공들은 고전 비극의 주인공들처럼, 맹목적이며 변덕스러운 운명에 농락되는 괴뢰는 아니다. 그들은 완전한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며, 그 행동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진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행동을 결정한다. 그렇지만 그들의 비극을 끌어오는 데 있어 그들의 성격이 유일한 원인이었던가? 그 이외에 다른 아무 힘도 가해지지 않았던가?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비극들을 읽을 때에 이런 의문이 불가피하게 머리에 떠오른다.

〈줄리어스 시저〉에서 카시아스는 “이봐요, 브루투스, 인간은 간혹 그의 운명을 지배할 수 있거든. 우리가 이렇게 열등자가 된 것은 그 죄가 우리들 운수에 있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일단 말이야(1막2장)” 하고 말하지만, 그것은 브루투스를 선동하기 위한 웅변에 지나지 않는다. 셰익스피어의 좀 더 진실한 견해는 〈햄릿〉에 나오는 배우 왕의 다음 말들에 제시되어 있다.

우리의 의지와 운명은 반대로 간다. (3막2장)

그들의 결말, 즉 행동은 우리의 사상에서 탄생했지만, 일단 행동이 되어 버리면 이미 우리의 물건이 아니다. 우리의 아들이나 저술이 우리의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비극적 세계는 행동의 세계인데, 행동은 사상이 현실로 화(化)하는 과정이다. 인간은 그의 이념과 사상을 추구하면서 현실 속으로 뛰어들어간다. 그렇지만 그가 현실 속에서 이루어 놓는 일은 그가 의도했던 일과는 판판이다. 인간은 현실 속에 이념을 추구한다. 하지만, 현실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모른다. 그는 어둠 속에서 싸우는 사람과도 같다. 그는 싸우면서 자기 자신의 목적을 실현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도구가 되어, 그 힘의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인간의 행동은 자유롭지만 행동의 결과는 그를 구속한다. 그러

한 구속은 그의 의도의 선악과는 무관계하다. 브루투스도 로마의 장래를 위해서 시저를 죽였지만, 그 결과는 그 자신과 및 그의 조국에 크나큰 불행을 가져왔다. 그와 반대로 이야고는 남을 해치기 위해서 흥계를 꾸며 놓았지만, 그 자신도 그 올가미에 걸려들고 만다. 햄릿은 복수라는 살벌한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기피하는 도중에, 그의 뜻하지 않았던 살인들을 행하게 되고, 마지막에 막다른 골목에 서서 복수했지만, 그것은 말하자면 요행수라, 그의 의지를 실현했다고는 볼 수 없다. 반대로 클로디아스가 햄릿을 죽이려고 마련해 놓았던 독배는, 그의 의도와는 반대로 왕비 거트루드가 마셔 버린다. 리어 왕의 선심(善心)—궁극에 있어 이기적이기는 하지만 딸들에 대한 너그러운 애정—에서 시작된 일이 결국 그를 망하게 한다. 오셀로는 이야고가 꾸며 놓은 이야기에 속아 정의를 실천한다. 생각하면서, 사실은 아무 죄도 없는 데스테모나를 압살한다.

이 비극적 인물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무지하지만, 그들 자신에 대해서도 무지하다. 코리오레이나스는 자기의 마음이 강철처럼 굳다 생각하지만 그의 처자의 호소 앞에서는 마치 불 앞의 눈처럼 녹아 버린다. 맥베스 부인은 일단 선언한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갓난아이의 입에서 젖꼭지를 빼고, 그를 땅 위에 내동댕이쳐서 골을 바술 수도 있다고 무서운 말을 하지만, 덩컨 왕을 죽인 뒤로는 그 피 냄새에 주야로 추격을 받아, 마침내 몽유병자가 되고 만다. 그의 남편은 왕관을 써 보기 위해서는 죽어서 저 세상에 가서 벌을 받는 것쯤, 모험해 보아도 좋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왕관을 머리에 써 보니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그의 머리 위에 얹어 놓을 뿐이었다. 비극적 세계에서 인간의 사상은 행동으로 실현되는 순간, 그 자신과 모순되는 반대물(反對物)로 변해 버린다.

셰익스피어 비극에서 주인공의 의도와 행동 사이에 개재해서 그를 방해하고 그를 좌절시키는 힘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비극적 세계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될 것이다. 그 힘이 맹목적인 운명이 아니라 함은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이나 초서의 장편 설화시들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고전 비극의 운명은 주인공의 의지와 사상과 감정은 전혀 무관계하게, 예정된 불행의 길로 주인공을 이끌고 가는 맹목적인 힘이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 비극들에 있어 인간이 아무리 무지하고 무력하다 할지라도 그의 행동이 그의 성격에서 출발하는 것은 사실이며, 그런 정도에 있어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주인인 것이다. 그러기에 그는 그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극의 전(全) 원인이 인간의 성격에 있지는 않다. 비극의 원인이 내재적인 성격도 아니며, 맹목적인 우연으로서의 외재적인 운명도 아니라면, 무엇이라 해석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많은 셰익스피어 학자들의 의견이 갈라지는데, 앤드루 브래들리(Andrew Cecil Bradley, 1851~1935)는 그것을 ‘도덕적 질서’라고 말한다.

브래들리는 도덕적 질서에 의해서 인과응보의 법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을 ‘시적 정의’라 부르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적 정의란 행복과 불행이 행동자의 공죄(功罪)에 정비례해서 분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적 정의는 인생 사실과는 명백히 모순되며, 또 셰익스피어 비극에도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악한(惡漢)이 끝에 가서 승리하거나 번영하는 예를 우리는 셰익스피어에서 발견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행복과 불행, 생명과 죽음이 그 인간의 가치와 그 죄에 정비례해서 분배되는 일도 볼 수 없다. 데스테모나와 코델리아가 무고하게 죽은 사실, 죽음이라는 동일한 결말이 리처드 3세와 브루투스과 맥베스와 햄릿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오셀로가 이아고보다도 더 수난(受難)했다는 사실—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셰익스피어가 궁극의 힘을 시적 정의로 표현했다고 그를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다(초역, 《셰익스피어의 비극론(Shakespearean Tragedy)》 St. Martin’s Library 23).

이러한 인과응보의 법칙이 셰익스피어 비극에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

리어 그에 위반되는 사실이 많이 나타나 있다. <맥베스>에 있어 인과응보는 일단 성립된다.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리어 왕이나 햄릿이 이 법칙에 따라서 처벌되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언어에 위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전한 도덕감(道德感)에도 위반한다.

셰익스피어 비극에서 맹목적인 운명관이 제외되었다면, 합리적 인위적인 인과응보의 도덕관이 제외되었다는 것도 당연하다.

우리가 초서에서 본 바처럼, 이 두 우주관은 결국 합치하기 때문이다. 운명관은 우주의 신비에 대한 신화적 해석이요, 인과응보는 동일한 현상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지만, 인위적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셰익스피어 비극에서 그런 소박한 우주관은 자취를 감추었다.

브레들리는 도덕적 질서에서 인과응보를 제외하고 나서 그것을 단순히 선악의 문제로 취급한다. 그리고 도덕적 선이라 할 때에 다만 논리적인 개념만을 의미하지 않고,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모든 특질들을 포함시킨다. 그러니까 비극적 세계를 움직이는 궁극의 힘이 도덕적 질서라 말할 때에, 그 질서는 결코 인과응보를 실현하는 상식적 의미의 논리적 법칙이 아님은 물론이려니와, 저 운명처럼 인간의 선과 악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따라서 선과 악에 대해서 무차별하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맹목적인 힘이 될 수도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선에 대하여 친화력을 가지는 반면에 악에 대하여 반발력을 갖는 한 외재적인 힘이며, 그 자체로서 완전한 질서인 것이다.

셰익스피어 비극에 있어 악은 언제나 주인공의 내부에 격심한 고민을 일으키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증가되는 경풍(驚風)적 심리로 나타난다. 그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예는 <맥베스>이다. 그것은 악이 그 자신 내부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악이 주인공 이외에서 발생했을 때에 (예를 들면 <햄릿>과 <오셀로>) 나타나는 모양은 간접적이지만, 격심한 경풍 작용을 일으키는 데는 차이가 없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은 그 자체 속에 아무런 악도 포함하지 않았지만, 두 가족의 무의미한 증오심 때문에 결국 죽음으로 인도한다. 이아고의 악이 오셀로의 마음속에 사단처럼 잠입하는 경로는 앞서 분석한 바다. 이와 비슷한 경로를 밟아 거너럴과 리건과 에드먼드의 악은 리어 왕 내부에 침입하여 경풍 작용을 일으킨다. 〈햄릿〉의 경우도 좀 막연한 것 같지만, 그것은 악을 대표하는 인물이 적역한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예에서 주인공이 격심한 고민을 받는 것은 도덕적 질서가 파괴되었음을 표시한다. 도덕적 질서는 주인공의 외부와 내부를 다 포함하는 전체적인 질서이지만, 비극의 주인공은 그의 특별한 자질로 말미암아 전체적 질서의 축도이기 때문에 파괴로 말미암아 생기는 경풍 작용은 그의 내부에서 가장 심하다. 이러한 파괴적인 발악에 대해서 도덕적 질서는 무관심할 수는 없다. 그것은 마치 생명을 파괴하려는 독소에 대해서 인체가 무관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때에 인체는 경풍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독소를 신체 외부로 내던지려는 격심한 반작용인 것이다.

햄릿의 우유부단(優柔不斷)과, 리어 왕의 자기과신(自己過信)과, 오셀로의 경신(輕信)은 그 자체가 악이라 볼 수는 없지만, 악을 유인하기 쉬운 점에서 도덕적 질서에 유해하다. 그러한 개인의 성격적 결함에 대한 질서의 반응도 악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추호의 용서도 없다. 악—성격적 결함까지를 포함시켜서—은 사멸(死滅)의 원리로서 부정적이며, 비생산적이며, 파괴적이다. 그것은 고립화시키며,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어, 마지막에는 상대방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도 멸망한다. 인체 속에 들어간 박테리아는 인체를 사멸시키는 동시에 그 자신도 사멸한다. 그와 반대로 선은 생명의 원리이다. 악한 인간이 존속하고 번창한다면, 그의 내부에 아직도 선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악이 선에 완전히 승리할 때에, 주위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쓰러뜨리지만 그 자신도 쓰러진다. 그것은 도덕적 질서가 그에게서 악만을 추출(抽出)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부패한 신체의 일부

에서 평균만을 적거(摘去)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도덕적 질서는 그 자체의 윤리성을 가지고 보편적, 필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예외가 없는 일반적 법칙이 된다. 개인의 행동에 대한 그 적용은 무자비하다. 도덕적 질서가 운명과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그 때문이다.



차례

〈햄릿〉과 셰익스피어	5
셰익스피어 비극의 개념	10
장소	39
등장인물	39
제 1 막	41
제 2 막	73
제 3 막	101
제 4 막	137
제 5 막	166

장소

덴마크

등장인물

햄릿 - 선왕의 아들, 현재 왕의 조카

클로디우스 - 덴마크의 왕

거트루드 - 덴마크의 왕비, 햄릿의 어머니

폴로니우스 - 궁 내부 대신

레이티즈 - 폴로니우스의 아들

오펔리아 - 폴로니우스의 딸

마셀러스
버나도

} - 장교

프란시스코 - 사병

볼티먼드
코넬리어스
로젠크란츠
길든스텐
오즈릭
신사 한 명

} - 궁중의 신하들

레이날도 - 폴로니우스의 하인

포틴브라스 - 노르웨이 왕자

호레이쇼 - 햄릿의 친구

사제(司祭) 한 명

배우들

어릿광대 두 명 – 유대군들

부대장 한 명

영국의 사신들

귀족들 · 귀부인들 · 사병들 · 뱃사공들 · 승지

심부름꾼들 · 그 밖의 시종들 · 햄릿의 아버지의 훈령

제 1 막

제1장 엘시노어(Elsinore) 궁성 앞의 망대(望臺)

프란시스코가 망을 서고 있다. 그 앞으로 버나도가 걸어 들어온다.

버나도 거, 누구냐?

프란시스코 넌 누구냐? 정지! 이름을 대라!

버나도 성수무강!

프란시스코 아, 버나도 장교님이십니까?

버나도 그렇다.

프란시스코 꼭 제시간에 오시는군요.

버나도 인제 막 열두 점을 쳤다. 넌 가 자거라.

프란시스코 이번 교대는 참 반가운데요. 어찌도 추운지, 저렸습니다.

버나도 별 이상 없었니?

프란시스코 쥐 새끼 한 마리 까딱도 없었습니다.

버나도 좋다. 그럼 가서 자라. 이번 내 짝은 호레이쇼와 마셀러스인데, 만나거든 빨리 오라고 해라.

프란시스코 지금들 오시나 봐요. 정지! 누구얏!

호레이쇼와 마셀러스 등장

호레이쇼 솔토지민(率土之民)이외다.

마셀러스 막비왕민(莫非王民)이외다.

프란시스코 안녕히 가십시오.

마셀러스 여어, 모범병 잘 가게. 누가 교대 왔는가?

프란시스코 버나도 장교님이십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 (퇴장)

마셀러스 이보게, 버나도!

버나도 어? 벌써 왔어? 호레이쇼도 왔는가?

호레이쇼 약간 비쳤네.

버나도 호레이쇼, 잘 왔네. 마셀러스, 아, 자네도 잘 왔네.

마셀러스 그래, 그것이 오늘 밤에도 또 나왔던가?

버나도 아직은 못 봤어.

마셀러스 호레이쇼는 그것이 그저 우리들의 환상이라고 해서, 도무지 믿어 주질 않는다네. 우리들은 그 무서운 형상을 두 번씩이나 봤는데. 그래 이번에는 우리 같이 가서, 오늘 밤 바로 그때쯤 해서, 같이 망을 보자고 올라 댔지. 만약 그 허깨비가 다시 한 번 나타난다면, 호레이쇼도 우리들의 눈이 틀림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인정해 줄 테지.

호레이쇼 쓸데없는 소리들. 그런 건 안 나타나요.

버나도 좌우간 좀 앉게. 우리가 이틀 밤씩이나 보고 하는 말에, 자네는 영 귀를 틀어막고 막무가내니. 우리가 그 벽창호를 대고 총공격을 해 보려네.

호레이쇼 그럼, 어디 앉아 보세. 그리고 버나도께서 설명하시는 걸 좀 들어 볼까?

버나도 어젯밤만 해도 말이야, 북극에서 좀 서쪽으로 치우쳐 있는 바로 저 별이 어지간히 올라와서, 지금 불타듯 하는 저 하늘을 환히 비취 줄 때쯤 되니까, 마셀러스하고 나하고…… 옳지, 그때에 종이 한 점을 찢겠다.

혼령 등장

마셀러스 쉬, 조용히! 자, 좀 보라. 저것이 또 나온다.

버나도 선왕폐하(先王陛下)와 꼭 같은 모습이로구나.

마셀러스 자네는 학자지! 좀 말을 걸어 보게.

버나도 선왕폐하와 꼭 같이 보이지 않는가? 자세히 보게, 호레이쇼.

호레이쇼 꼭 같으니. 무섭고 놀라운 마음에 가슴이 뻐개질 것 같네.

버나도 말을 건네주었으면 하는 눈치일세.

- 마셀러스 호레이쇼, 자네가 좀 말을 건네 보게.
- 호레이쇼 대저 그대는 무엇이관대, 이 야경(夜更)의 틈을 타고 나와, 선왕폐하께서 행차하시던 때의 그 늠름하시고 장쾌하신 모습을 무엄하게도 몸에 차리느냐? 엄중히 명한다. 썩 고하거라!
- 마셀러스 골이 났다.
- 버나도 저것 봐, 어정어정 걸어가네!
- 호레이쇼 게 있거라! 말하거라, 말해! 명령이다. 말하거라! (혼령 퇴장)
- 마셀러스 가 버렸구나! 영 말하지 않으려는데.
- 버나도 웬셈인가? 호레이쇼, 자네 얼굴이 새파래서 별별 떠네그려. 이거야 어디 환상이라고 할 수 있나? 자네 생각은 어떤가?
- 호레이쇼 내 눈으로 보아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실지로 감각하지 못했더라면 도저히 믿지 못했을 걸세.
- 마셀러스 선왕폐하 같지 않은가?
- 호레이쇼 그 이상 더 같을 수야 없지. 선왕폐하께서 저 흑심 많은 노르웨이 왕과 격투하실 때 입으셨던 갑옷도 저랬겠다. 또 담판이 결렬돼서 언쟁이 벌어졌을 제, 얼음 위에 썰매를 타고 다니는 저 폴란드 놈들을 해 델 때도 저렇게 낫을 찌푸리셨겠다. 참 괴상한 일이로군.
- 마셀러스 이전에도 이렇게 두 번, 시간도 지금과 꼭 같은 자정에 의젓이 걸어서 우리들이 망보는 앞을 지나갔단 말이거든.
- 호레이쇼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할지 모르겠네만, 대체 내 생각으로는, 이건 우리 국가에 무슨 괴변이 생겨날 징조일세.
- 마셀러스 자, 우리 앉아서, 아는 사람이 있거든 내게 좀 말해 주어. 무엇 때문에 이렇듯 엄중한 망을 세워, 이 나라 백성들을 매일 밤처럼 못살게 구는 거며, 무엇 때문에 매일처럼 대포를 부어 만든다, 외국에서 군기를 사들인다 하는 거며, 무엇 때문에 조선공(造船工)들을 징발해다가 주일과 평일(平日)을 가리지 않고 혹독히 일을 시키는 거란 말이오. 밤낮 연달아 땀을 흘리며 일을 서두르게 되니 대체 무슨 일이 박두해 있는

난 말이오. 어디 누가 속 시원히 말해 줄 수 있나?

호레이쇼 그건 내가 할 수 있지. 적어도 소문은 이러하네. 바로 아까 그 모습이 우리 앞에 나타났던 우리 선왕께, 자네도 알다시피 노르웨이의 포틴브라스란 놈이 싸움을 걸어왔단 말이야. 놈은 세상에도 발칙스러운 오만심에서 그런 충동을 받은 게지. 이 통에 영용하신 우리 선왕폐하께서는—그야 이 세상 사람이 모두 다 그분을 영용하신 분으로 모시지 않았는가?—그놈의 목을 베이셨겠다. 그런데 상민(常民)과 호반(虎班)의 법률이 다 같이 인정하는 바 문서 계약으로, 포틴브라스는 죽는 날이면 그 목숨과 더불어 그 소유 토지 전부를 전승자에게 포기한다는 것을 약속했었지.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선왕께서도 상당한 토지를 거셨지. 그러니까, 만약 포틴브라스가 싸움에 이겼더라면 그 토지는 응당 그놈의 상속 재산으로 돌아갈 뻔했지. 그렇지만 바로 그 계약서의 취지와 명문조약(明文條約)에 의해서 그놈의 토지는 선왕에게로 떨어졌단 말이야. 아, 그런데 말이오. 이번엔 포틴브라스 아들놈이 미거(未舉)한 청년의 혈기라, 노르웨이 변방 이곳저곳에다가 무뢰도배(無賴徒輩)를 다수히 끌어모아 가지고 무슨 엉뚱한 일을 착수하자는 건데, 그 놈들이야 하루 세 끼 밥만 먹이면 그저 뱃심만 가지고 땀벼드는 패들 이니까. 그런데 그놈들이 꾸미는 일이란 우리나라 관가(官家)에서는 다 뻔히 알고 있는 일이지만, 별거 아니라, 그 애비의 잘못으로 잃은 전기(前記)의 토지를 완력과 강제 조건으로써 우리들에게서 뺏어 간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쟁 준비의 주요한 동기가 되며, 우리가 망을 서는 원인이 되며, 또 역마다 주졸(走卒)이 달리고, 향촌(鄉村)이 물 끓듯 하는 장본(張本)이라고 나는 생각하네.

버나도 나도 바로 그렇다고 생각하네. 그리고 보니 이 흉측한 형상이 갑옷을 차리고 우리의 망보는 앞에 나타난다는 것은 그럴 법도 한 일이지. 그제나 이제나 전쟁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니만큼 과연 선왕다운 일이야.

호레이쇼 티끌 하나만 있어도 우리의 눈은 아픈데, 이 훈령은 우리의 심안(心眼)

을 어지럽히는 티끌이로다. 로마의 세력이 절정에 달하고, 승리의 영광이 가득하던 시절, 지고지대(至高至大)한 시제가 쓰러지기 바로 전에, 무덤들은 주인을 잃고 수의(壽衣)를 입은 시체들이 로마 거리거리에서 뒹뒹거리며 지출대였었다. 또 불꼬리가 달린 별이 나타나고, 핏빛 이슬이 내리고, 태양 속에 얼룩이가 나타났었다. 넵툰(Neptune)나라 바다를 좌우하는 달은 어찌도 월식이 심한지, 마치 최후 심판 날이나 당한 것처럼 암담했었다. 이와 꼭 같은 무슨 무서운 일이 일어날 징조—항상 운명의 앞잡이가 되며, 앞으로 나타날 재앙의 서막이 되는 흉조들을 하늘과 땅이 다 같이 나타내어, 이 나라 고을고을 사람사람에게 알려 주었다. 쉬, 가만히! 저걸 보게! 야야, 저것이 또 나타나는구나!

혼령이 다시 등장

예라, 급살을 맞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한번 가로막아 보겠다. 허망된 그림자여, 게 섰거라! 네가 사람의 소리를 들을 줄 알거나 목소리를 낼 줄 알거든, 나에게 말하여 보아라. 너의 원을 풀어 주고 내게도 욕이 될 만한 무슨 좋은 일이 있거든 나에게 말해 보아라. (닭이 운다)

이 나라 운명의 비밀을 네 알거든 말하여 다오.

미리 알면 아마도 피할 도리도 있으리라. 또는 생전에 남에게서 빼앗은 재물을 땅속에 묻어 두었거든—그런 것을 못 잊어 너희 혼령들은 자주 지상에 나타나서 오적가적 한다던데—그런 것이 있거든 말하여 다오. 게 섰거라! 말하라! 마셀러스, 저것을 정지시켜라.

마셀러스 창으로 찌를까?

호레이쇼 서지 않거든 찔러 버려!

버나도 여기다!

호레이쇼 여기다! (혼령 퇴장)

마셀러스 없어졌다!

저 같은 존엄한 혼령에 대해서 난폭한 짓을 부려 보려한 짓은 우리의 잘못이다. 혼령은 공기처럼 창갈을 받지 않으니까. 부질없이 쳐 본댔자, 그것은 한낱 심술궂은 어린애 장난이란 말이야.

버나도 머뭇머뭇 말을 하려고 하는데 답이 올었지.

호레이쇼 그랬더니 그것은 마치 무서운 관가의 호출(呼出)을 받은 죄인 모양으로 질겁을 해서 사라지고 말데. 나는 이런 말을 들은 일이 있네. 답이란 새는 새벽을 알리는 나팔수인데, 그 지르는 높은 목청은 해님의 잠을 깨운다네. 그래, 이 소리만 들으면 배회(徘徊)하던 마귀들이 바닷속에서나, 불 속에서나, 땅속에서나, 허공에서나, 줄달음을 쳐서 제 처소로 돌아간다네. 바로 전에 나타났던 그 물건이 이러한 전설의 진리를 증명해 준 셈이지.

마셀러스 답 우는 소리를 듣자, 그만 사라지고 말데.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네. 우리 구세주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절이 되면 그전에 새벽 새가 밤을 새워 운다나. 그러면 마귀들이 감히 밖에 나와 돌아다니지 못한대요. 그래서 밤이 되어도 든든해서 급살을 맞는 일도 없고, 요물들이 덮치는 일도 없고, 마귀들도 맥을 못 쏜대요. 과연 때는 거룩하고도 복 받은 시절이란 말이야.

호레이쇼 나도 그런 소리를 들었고, 또 어느 정도 믿기도 하네. 그러나 저기를 보게. 벌써 아침 해가 붉은 도포를 입고 저기 저 높은 동산 위 이슬을 밟으며 걸어오시네. 이제는 우리들도 망을 파하세. 그러고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거든, 오늘 밤에 우리들이 본 일을 햄릿 전하에게 아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 혼령은 우리들에게는 함구무언이었지만, 동궁전하에게는 필시 무슨 말을 할걸세. 동궁전하에 대한 우리의 정성으로 보아서도 응당 할 만한 일이고, 또 우리들의 직책상으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자네들은 이 일에 대하여 찬성하는가?

마셀러스 그렇게 하세, 꼭. 바로 오늘 아침 우리가 편리하게 전하와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내가 알고 있네. (퇴장)

제2장 궁성 안의 정전(正殿)

왕, 왕비, 햄릿, 폴로니어스, 레어티즈, 볼티먼드, 코넬리어스,
귀족들 및 그 부하들 등장

왕 다정하시던 형님 햄릿 왕이 봉어하신 기억이 아직도 새로워, 전 국민
이 다 같이 수심에 싸이고, 만백성이 이맛살을 한결같이 찌푸리게 됨
이 마땅한 일이로되, 또한 우리의 지각심(知覺心)은 우리의 천연(遷延)
한 인정을 이기어, 애절한 마음으로 선왕의 뒤를 추모하면서도, 또 한
편 현명한 정신으로 우리들의 일을 생각해 왔다. 그러므로 짐은 지나
간 날에는 형수였고 오늘날에는 왕비가 되시며, 겸하여 상무(尙武)하
는 이 나라의 과부 상속자가 되시는 이분을, 말하자면 이치러진 기쁨
으로써, 한편 눈에는 기쁨의 웃음을 띄우고, 한편 눈에서는 슬픔의 눈
물을 흘리며, 장례식에도 기쁨을, 결혼식에도 슬픔을 품으며, 기쁨과
슬픔을 꼭 같이 저울질하면서, 마침내 정궁(正宮)으로 모셨노라.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들이 스스로 보조를 맞추어 주기에, 짐도 그 월등
한 지혜의 길을 굳이 막지 않았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가상히 여긴
다. 그다음에 할 말은, 포틴브라스의 아들이 짐의 실력을 얹잡아 보았
는지, 또는 형 왕의 봉어로 인연(因緣)하여 우리나라의 매듭이 풀리고
사개가 물러났다고 생각했는지 모르되, 시리(時利)를 얻었다는 망상
(妄想)만을 믿고, 경들도 알다시피 서한을 보내어 기어이 진념(軫念)을
어지럽게 하는구나. 그 서한의 내용인즉, 그 애비가 합법계약(合法契
約)으로써 짐의 영웅(英勇)하신 형 왕에게 잃은 바 토지를 도로 내놓으
라는 것인데, 그 이야기는 이만 해 두고, 이번에는 짐이 일부러 경들의
참조(參朝)를 구하게 된 연유를 말하겠노라. 요건은 다음과 같다. 짐은
젊은 포틴브라스의 숙부가 되는 노르웨이 왕에게 보내는 이 회한 속에
서 그 젊은 녀석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는 그 백성들로부터 술한 군

대를 모집하는 등의 처사가 없도록 그 조카를 단속하라고 써 두었다. 이 노르웨이 왕은 병객이라, 항상 병석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조카의 흥측한 맘보를 알 바가 없기에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다. 짐은 이에 노(老) 노르웨이 왕에 보내는 칙서의 지참자로서 경 코넬리어스와 경 볼티먼드를 파견하오.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의 범위 이상으로 그 왕과 교섭할 개인적 권한이 경들에게 하여(許與)되어 있지는 않소. 빨리 일을 처리하여 짐의 치하를 받도록 하오.

코넬리어스 } 이 일뿐이겠습니까? 모든 일에 있어 신들은 직책을 다하여 충성을
볼티먼드 } 표시하겠습니다.

왕 } 짐은 추호도 의심치 않소. 부디 안녕히들 다녀오오. (볼티먼드와 코넬리어스 퇴장)

자, 이번에는 레어티즈, 너는 또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무슨 소청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무슨 소청이고? 덴마크 왕에게 정당한 청을 드려서 그 말이 헛되이 되는 법은 없으리라. 네가 무슨 청을 드리든지 간에, 정당한 것이라면, 네가 조르지 않아도 짐이 자진해서 주려 한다. 뇌수와 심장이 동기 상통하고 수족이 구복(口腹)의 연장이 된다 한들, 덴마크 왕과 너의 아버지처럼 손뼉이 맞을 수가 있겠니? 레어티즈야, 그래, 네 청이 무엇이나?

레어티즈 } 상감마마, 소신이 프랑스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 주시옵기 바랍니다. 상감마마 등극식에 참렬하여 소신의 충성을 표시하고자 혼연히 프랑스에서 돌아왔사온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직책도 끝났사오니,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을 억제할 수 없사와, 이같이 머리를 조아리오니, 폐하께서 도타우신 은혜를 베푸사, 허락하여 주시며, 아울러 폐하의 슬하를 떠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왕 } 가친의 허락을 받았느냐? 폴로니어스 경, 어떻소?

폴로니어스 } 애걸복걸해서 겨우 소신의 승낙을 빼앗다시피 했습니다. 유서에다 굳은 도장을 찍는 격으로, 할 수 없이 내키지 않는 승낙을 해 주었습니다.

다. 폐하께서 출발 허락을 내려 주시옵기 바랍니다.

왕 레어티즈야, 너에게 편리한 시기를 택해서 떠나도록 해라. 앞으로는 네 시간이니까, 네 마음대로 쓰되, 모조록 유익하게 이용하라. 이번엔 내 조카, 내 태자 햄릿, 네 차례다.

햄릿 (독백) 아버지가 되고 보니 친척 이상이지만, 소행을 보니 도둑(盜跖) 이하다.

왕 네 얼굴에 항상 구름이 덮여 있으니, 무슨 연유이냐?

햄릿 상감마마, 천만의 말씀이외다. 저는 태자라, 태양의 성덕을 너무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왕비 동궁은 착하시니 그 어둡침침한 빛을 던져 버리고, 좀 더 다정스러운 눈으로 덴마크 왕을 우러러보오. 항상 그렇게 눈을 내리뎛고 큰길 떠나신 아버님을 땅속에서 찾지만 말고, 죽음이 인간의 상사인 것쯤이야 동궁도 아시지 않소? 생자필멸(生者必滅)—죽으면 이 세상에서 영원게로 가게 마련이오.

햄릿 과연 그렇습니다. 중전마마, 죽음은 인간상사울시다.

왕비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동궁만이 유별나게 보이오?

햄릿 “보이다”뇨? 중전마마, 아니올시다. 사실 그것은 저에게는 유별합니다. 저는 그럴 듯이 “보인다”는 말을 모릅니다. 저의 심정을 여실히 그려 낼 수 있는 것은 중전마마, 시꺼멓게 물들인 이 상복이나, 상제들이 항용(恒用) 몸에 걸치는 검은 옷이나, 일부러 허파에서 쥐어짜서 나오는 한숨이나, 눈에서 개울물 흐르듯 쏟아져 나오는 눈물이나, 실망 낙담한 듯한 얼굴 표정이나, 기타 비애를 표시하는 무슨 모양, 무슨 방식, 무슨 형식 같은 그따위 것들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야 참말 그럴 듯이 보이죠. 그런 것들이야 누구나 꾸며서 보일 수 있는 연극이니가요. 하지만 저는 겉치레를 초월하는 그 무엇이 가슴속에 있어요. 그것은 슬픔의 꾸미개와 복색에 지나지 않는 것들과는 다릅니다.

왕 햄릿아, 이렇듯 애도의 정성을 너의 아버지에게 바친다는 것은 너의

성품이 인자하고 가당한 탓이다. 그렇지만 너의 아버지는 과거에 그 아버지를 잃었고, 그 아버지는 또 그 아버지를 잃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기에 뒤에 남은 자식은 어느 기간 자식 된 도리로서 복상(服喪)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고집스러운 비탄을 계속하는 것은 하느님께 대하여 불경스러운 완명(頑冥)한 행동이 된다. 그것은 사내답지 못한 감정이다. 그것은 그 사람의 뜻이 바르지 못해서 하느님의 교훈을 받기 싫어하며, 신앙이 없어서 심지(心志)가 튼튼치 못하며, 참을성이 없어서 정신이 반항을 하며, 또 교육이 없어서 지력(知力)이 우직(愚直)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 한 번 났다 죽는 것이 필연한 일이라, 우리의 오관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유형한 물건들처럼 뻥한 일이거늘, 어찌 아녀자와 같은 반항심을 일으키어 항상 가슴에다 품고 연연불망(戀戀不忘)하느냐? 아서라, 그것은 하느님에 대하여 죄 된 일이며, 고인에 대하여 죄 된 일이며, 자연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며, 또 이성의 소리에 귀를 막는 일이다. 이성이 항상 말하는 것은 조상의 죽음이라는 것이다. 인류의 조상이 처음으로 죽던 날부터 오늘 죽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생자필멸’이라 일컬어 왔다. 제발 그 무익한 비애를 땅에 던지고, 나를 생각하기를 너의 친아버지처럼 하여라. 네가 내 옥좌에 앉을 가장 밝은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주자꾸나. 내가 너에게 나누는 이 지극한 정을 세상 어느 아비가 그 자식에 대하여 가질꼬냐. 네가 비텐베르크 대학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생각, 그것은 나의 뜻과는 영 어그러지는 일이다. 너에게 신신부탁한다. 네 마음을 돌리어 이곳에 머물러, 나 보는 앞에서 기쁨과 안락을 누리며, 신하의 우두머리, 내 조카, 내 아들이 되어 다오.

- 왕비 동궁, 이 중전의 기도가 헛되지 말게 하여 주오. 제발 부탁이오, 비텐베르크에 가지 말고, 우리와 같이 여기서 지내시오.
- 햄릿 중전마마, 일심전력으로 분부를 복종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 어어, 참 귀엽고도 기특한 대답이로다. 이 덴마크 나라에서 짐처럼 귀

여운 몸이 되어라. 중전, 이리 오시오. 자상하고도 천연스러운 동궁의 언약이 마치 웃음을 띠우는 갓난아이처럼 포근히 내 가슴에 안기는구려. 축하하는 의미로, 오늘 덴마크 왕이 즐거운 축하를 올릴 적마다, 대포를 터뜨리어 천상에 고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지상의 은은한 포성을 메아리하여, 천상의 제신도 제왕의 축연에 호응할 테지.

어서 갑시다. (햄릿만 남고, 모두 다 퇴장)

햄릿

아아, 굳고 질긴 살이 녹고 녹아 이슬이 되어 주려무나! 영원하신 하느님이 왜 자살을 금하는 법칙을 내셨던고? 오오, 하느님! 하느님! 이 세상만사가 저에게는 왜 이리도 지루하고 고리타분하고 김빠지고 부질 없지만 보이는가? 에이 더러운 세상, 초식(草植)은 다 죄 빠드러지고, 씹씹하고 막된 잡풀들이 독차지하는구나! 이 지경이 되고 말다니! 돌아가신 지 겨우 두 달, 아니, 두 달도 못 되지. 참 훌륭한 임금이지였건만, 이번 왕과 비교한다면 히페리온(Hyperion)과 사티로스(satyr)의 차이였지. 어머니를 애지중지하시어 허공의 바람이 와서 어머니 얼굴에 세차게 부딪치는 것만도 못마땅히 생각하시던 분이었던만, 천지신명이여, 잊힐 도리가 없나이까? 애정을 먹으면 먹을수록 애욕은 자꾸만 자라나는 양, 어머니는 줄곧 아버지 무릎에 매달리곤 하지 않았나? 그런데 한 달도 못 돼서—아아, 생각을 말자—약한 자여, 너의 이름은 여자로다!—한 달도 못 돼서, 니오베(Niobe) 여신처럼 눈물을 억수 같이 뿌리며 가여운 아버지 상여를 따라가던 신발이 닳기도 전에, 어인 일이냐, 어머니가, 어머니 같은 분이—아아, 하느님! 이성의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짐승이라도 좀 더 오래 조상(弔喪)을 했겠지.—숙부와 결혼을 하다니? 숙부야 아버지의 동생이지만, 두 분의 차이는 나와 헤라클레스(Hercules)의 차이만이나 하다. 한 달도 못 돼서 거짓 눈물의 소금이 벌겨진 눈구멍에 마르기도 전에 어머니는 결혼을 했다. 아아, 염치도 체면도 없는 조급한 마음, 어쩌면 그렇게도 재빠르게 불의의 자리로 달려간단 말인가! 옳지 않은 일이 옳은 결과를 가져올 수야 없지.

하지만, 가슴이 찢어져도 입을 다물어야 한다.

호레이쇼, 마셀러스, 버나도 등장

호레이쇼 전하, 밤새 문안드립니다.

햄릿 오오, 잘 잤느냐? 어, 호레이쇼 아닌가? 내가 정신이 없어!

호레이쇼 항상 전하께 충성을 바치는 비복(卑僕) 호레이쇼올시다.

햄릿 여보게, 친구라 불러 두세. 그런데 호레이쇼, 무슨 일로 비텐베르크에서 돌아왔는가?

아, 마셀러스도 와 있는가?

마셀러스 전하께—

햄릿 잘 왔네. (버나도에게) 별고 없나? 그런데 호레이쇼, 참말이야. 무슨 일로 비텐베르크에서 돌아왔어?

호레이쇼 원체 놀기를 좋아하는 놈이라요.

햄릿 그런 소리는 자네 적들이 말한대도 곧이듣지 않을 텐데, 황차(況且) 자네가 자기 욕하는 것을 들어 먹을 내 귀인 줄 아나? 자네가 계름뱅이가 아닌 것쯤 내가 잘 알고 있어. 대관절 요새 엘시노어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다른 건 몰라도, 떠나기 전에 주객(酒客)이 되는 법은 착실히 배울 걸.

호레이쇼 아, 왜 저는 선왕폐하의 인산(因山)을 배관하러 오지 않았어요?

햄릿 동창생끼리 그렇게 놀리는 거 아니야. 뭘, 우리 어머니 혼례식을 보러 온 거지 뭐야?

호레이쇼 그야 참 바로 연달아 있었죠만.

햄릿 이 사람, 그게 다 경제란 거야. 제삿밥이 식을 만하면 척 잔칫상이 나 온단 말이지! 호레이쇼, 그날을 볼 바에야 차라리 원수를 천당에서 만나지. 아버님! 아버님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

호레이쇼 어디서요?

햄릿 그저 내 마음속에서.

호레이쇼 저는 한 번 똑똑히 뵈는 일이 있습니다. 훌륭한 폐하였습니다.

햄릿 어느 모로 보나 훌륭한 분이었지! 다시야 그런 분을 뵈올 수 있을라고!

호레이쇼 아니, 동궁전하, 바로 어젯밤에 뵈는 것 같습니다.

햄릿 뵈옵다니, 누구를?

호레이쇼 전하의 부왕 말씀입니다.

햄릿 선왕폐하라!

호레이쇼 놀라운 마음 잠시 억제하시고, 정신 차려 들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증인 삼아 제가 이제부터 그 이적(異跡)적인 일을 전하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햄릿 제발, 그 이야기를 들려주게.

호레이쇼 마셀러스와 버나도 두 사람이 이틀 밤 같이 망을 보다가, 막막한 야밤 중에 그 광경을 당했습니다. 꼭 선왕폐하와 같은 모습을 가진 형체가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무장을 하고 그들 앞에 나타났답니다. 그리고는 엄숙한 걸음걸이로 느릿느릿 당당하게 그들 앞을 걸어가는 데, 이러기를 세 번, 무섭고 놀라워 아물아물하는 그들의 눈앞을 손에 잡은 지팡이가 달까 말까한 거리를 두고 지나갔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은 어떻게도 떨었던지, 아주 녹초가 돼서, 영 병어리처럼 멍하니 서서 한마디도 말을 걸어 보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저에게만 알린다고 수군수군 말하여 줍니다. 그래, 세 번째 되는 날 밤엔 저도 같이 망을 췄죠. 아, 그랬더니 두 사람이 이야기하던 거와 꼭 같은 시간에 꼭 같은 모양으로 그 혼령이 나타나서, 두 사람이 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사실이였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구려. 저야 선왕폐하를 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 두 손이 서로 같다 한들 그렇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햄릿 그게 어디냐?

마셀러스 저희들이 망을 서던 망대입니다.

- 햄릿 그래, 자네는 말을 걸어 보지 않았던가?
- 호레이쇼 왜, 걸어 봤지요. 그러나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은 머리를 쳐들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처럼 입을 쭉긋쭉긋하는 것 같기도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답이 세 회를 요란히 울었죠. 그 소리를 듣고 혼령은 별안간 주춤 물러서더니 그만 허공으로 사라지고 다시는 보이지 않습니다.
- 햄릿 참 이상한 일이구나.
- 호레이쇼 동궁전하, 제가 이렇게 살아 있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 이야기도 완전한 사실입니다. 그래, 이 사실을 전하께 아뢰는 것이 판에 박은 듯 명백한 신들의 직책이라 생각했습니다.
- 햄릿 자네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참으로 마음이 어지럽네. 오늘도 자네들이 망을 서는가?
- 버나도 }
마셀러스 } 네, 저희들이 섭니다.
- 햄릿 갑옷을 입었다고 했잖아?
- 버나도 }
마셀러스 } 과연 그렇습니다.
- 햄릿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 버나도 }
마셀러스 } 네,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 햄릿 그럼, 자네는 그 얼굴을 보았나?
- 호레이쇼 아, 네, 보고말고요. 투구의 턱받침을 올리고 있습니다.
- 햄릿 어때, 찌푸린 낯이던가?
- 호레이쇼 성난 얼굴이라기보다 슬픈 얼굴이었습니다.
- 햄릿 파랑던가 벌겋던가?
- 호레이쇼 아주 파랗습니다.
- 햄릿 그래, 자네를 쏘아보던가?

- 호레이쇼 네, 똑바로 쏘아봅니다.
- 햄릿 나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 호레이쇼 전하께선 질색을 하셨을 겁니다.
- 햄릿 그랬을 테지, 과연 그랬을 테지. 그런데 그 시간은 오래 계속되었던가?
- 호레이쇼 그저 천천히 세어서 백까지 셀 만한 시간이었습니다.
- 마셀러스 }
버나도 } 좀 더 갑니다. 좀 더.
- 호레이쇼 내가 보았을 때엔 그렇게 길진 않았어.
- 햄릿 수염이 희끔희끔하지 않던가?
- 호레이쇼 네, 희끔희끔합니다. 생존 시에 제가 뵈옵던 것처럼 암은색(暗銀色)입니다.
- 햄릿 오늘 밤은 내가 망을 서려다. 필시 또 나올 테지.
- 호레이쇼 장담하건대 나옵니다.
- 햄릿 만일 선친 모습을 갖추고 나온다면, 기어코 말을 걸어 보겠네. 설령 지옥이 아가리를 딱 벌리고 침묵을 지키라고 명령한대도 내 말해 보겠네. 자네들이 지금까지 이 일을 숨겨 두었다면, 아직은 침묵 속에 묻어 두게. 그리고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생겨나든지 간에 그저 알아 둘 뿐이지, 입 밖에 내지는 말게. 자네들 호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답하리. 안녕히들 가시게. 망대 위에서 열한 점과 열두 점 사이에 자네들을 찾겠네.
- 세 사람 전하께 우리들의 충성을—
- 햄릿 우정이라 해 두지. 피차일반일세. 자, 그럼 안녕히들. (햄릿만 남고 모두 다 퇴장)
- 아버지의 혼령이 무장을 하고 나타났다? 심상치 않은데! 무슨 흥계가 있나 보다. 어서 밤이 됐으면! 그때까지만 참아라. 서두르지 말고! 악사천리(惡事千里)라 온 세상이 덮어 누른대도 나쁜 일이야 머리를 쳐들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나고야 만다. (퇴장)

제3장 폴로니어스 집의 한 방

레이티즈와 오피리아 등장

레이티즈 이제서 집도 다 배에 실어 났고—너도 잘 있거라. 그런데, 너 잠만 자지 말고, 풍세(風勢)가 좋아 선편(船便)이 있을 적마다 소식을 전해 달란 말이다.

오피리아 오빠, 그런 걸 걱정하세요?

레이티즈 햄릿공이 걱정이란 말이다. 너에게 연신 호의를 표시하는 모양인데, 그런 건 다 한때의 기분, 청년의 껍기라고만 생각해 두어라. 방춘가절(芳春佳節)에 한 떨기 꽃이라, 철기에 앞섰으니 오래 가지 못하며, 향기가 달콤하나 계속하지 못한단 말이다. 잠시 마음을 현혹케 하는 향기, 그 밖에는 안 된다.

오피리아 그 밖에는 안 될까요?

레이티즈 그 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해라. 대저 인간의 천성이란 자랄 때에는 근력과 몸 부피만 커지는 것이 아니다. 몸집이 커지면 따라서 그 안에서 활동하는 마음과 정신도 커진단 말이다. 아마도 현재는 햄릿공이 너를 사랑하고 있겠지. 지금 무슨 악의나 흉계가 그의 진심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그 사람의 지위가 지위니만큼, 그 사람의 뜻은 그 사람 자신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너는 항상 생각해야 한다. 전하 자신이 그가 왕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비천한 서민들처럼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 나아갈 수는 없다. 그가 누구를 배필로 정하느냐 하는 데 따라 전 국가의 안녕과 행복이 결정되지 않나? 그러기 때문에 그의 결혼 간택은 그를 우두머리로 떠받드는 국민 전체의 의견과 동의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이 된다. 그래서 만약 그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거든, 그가 남다른 지위와 조건 밑에서 능히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만 그 사람의 말을 믿어 두는 것

이 너로서는 현명한 방책이란 말이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덴마크 전 국민이 동의하는 이상으로 더 나가지는 못한단 말이다. 그러니만큼 그가 부르는 상사곡(相思曲)을 너무도 솔깃하게 귀담아들어 정신을 잃든가, 또는 전후 불구하고 그가 줄라 대는 바람에 그만 정숙한 보물 궤의 문을 열어 준 뒤에, 명문귀수(名門閨秀)의 몸으로 얼마만한 손해를 받아야 할까 하는 것을 미리 잘 생각해 두란 말이다. 오페리아야, 그 점을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내 동생아, 그것을 두려워하라. 항상 애정의 후진에 머물러서 욕망의 화살의 화를 받지 않도록 하여라. 달 앞에 아름다운 자태를 내놓는 것만도 정숙한 여자로서는 음탕한 행동이 된다. 숙덕(淑德)의 화신일지라도 중상의 때는 면치 못한다. 봄철 어린 꽃들 봉오리가 트기도 전에 좀벌레는 쏘시고 들어간다. 청춘의 이슬이 돋는 인생의 아침이야말로 노랑 병의 독기가 가장 박두(迫頭)한 때다. 조심해라. 최선의 안정책은 두려움 속에 있는 거다. 청춘의 반란심은 혼자 내버려 두어도 저절로 일어나는 법이다.

오페리아 제 마음을 지키는 망군(望軍) 삼아 오빠의 좋은 교훈 말씀을 꼭 지키오리다. 그렇지만 착하신 오빠, 간혹 박덕(薄德)한 목사님들처럼 천당으로 가는 험한 가시밭길로 저를 인도하시지는 마세요. 그분들은 술살이 찌서 외면불고(外面不顧)하는 오입쟁이처럼, 자기는 음탄의 꽃밭 길을 걸으면서도 제 입이 지껄이는 교훈은 거들떠보려 하지도 않던데요.

레어티즈 내 걱정은 말라. 너무 지체한 것 같다. 마침 아버지가 오신다.

폴로니어스 등장

두 번 축사를 받으면 복이 갑절로 는다나. 두 번씩이나 작별 축사를 받게 되니 재수가 좋다.

폴로니어스 너 아직도 여기 있느냐? 빨리 빨리 배를 타라.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뚝에는 바람이 어깨까지 차고, 부하들은 너를 기다리고 있는

네, 이게 뭐란 말이나? 자, 또 한 번 축사를 말해 주마. 그리고 이제 몇 마디 교훈을 줄 터이니 단단히 명심하여 두어라. 속에 맘먹은 것은 푹 푹히 입 밖에 내서 말하지 말고, 덜된 사상을 함부로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 벳과 친근한 것은 좋지만, 부잡스러워서는 못쓴다. 일단 벳을 얻어 좋은 벳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 네 가슴 앞으로 바싹 잡아당겨서 무쇠 테로 졸라매어라. 그러나 털도 안 난 꽃병아리 같은 동무들을 만나는 대로 다 반겨 악수하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단 필경에 네 손은 껌질이 두꺼워져서 사람을 분간하지 못하리라. 남과 싸움을 일으킬 게 아니다. 그렇지만 일단 싸우는 이상은, 그놈이 앞으로 너를 조심할 만큼 단단히 해 대어라. 누구의 말에나 귀를 주어 듣되, 소리를 주어 동의하지는 말라. 누구의 의견이나 들어 주되, 시비 판단을 삼가라. 네 전대가 허락하는 정도로 옷은 비싼 것을 선택하되, 그 값을 허식으로 나타내지는 말라. 값지되 화려해서는 못쓴다. 대저 의관은 인품을 말하게 되느니라. 그러기에 문벌과 지체를 자랑하는 프랑스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의복에서 아담하고 고상한 취미를 나타낸다. 남한테서 돈을 빌리지도 말고 남에게 빌려 주지도 말라. 빚을 주면 돈과 사람을 둘 다 잃게 된다. 그뿐이라, 남한테 돈을 빌리면 경제심의 칼날이 무디어진다. 특히 이 말을—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말을 명심하라. 그러면 밤 뒤에 의례히 낮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남에게 대해서도 진실한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럼 잘 가거라. 이제 너에게 한 몇 마디 교훈이 너의 가슴속에서 무르익도록 내 축사를 양념 삼아 받아 두어라.

레이티즈 이 자식은 삼가 하직하겠습니다.

폴로니어스 시간이 바쁘다. 어서 가 봐라. 하인들도 기다리고 있다.

레이티즈 오펔리아야, 너도 잘 있거라. 그리고 내가 한 말, 잘 외어 두어!

오펔리아 오빠 말씀은 제 가슴속에 간직하고 쇠를 잠갔으니, 열쇠는 오빠가 맡으세요.

레이티즈 안녕히들 계십시오. (퇴장)

폴로니어스 오필리아야, 오빠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던?

오필리아 예, 햄릿공에 관한 이야기예요.

폴로니어스 거 참, 좋은 말이 나왔다. 들으매 동궁이 근자에 와서 자주 틈 있을 적마다 너를 찾았고, 너도 서슴지 않고 너무도 푸수수하게 만나 준다 하더라. 그렇다고 나는 들었다만,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훈계 삼아 한마디 일러 둘 수밖에 없다. 너는 내 딸로서 응당 가문의 명예를 존중해야 할 것인데, 아직도 네 처지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너희 둘의 사이에 무슨 약속이라도 있느냐? 이실직고(以實直告)하여라.

오필리아 요사이 동궁전하께서 저에게 여러 차례 진정(眞情)을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폴로니어스 진정이라? 푸우! 이런 험난한 등사엔 쌀알이 뭇지 뉘가 뭇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아주 철부지 어린애 같은 수작이로구나. 너는 그걸 진정이라 하지만 사실 그걸 믿느냐?

오필리아 아버님, 저는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해야 옳을는지 모르겠어요.

폴로니어스 답답도 하다. 내 가르쳐 주마. 너는 자기가 갓난아이라고만 생각해. 너는 소위 그 진정이라는 것을 진짜 돈으로 알고 있는 모양이나, 그것은 진짜 돈이 아니라, 가짜 돈이란 말이다. 값을 좀 비싸게 불러야지. 말(馬)도 너무 부려 먹으면 숨이 끊어지듯, 이 말(語)도 너무 써먹으면 값이 없어지니까 이만해 둔다만, 그러다간 네 애비 얼굴에 진흙칠을 할 거라.

오필리아 아버님, 동궁전하께서는 진실한 모양으로 저에게 구혼하고 있어요.

폴로니어스 압, 진실은 빼고, 모양이라고만 하는 것이 좋을 거다. 그런 소리 다 집어치워라.

오필리아 그리고 또 하느님 앞에 갇은 맹세를 다 해서 그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증했어요.

폴로니어스 허 참, 그게 다 너 같은 바보 새를 잡는 짓이란다. 아가야, 피가 끓을 때엔 사람의 마음이 방자해서 혀끝 돌아가는 대로 맹세를 지껄인다는

것을 나는 사실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사랑의 봄꽃이라 하는데, 열보다도 광선을 더 많이 낸다. 굉장히 환해서 참말 열이 있는가 하면 그만 꺼지어, 열도 광선도 없어지고 만다. 그런 것을 진짜 불로 잘못 보아서 는 아니 된다. 앞으로는 처녀의 신분으로 남자와 만나 주는 기회를 좀 더 아껴라. 햄릿공이 와서 애걸복걸한대도, 너는 그것을 전승 장군의 답판 명령으로만 듣지 말고 좀 비싸게 굴란 말이다. 햄릿공으로 말하면 아직도 젊으니까 앞으로 마음이 변할지도 모를 일이지, 또 남자인 만큼 너보다는 훨씬 자유롭게 이 세상을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믿어 두어라. 일언이폐지(一言以蔽之)하면 그의 맹세를 끝이든지 말란 말이다. 그런 말들은 자기의 본색을 외부에 나타내지 않는 투쟁이와 같아서, 수치스러운 욕망을 이루려고 애원하는 거지만, 겉으로는 신성한 척, 점잖은 척한 수작을 늘어놓기 때문에, 더 잘 속는 단 말이다. 마지막으로 일러둔다. 솔직히 결론을 말하면 앞으로 다만 반시(半時)라도 햄릿공에 무슨 약속을 하거나 수작을 부리거나 하는데 헛되이 시간을 쓰지 말기를 바란다. 이건 내 명령이니까, 명심하라. 자, 네 방으로 가자.

오페리아 아버님 분부대로 복종하겠습니다. (퇴장)

제4장 망대

햄릿, 호레이쇼, 마셀러스 등장

- 햄릿 찬 바람이 뼈를 깨무는 것 같구나. 참 춥기도 하다.
- 호레이쇼 살을 꼬집고 찌릅니다.
- 햄릿 지금 몇 점이나 됐을까?
- 호레이쇼 열두 점 못 됐을 걸요.
- 마셀러스 아닙니다. 지금 열두 점을 쳤습니다.
- 호레이쇼 그래? 난 못 들었어. 그러면 그 혼령이 의례히 나와 걸어 다닐 시각이 가까웠구나. (안에서 의기양양한 나팔 소리, 대포 놓는 소리)
- 동궁전하, 저건 무슨 소리입니까?
- 햄릿 왕이 오늘 밤 야연(夜宴)을 베풀어, 술을 마시고 축배를 올리고 떠들고 춤을 추고 지랄을 하고 있다네. 왕이 라인산 포도주의 큰 술잔을 들이킬 적마다 가마 북을 치고 나팔을 불어서 폐하의 장쾌한 건배를 알린다나.
- 호레이쇼 그건 관례입니까?
- 햄릿 그게 관례라네. 나는 이곳 태생이어서 날 적부터 그런 관습에는 젖어 있는 터이지만, 내 생각 같아서는, 그런 건 지키는 것보다는 깨치는 것이 도리어 명예가 될 만한 관습일세. 이 골치 아픈 술타령은 어디를 가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에게서 욕을 얻어먹고 편잔을 받는 장본이거든. 그들은 우리를 주정뱅이라 부르고, 또 돼지 같은 놈들이란 누명을 씌우거든. 사실 우리가 아무리 용맹심을 가지고 이루어 놓은 일이라도 그것이 모두 다 술기운이라 하여 우리나라 무용심의 골수를 빼놓고 마는 형편일세. 그런 일은 한 개인들에게도 자주 나타나지. 그들이 타고난 천성 속에 무슨 좋지 못한 결점이 있어서, 이를테면 출생이 나쁘다든가—그렇지만 인간이 이 세상에 나올 제 그 조상을 가릴

수는 없으니까 인간에게 죄는 없지만, —또는 어떤 성벽(性癖)이 좀 도가 지나쳐서 이성력의 울타리를 허물고 뺏어져 나온다는가, 또는 어떤 습성이 과도한 발효(醱酵) 작용을 일으켜서 온전한 인품을 망쳐 놓는다는가 하면, 그 사람은 그 한 가지 오점을 무슨 자연이 입혀 준 옷이나, 하늘에서 마련해 준 팔자처럼 지니고 다니기 때문에, 다른 장점들이 아무리 순결하고 무궁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한 가지 결점에서 물이 들어서 부패했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티끌만한 결점이 있어도 그 사람의 고상한 성품이 모두 다 무효가 되고, 따라서 나쁜 사람이라는 소문을 듣게 된단 말이야.

호레이쇼 저것 좀 보십시오. 나옵니다.

혼령 등장

햄릿 천군 천사여, 불쌍한 인생을 두둔하소서.
그대가 천당에서 내려온 신령이든 지옥에서 올라온 마귀이든, 그대가 천국에서 영기를 가져오든 지옥에서 화기를 몰아오든, 그대의 심지가 흉악하든 자비하든 그대가 말을 좀 걸어 주었으면 하는 모양으로 나타났으니, 내 그대에게 말하려 한다. 그대를 햄릿이라, 왕이라, 아버지라 불러 주마. 덴마크 왕이여, 제발 말하여 주시오. 갑갑해서 애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법식대로 예를 갖추어 관에 모셨던 당신의 해골이 무엇 때문에 수의를 찢고 나타났나요? 당신을 곱게 땅속에 묻은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았건만, 무엇 때문에 그 무덤은 육중한 대리석 턱을 열고 당신을 도로 뺏어 놓았느냐? 말하여 주시오. 죽어 시체가 된 당신이 또다시 전신에 무장을 하고 그믐달이 어스름한 야경에 지상을 다시 찾아 이 밤을 처참케 함은 무슨 연유이뇨? 자연 현상에 속아 사는 우리 인간들에게 영혼의 힘을 가지고는 풀 수 없는 가지가지 의문을 일으키어 무서움에 전신을 떨게 함은 무슨 곡절이뇨? 말하십시오! 왜 이 괴변

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인간은 무슨 일을 하란 말입니까?

(혼령이 햄릿에게 손짓한다)

호레이쇼 따라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전하에게만 따로 무슨 비밀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은 눈치입니다.

마셀러스 저것 좀 봐요. 아주 융숭(隆崇)한 태도로 만 데로 가자고 손짓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따라가지 마십시오.

호레이쇼 가지 마십시오. 결코 가지 마십시오.

햄릿 도무지 말을 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따라가지.

호레이쇼 전하, 가지 마세요.

햄릿 어때, 무서울 것이 뭐냐? 나는 내 생명을 바늘 끝만큼도 여기지 않는다. 내 영혼이야 저 혼령처럼 영원한 물건이니 무슨 일이 있겠느냐? 또다시 부른다. 따라가 보겠다.

호레이쇼 만일 저것이 전하를 바닷가로 끌어내든가, 또는 바다 위에 꾸부정히 솟아서 이마가 물에 달까 말까한 무서운 절벽 꼭대기로 올라가서, 다른 무서운 형체로 변하면서, 전하의 이성력을 빼앗아 전하를 미치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벽 위에서 아래로 천길 만길 되는 바다를 내려다보며 밑에서 물결이 우짖는 소리를 듣고 싶으면, 다른 아무런 동기가 없어도 떨어져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는데, 그 점을 잘 생각하십시오.

햄릿 아직도 나를 부른다. 어서 가십시오. 내 따라가리다.

마셀러스 전하, 못 가십니다.

햄릿 손을 놔라.

호레이쇼 진정하십시오. 못 가십니다.

햄릿 내 운명이 고향을 친다. 그 소리를 들으니 전신의 힘줄에 저 네메아의 사자(the Nemean lion) 힘줄처럼 기운이 솟는구나. 아직도 나를 부르고 있다. 다들 손을 놓아라. 안 놓을 테냐? 나를 붙잡는 놈들은 당장에 목을 베어 혼귀를 만들겠다. 썩 물러가라니까—어서 가십시오. 내 따

라가리다. (혼령과 햄릿 퇴장)

호레이쇼 전하는 환상에 홀려서 물불을 가리지 않느냐.

마셀러스 우리들도 뒤를 따라잡시다. 이렇게 명령대로 복종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일입니다.

호레이쇼 뒤를 따르자. 이 일이 결국 어떻게 되려는가?

마셀러스 덴마크 나라에 무슨 병집이 들었다.

호레이쇼 하느님이 잘 인도하시겠지.

마셀러스 아닙니다. 우리들이 뒤를 따라가 봅시다. (퇴장)

제5장 망대의 다른 부분

혼령과 햄릿 등장

- 햄릿 어디로 저를 끌고 가는 겁니까? 말하여 주십시오. 나는 더는 안 가겠습니다.
- 혼령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 햄릿 네, 듣겠습니다.
- 혼령 이제는 내 시간이 거의 다 됐다—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서, 유황고열(硫黃苦熱)의 업화(業火)에 몸을 맡길 때가 가까웠다.
- 햄릿 아아, 가엾은 혼령님!
- 혼령 나를 불쌍히 여기는 생각을 말고, 내가 지금부터 말하려는 이야기를 정신 차려 들어라.
- 햄릿 어서 말씀하십시오. 잘 듣겠습니다.
- 혼령 내가 내 이야기를 들으면 반드시 내 원수를 갚아야만 할 의무를 지리라.
- 햄릿 무엇이라고요?
- 혼령 나는 네 애비의 혼귀다. 한동안은 이렇게 밤마다 지상에 나타나서 돌아다니다가 낮이 되면 또다시 지옥 불속에 갇혀서 아귀의 고육을 보는 것이 나의 운명이다. 내가 인간계에 살아 있을 때에 내 몸에 받은 비열한 범행이 불에 타서 깨끗이 씻길 때까지는 참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옥의 비밀들은 말 못 하도록 금지되어 있으니 말할 수 없다만, 그렇지만 았다면 너에게 그 내용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데, 그중 가벼운 한 가지만으로도 너의 정신을 완전히 혼란시키고, 너의 피를 얼어붙게 하고, 유성이 천공에서 튀어나오듯이 네 눈방울이 눈구멍에서 튀어나오게 하고, 구실구실 엉클린 네 머리가 갈갈이 풀어

저서, 마치 성난 고슴도치의 침처럼 곤두서게 하리라. 하지만 영혼계의 비밀을 혈육을 가지는 인간의 귀에 전하는 것은 못 하기로 되어 있다. 선불리 듣지 말고, 단단히 정신 차려 들어라. 네가 일찍이 네 애비를 자랑한 일이 있었거든—

햄릿 아이고 하느님!

혼령 그 애비가 받은 비열하고도 천륜에 벗어나는 암살의 원수를 갚아다오.

햄릿 암살이라고?

혼령 암살이란 동기가 충분한 때에도 가장 비열한 짓이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도 비열하고 기괴하고 비도(非道)한 암살이다.

햄릿 빨리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일순에 십만억토(十萬億土)를 가는 상념처럼 빠른 날개를 타고 원수를 갚으러 가겠습니다.

혼령 너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해 낼 줄 믿는다. 이 판에 네가 거동을 아니한다면 너는 망세천(忘世川) 개울둑에 늘어붙은 게으른 잡초보다도 더 둔한 인간이 되리라. 자, 햄릿아, 이야기할 테니 들어 보아라. 금원(禁苑)에서 내가 잠들었을 때에 독사가 와서 나를 물었다고 세상에는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덴마크의 전 국민이 나의 죽음에 대하여 조작된 말로써 터무니없이 속고들 있다. 너를 귀동자(貴童子)로 알고 토설(吐說)하니 잘 알아 두어라.

너의 애비를 독살한 뱀은 지금 너의 애비의 왕관을 머리에 쓰고 있다.

햄릿 내 어쩐지 무슨 예감이 들더라니! 숙부라!

혼령 그렇다! 저 상피를 붙어먹고 유부녀를 강간하는 짐승 같은 놈이 요술 같은 지례와 음험한 재주로써—그렇게까지 유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니 참으로 놀랄 만큼 간악하고도 음험한 지혜와 재주다. 이 세상의 숙녀처럼 보이던 왕비의 지조를 그 수치스러운 욕망 앞에 굴복시켰다. 아아, 햄릿아, 이런 변절 배반도 있을 수 있느냐? 내 사랑은 혼례식 날 내가 부른 엄숙한 맹세를 꼭 그대로 지켜 나아갔건만, 그러한 나를 버리고 그 위인을 나의 천품(天稟)과 비교한다면 하늘과 땅과 같은

그러한 못된 놈하고 배가 맞다니! 그러나 정절이 있는 여자는 비록 천사와 같은 모양을 차린 음란의 화신이 와서 정을 구한대도 동하지 않으련만, 호색한 여자는 비록 천사처럼 순결한 남자와 배필이 되어도, 그 정결한 자리에 포식을 하고 나서 또다시 욕심 사납게 쓰고 남은 고기를 치먹는 법이다. 가만 있거라. 어찌 아침 공기 냄새가 나는 것 같다. 간단히 이야기하마. 오후가 되면 의례히 하는 버릇대로 그날도 금원에서 낮잠을 잤는데, 마음 놓고 자는 그 틈을 타서 너의 숙부가 저 극독한 오목수(烏木水)가 들어 있는 약병을 들고 도둑놈처럼 내 곁으로 숨어들어와, 약물을 내 귀에다 부었다. 이 독약은 살을 몽그러뜨리는 액체인데, 사람의 피와는 수화상극(水火相剋)이라 몸 안에 들어만 가는 날이면 수은처럼 삼시간에 전신의 혈관을 순회하다가, 별안간 기운이 솟으면서, 마치 우유 속에 한 방울 떨어뜨린 서슬 모양으로, 맑고 정한 피를 두부처럼 응결시키고 만다. 내 피도 그렇게 됐다. 당장에 문둥이 같은 종기가 고운 전신에 솟아나더니, 이내 보기에도 끔찍끔찍한 현대딱지가 마치 나무껍질처럼 전신에 덮이고 말더라. 이래서 나는 잠을 자다가 내 아우의 손에 생명과 왕관과 왕비를 모조리 빼앗기고 말았다. 내 죄가 만발하는 한창 시절에 나는 성찬식을 하지도 못하고, 신부님의 위안을 받지도 못하고, 임종도유식(臨終塗油式)을 치르지도 못하고, 또 참회(懺悔)를 하지도 못하고, 가지가지의 죄상을 머리에 떠시고 하느님 심판석 앞으로 호송되고 말았다. 진정으로 진정으로 원통한 일이다. 너에게 천륜의 정이 있거든 그대로 두고 보지는 말라. 덴마크 왕의 침석을 정육과 간음의 자리로 만들지는 말라. 그렇지만 네가 어떤 수단으로 이 죄상을 추궁할지라도, 너의 어머니에게 대해서 원한을 갖거나, 또는 어머니를 해치려는 마음을 가슴에 품지 말라. 너의 어머니는 다만 하느님의 심판에 맡기고, 가슴속에 박혀 있는 가시바늘이 그 양심을 찌르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나는 곧 떠나려다. 반딧벌레같이 희미해져서 힘이 없어지는 것을 보니, 새벽이 가까워진 모양이다.

잘 있거라! 잘 있거라! 나를 잊지 말아 다오. (퇴장)

햄릿

아아, 일월성신이여! 산천초목이여! 또 무엇이 있나? 지옥의 귀신들도 함께 불러낼까? 아서라!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 내 님이여! 내 근력아, 너도 그렇게 별안간 까부라지지 말고, 버쩍 나를 버티어 다오! 당신을 잊지 말라고요? 아무렴요! 가엾은 혼령이여! 광란한 내 머리 속에 기억력이 자리 잡고 있는 동안이야! 당신을 잊지 말라고요? 아무렴요. 내 필기 책에서 쓸데없는 모든 자질구레한 기록들을—책에서 베껴 온 격언들이나, 어린 눈으로 관찰해서 얻어 온 물건 형상들이나, 지나간 날의 인상들을 죄다 지워 버리고, 그 대신 당신의 명령만을 비열한 내용들과 섞이지 않게 홀로 보존해 두리다. 하느님 앞에 맹세코 그리 하오리다! 아아 세상에도 고약한 여자! 아아 악한! 악한! 얼굴에 웃음을 띠우는 악한이다! 내 필기 책이 있지. 여기다 적어 두어야지!

아무리 얼굴에 웃음을 띠워도 악한은 악한이다.

적어도 덴마크 나라에서는 확실히 그럴 수 있다. (글을 쓴다) 숙부야, 이렇게 딱 써 둔다. 이번엔 내 좌우명을 써 두어야지. “잘 있거라, 잘 있거라! 나를 잊지 말아 다오.”

(무릎을 꿇고, 칼자루에 손을 걸고 기도한다) 이제는 맹세했다.

호레이쇼

마셀러스

} (안에서) 동궁전하, 동궁전하—

마셀러스

(안에서) 동궁전하—

호레이쇼

(안에서) 하느님, 전하를 두둔하시옵기를.

마셀러스

아멘!

호레이쇼

(안에서) 휘이, 휘이, 휘이, 전하!

햄릿

휘이, 휘이, 휘이. 매야 오너라.

호레이쇼와 마셀러스 등장

마셀러스 아이고, 전하, 어떠십니까?

호레이쇼 어떻게 됐습니까?

햄릿 참 굉장하이.

호레이쇼 전하, 말씀해 주십시오.

햄릿 안 돼! 누설할 테니까.

호레이쇼 제가요? 천만예요. 저는 절대로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마셀러스 전하, 저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햄릿 그럼 자네들, 무슨 일이 있었을 성싶은가? 사람의 마음으로 그런 일을 생각해 낼 수 있을까? 그럼 자네들은 비밀을 지킨단 말이지?

호레이쇼 }
마셀러스 } 하느님 앞에 맹세코 지키겠습니다.

햄릿 덴마크 나라의 악한치고 극악무도하지 않은 놈이 없단 말이야.

호레이쇼 그런 말이야 무덤에서 나온 혼령이 아니기로니 모르겠습니까?

햄릿 옳다. 그 말이 옳다. 그러니까, 더 길게 인사말 할 것 없이, 우리는 악수하고 헤지는 것이 좋을 줄 안다. 누구나 다 무엇이든 불일과 욕심이 있는 것이니까. 자네들은 자네들 불일과 욕심 내키는 대로 갈 일ियो, 또 변변찮은 나로 말할라치면, 앉아서 기도나 드리려나.

호레이쇼 전하, 모두 다 허황한 말씀들뿐입니다.

햄릿 자네 감정을 상해서 미안하이. 참 충심으로 미안하이.

호레이쇼 감정이 상하기는 뭐이 상해요.

햄릿 아니, 상한 일이 있어. 확실히 그것도 이만저만이 아니라, 굉장히 상한 일이 있어. 아까 나온 혼령으로 말하면 뭐 그저 해롭지 않은 혼백님이 시데. 그렇게만 알아 두게. 혼령과 나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모양인데, 그런 욕심은 적당히 억제해 두게. 그런데 자네는 친구도 되고 학자도 되고 군인도 되고 하니까, 대단치 않은 내 청 한마디만 들어 주게.

호레이쇼 전하, 무슨 말씀이십니까? 듣죠.

- 햄릿 오늘 밤 우리가 본 일을 다른 데 가서 말하지 말란 말이야.
- 호레이쇼 } 전하, 말하지 않겠습니다.
마셀러스 }
- 햄릿 아니, 맹세해.
- 호레이쇼 맹세코 아니하겠습니다.
- 마셀러스 저도 맹세코 말 아니하겠습니다.
- 햄릿 내 칼에 걸어서.
- 마셀러스 이미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 햄릿 실행을 해야지. 내 칼에 걸어서, 실행을 해야지.
- 훈령 (땅속에서) 맹세하라.
- 햄릿 하, 이놈 봐라. 수작이 그럴듯하구나! 너 거기 있었니? 자, 땅속에 있는 저 친구 말 들었지? “웁소” 하고 맹세를 하라.
- 호레이쇼 맹세 문구를 전하께서 부르십시오.
- 햄릿 자네들이 본 일을 결코 다른 데 가서 말하지 않는다고 내 칼에 걸어서 맹세하게.
- 훈령 (땅속에서) 맹세하라.
- 햄릿 야 이놈, 안 가는 데가 없구나! 자 그럼 우리 자리를 옮겨 볼까? 이리로들 오게. 내 칼에다 손을 걸고 자네들이 본 일을 다른 데 가서 말하지 않는다고 맹세하세.
- 훈령 (땅속에서) 맹세하라.
- 햄릿 잘한다! 땅 두더지رو구나. 어떻게 그렇게 빨리 땅을 뚫고 다닐 수 있는냐? 땅 파는 텐 아주 일등공병이로구나! 자 또 한 번 이사 가세.
- 호레이쇼 이런 변은 내 난생 처음이다.
- 햄릿 그러기에 난생 처음 보는 손님이니까, 환영해서 그 양반 말씀을 잘 들으란 말이야. 이 사람아, 소위 그 철학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별별 일이 천상과 지하에는 다 많단 말이거든. 그건 그만해 두고, 이리로 오게. 자네들이 앞으로 무슨 급한 경우에 하느님의 은혜와 보호를 원하

는 그대로 아까처럼 여기서 다시 한 번 맹세를 하란 말이야. 내가 앞으로 어떤 기괴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내 행동이 아무리 이상하고 괴이하다 할지라도, 이런 때에 나를 보고 자네들이 이렇게 팔짱을 찌르고, 혹은 또 이렇게 머리를 흔들며, 또는 까닭수가 있는 것 같은 문구를 입 밖에 내어, 이를테면 “뭘, 우리는 다 알고 있어”라든가, “하려고만 한다면 설명할 수 있지”라든가, “입 밖에 내서 말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지만”이라든가, “말해도 좋다면 말할 사람은 또 있지”라든가 하는 어리뻑뻑한 수작을 해서 자네들이 내 신상에 관해서 뭘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일—그런 일일랑 자네들이 가장 간구할 때에 하느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고자 원하는 그대로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맹세해.

훈령 (땅속에서) 맹세하라.

햄릿 이놈의 훈령아, 마음을 진정하라. 진정해! 너무 서두르지 말고.

(모두들 맹세한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모든 일을 간절히 부탁하네. 햄릿같이 못생긴 인간이지만, 여러분에 대한 애정과 우의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무슨 일이나 빼놓지 않고 하려 하네. 자, 들어들가세. 항상 함구불언하기를 신신부탁하네. 지금 세상은 사개가 물러나서 난장판이다. 무슨 악인연으로 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물러난 사개를 모두 맞추게 되나! 하지만 그런 소리는 그만 두고 다들 오시게. 같이 들어가세. (퇴장)

제 2 막

제1장 폴로니어스 집의 한 방

폴로니어스와 레이날도 등장

폴로니어스 너, 이 돈과 훈계록을 내 아들에게 전하여 다오.

레이날도 예, 그리하겠습니다.

폴로니어스 너, 거기 가서는 착실히 똑똑히 굴어야 한다. 그래서 그 애를 만나 보기 전에 그 행적을 조사해 보란 말이다.

레이날도 저도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폴로니어스 어어, 참 잘했다. 그러면 말이야, 우선 파리에에는 어떤 덴마크 사람들이 와 있는가를 조사해 보고, 그다음에는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름이 무엇이며, 수입이 어디서 들어오며, 현재 어디서 살고 있으며, 또 그들이 어떤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데 얼마만한 비용을 쓰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죄다 알아보라. 그리고 이렇게 간접으로 질문을 해서 그들이 내 아들놈과 친히 지낸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 그때는 이런 세세한 간접적 질문보다는 좀 더 요긴한 문제로 들어가란 말이다. 그래서 슬쩍 네가 집애와 멀리 알고 있는 것 같은 눈치를 보이란 말이다. 이를테면 “나도 그 사람의 아버지와 친구들을 압니다. 그 사람도 약간 알고 있죠” 식으로, 알아듣겠니? 이놈아.

레이날도 아, 알고말고요.

폴로니어스 또 이렇게 말해도 좋지. “그 사람을 약간 압니다만” 해 놓고, 이렇게 계속하란 말이야.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제 바로 내가 말하는 본인이라면, 굉장한 난봉꾼입니다. 여사여사(如斯如斯)한 버릇이 있습죠.” 버릇 일체에 대해서는 네 마음대로 꾸며 대려무나. 그렇지만 애놈 체면을 상할 만한 지독한 욕은 안 돼. 그 점은 극히 주의하라. 아, 그야, 객지에서 흠아비살림을 하는 젊은이에겐 의례히 붙어 다니는 방탕, 난잡, 과실쯤이야 상관없지.

레이날도 이를테면 투전 같은 것 말씀이죠? 대감.

폴로니어스 안, 또 술, 칼부림, 욕설, 싸움, 계집질—이런 것쯤은 말해도 좋지.

레이날도 그렇지만, 대감, 계집질이야 어디 체면이 됐습니까?

폴로니어스 상관없다. 말할 때 적당히 양념을 치면 되지 않니? 그렇지만 게다가 한마디 덧붙여서 유명한 색쟁이입니다, 해서는 안 돼. 그건 내가 말하는 의미와는 다르다. 하여튼 험담을 하되, 묘하게 하란 말이다. 그러면 그것이 다 제멋대로 지내는 사람의 한때 과실이며, 왕성한 원기의 폭발이며, 구속을 받지 않는 혈기의 장난이라, 누구나 다 한때는 화를 입는 걸점처럼 보이지 않니?

레이날도 그렇지만, 대감—

폴로니어스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느냐고?

레이날도 과연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폴로니어스 음, 그 요지는 이렇다. 내 판엔 능숙한 계교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이를 테면 그릇을 쓰는 도중에 빛이 좀 더러워졌다는 격으로, 내 아들 얼굴에다 약간 흙질을 해 놓으면 말이야, 알겠지? 네가 그 뱃속을 알아보고 하는 상대방이 만약 내 아들의 그런 나쁜 짓을 과거에 보았다고 하면, 필시 네 험담에 맞장구를 치리라는 말이다. 이를테면 이렇게 말을 할 테지. “노형”이라고 하든가, “뉘”라고 하든가, 혹은 “여보게” 하든가, 또는 “선생” 하든가, 하여튼 그 지방 말투와 그 사람의 신분을 따라서 적당히 부를 테지.

레이날도 과연 옳습니다.

폴로니어스 그러고 나서는 그 남자는 말이야, 예에, 그 남자가 말이야. 어, 내가 무슨 말을 하려 했나? 이런 쟁쟁할 것, 내 분명히 무슨 말을 하려 했는데, 어디서 내 말이 끊어졌지?

레이날도 제 험담에 맞장구를 치면서 “노형” 하든가, “여보게” 하든가 한다는 데서, 끊어졌습죠.

폴로니어스 그렇지, 참 그래. 그 남자가 맞장구를 치면서, “나도 그 양반을 압니다.

어제도 만났습니다” 혹은 “전일에도 만났습니다” 혹은 또 “여사여사한 때에 여사여사한 사람과 같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엔 네가 아까 말한 것처럼 “놀음을 했습죠” 하든지 “술에 푹아져서 아주 녹초가 됐답니다” 하든가, “정구를 하다가 말다툼이 됐답니다” 하든가, 또는 심중팔구 “영업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죠” 하든가, 영업집이란 즉 갈보 집을 의미하는 거야. 하여튼 그 따위 소리를 할 테지. 잘 알았지? 이렇게 거짓말 미끼를 던지면 진짜 잉어가 물린단 말이다. 이렇게 지혜가 많고 견문이 넓은 사람들은 의례히 옆길로 에둘러서 간접적 방법을 가지고 무슨 직접적인 사실을 알아내는 거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일러준 대로 하면, 너는 틀림없이 내 아들의 행적을 알아낼 수 있다. 어때, 내가 이른 말 의미를 해독하겠니?

레이날도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폴로니어스 그럼, 잘 다녀오너라.

레이날도 대감, 안녕히 계십시오.

폴로니어스 너도 그 애 비위를 맞추어서 속을 떠보아라.

레이날도 예, 해 보겠습니다.

폴로니어스 그래서 그 애 노는 대로, 한번 시켜 보아라.

레이날도 좋습니다.

폴로니어스 잘 가라! (레이날도 퇴장)

오페리아 등장

이거 웬일이냐? 오페리아야, 무슨 일이 났느냐.

오페리아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참 놀랐어요.

폴로니어스 무슨 일로? 얼른 말해라.

오페리아 아버지, 제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노라니까, 햄릿공이 속옷 앞가슴을 풀어 헤치고, 모자도 아니 쓰고, 양말은 흠에 젖어 발목까지 흘러져

내리고, 얼굴빛은 내복처럼 새파랗고, 두 무릎을 와들와들 떨면서 달려드는데, 그 얼굴 모양은 차마 눈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마치 염라대왕이, 너 가서 인간들에게 지옥세계의 무서운 이야기를 전하라 하면서 나와 주어서 나온 사람 같아요.

폴로니어스 네 사랑 때문에 미쳤느냐?

오피리아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폴로니어스 뭐라고 말하더냐?

오피리아 제 손목을 잡더니, 꼭 붙들고 안 나와 줘요. 그리고는 팔이 닿는 데까지 뒤로 물러가서, 한 편 손으로 이렇게 이마를 가리면서 마치 제 화상이라도 그리려는 것처럼 제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는데, 한참 그러고 나더니 나중엔 제 팔을 조금 흔들고, 자기 머리를 두서너 번 끄떡끄떡하면서 한숨을 푹 내쉬는데, 어찌도 처량하고 깊은 한숨인지, 가슴이 무너지고 숨이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제 팔을 놔 주었다. 그리고 머리를 뒤로 돌린 채 앞으로 걸어 나가는데, 눈으로 보지는 않고 길을 찾아 나가는 모양이죠. 문밖에 나갈 때까지 그렇게 앞을 보지 않고, 끝까지 제 얼굴만 뚫어지게 쏘아보았어요.

폴로니어스 자, 나를 따라오너라. 가서 상감께 아뢰려 한다. 이것을 바로 사랑의 광증이로구나. 그 무서운 힘이 일어나면 인간의 정신을 스스로 망치고, 의지력을 탈선시켜서 죽음을 헤아리지 않는 행동을 취하게 한다. 인간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모든 정열이 다 그러하지만, 이것도 그 병의 일종이다. 아무튼 가엾다. 너, 뭐, 요새 그분에게 박정한 말이라도 했니?

오피리아 아뇨. 다만 아버지님 분부대로 편지를 돌려보내고, 찾아오지 마시라고 거절한 일뿐이에요.

폴로니어스 그것이 미치게 한 원인이로구나. 내가 좀 더 주의와 분별심을 가지고 그 위인을 살펴보지 않았던 것이 유감이다.

나는 그 양반이 너를 농락해서 너의 일신을 망치려는 줄만 알았구나.

이렇게 되고 보니, 내 의심이 원망스럽다! 참, 젊은 사람들에게는 지각심이 부족할 것이 탈이지만, 우리 늙은 사람들은 무엇이나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이 탈이란 말이야. 자, 상감한테로 가자. 불가불(不可不)이 사실을 상감께 아뢰어야 하겠다. 만일 숨겨 둔다면, 사실을 차마 아뢰기를 저어했다고 해서 상감의 귀염을 받는 것보다는, 숨겨 두었다고 해서 화를 받는 편이 더 클 것이다. (퇴장)

제2장 궁성 안의 한 방

왕, 왕비, 로젠크란츠, 길든스틴, 시종들 등장

왕 어어, 로젠크란츠, 길든스틴, 잘 왔다. 너희를 오래 만나고도 싶었지만, 또 너희들에게 수고를 끼칠 일이 있어,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급히 청해 온 것이다. 동궁이 영 판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는 너희들도 어느 정도 들었을 테지. 외모로나 정신으로나 이전과는 비슷하지도 않으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자기가 하는 일을 전혀 모르는 모양인데, 대관절 그 원인이 무엇인지. 나로서는 선친의 작고 때문이라는 것밖에는 몽상조차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어렸을 적부터 동궁과 같이 자라다시피 했고, 그래서 동궁의 젊었을 적 기질에는 친숙한 터라, 잠시 궁중에 유하면서 동궁의 벗이 되어, 자주 즐거운 놀음을 권해도 보고, 또 기회가 허락하는 대로 탐지도 해서, 내가 모르는, 무슨 병집이 동궁을 괴롭히는가를 알아내 주기를 부탁한다. 원인을 알면, 나로서 자연 치료해 줄 도리도 있을까 한다.

왕비 두 분 선비, 동궁은 줄곧 두 분 말씀을 하신다오. 두 분처럼 동궁이 간절히 사모하는 벗이 이 세상에야 또 있을라고. 두 분이 잠시 이곳서 지내면서 어떻든지 동궁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우리들의 소망을 이루는 도움이 되어 준다면야 상감께서도 기억해 주실 테니, 거기에 적합한 보답이 있지 않겠소?

로젠크란츠 양 폐하께옵서 신들에게 대한 절대한 권능으로써 성령을 신들에게 명하옵시면 족하고, 간청하실 것까지는 없으실 것으로 아뢰옵니다.

길든스틴 신들은 다만 분부에 복종할 따름이옵니다. 이 자리에서 신들은 대명을 입사와 진심갈력(盡心竭力) 충성을 다할 것으로 아뢰옵니다.

왕 다 고마운 말들이다.

왕비 두 선비에게 치사하오. 그러면 두 분, 몸시도 모습이 변했으리다만 동

궁을 좀 찾아 주오.

애들아, 너희들 중 누구든지 이 두 선비님을 모시고 동궁 계신 데로 안
내하거라.

길든스틴 동궁전하께서 저희들이 찾아 뵈옵는 것을 반갑게 여겨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할 일이 동궁전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비웁니다!

왕비 아멘! (로젠크란츠, 길든스틴, 시종들 퇴장)

폴로니어스 등장

폴로니어스 상감마마, 사절 일행이 노르웨이로부터 아주 만족해서 돌아온 것을 아
뢰웁니다.

왕 경은 언제나 기쁜 소식을 전해 주는 사람이오.

폴로니어스 상감마마, 과연 그러하올까요? 그야, 신이 하느님 앞에 영혼을 지키듯
이, 폐하 앞에 의무를 지킬 평소의 각오입니다만, 그런데 말씀이오, 동
궁전하의 병인(病因)을 신이 바로 발견한 것 같사운데, 만약 틀렸다면
이 개놈의 머리도 이제는 늙어서 옛날처럼 국시(國是)의 냄새를 잘 맡
지 못하는 모양인 줄 아웁니다.

왕 아아, 그 말부터 하시오. 내가 가장 궁금히 여기는 바이오.

폴로니어스 먼저 사신들에게 배알(拜謁)을 허하여 주시면, 신의 보고는 그저 수라
드신 뒤의 입가심이나 될까 하웁니다.

왕 경이 친히 가서 사신들에게 치하하고 곧 참내(參內)시키시오. (폴로니어
스 퇴장)

귀여운 중전, 궁상 말이, 태자의 병인을 알았다 하는구려.

왕비 궁상이 알아냈다면, 그건 동궁 아버지의 작고와 우리들의 급살 맞은
결혼—그 두 원인이 아닐까요?

왕 좌우간 알아봅시다그려.

폴로니어스가 볼티먼드와 코넬리어스를 데리고 다시 등장

사신들의 귀국을 환영하오. 그래, 우방 노르웨이 왕의 회답이 어떠하
던고?

볼티먼드 상감마마가 내리신 인사 말씀에 대하여 지극히 정중한 답사였습니다.
신들이 처음 만나자 즉시에 신하를 파견하여, 조카의 모병을 중지시켰
습니다. 그 모병을 처음에는 폴란드에 대한 전쟁 준비로 알았던 모양
입니다. 조사해 본 결과 사실은 그것이 폐하에 대한 음모이었다는 것
을 알았습니다. 늙고 병들고 무능한 탓으로 해서 그렇게도 속아 넘어
갔었던 것을 몹시도 분하게 생각하여, 포틴브라스에게 중지 명령을 내
렸더니, 꺾자는 잡담 제하고 왕명에 복종했습니다. 그러나 꺾자는 노
르웨이 왕한테서 단단한 꾸중을 듣고, 결국 폐하에 대해서 다시는 감
히 무력행사를 꾀하지 않겠노라고 숙부 앞에서 맹세를 함으로써 결말
을 보았습니다. 그래 늙은 노르웨이 왕은 기쁨에 어쩔 줄을 몰라, 그
조카에게 세입(歲入) 3천 크라운에 해당하는 토지를 봉하고, 기왕에
모집한 군대를 폴란드 병역에 쓸 권한을 주었습죠. 그와 동시에 이 국
서에 자세히 써어 있는 바와 같이 (서류를 왕 앞에 바치면서),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전기의 군대가 폐하의 영토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그
탄원서 속에 설정된 바와 같은 아방(我方)의 안전(安全)과 피방(彼方)
의 행동 범위에 관한 조건 밑에서 허락하여 주십시사 합니다.

왕 그건 무방한 일이오. 하여튼 추후에 적당한 시간을 보아서 서면을 열
람해 보고, 이 건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해 본 연후에 회답하려 하오.
경들이 지성껏 치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둔 데 대하여 치하하오. 우선
가서 폭 쉬고, 오늘 저녁에는 만찬을 같이 합시다. 경들의 환국을 충심
으로 환영하오. (볼티먼드와 코넬리어스 퇴장)

폴로니어스 이번 일은 잘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감마마와 중전마마, 대저 제
왕은 모름지기 어떠하셔야 하며, 신민의 의무는 무엇이며, 어째서 낮

은 낮이고, 밤은 밤이고, 시간은 시간이 되는가 등등의 문제를 토론한다는 것은 밤과 낮과 시간을 허비하는 일밖에는 아니 될 것입니다. 무릇 간결은 기지의 본질이며, 산만은 그 수족과 외면(外面)치레이매, 양폐하게 간단히 아뢰까 합니다. 대자께서는 정신병이올시다. 신은 감히 정신병이라 일컫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진정한 정신병의 성질을 규정할진댄, 요컨대 정신병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밖에는 더 되겠습니까? 그건 그만해 두고,

왕비 좀 더 내용을 말씀하오. 문장술(文章術)은 그만하고.

폴로니어스 중전마마, 제가 무슨 술을 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태자께서 정신병이라 함은 사실이올시다. 사실이라 유감스런 일이며, 유감하지만 사실이올시다. 서투른 구변입니다만 그만 두겠습니다. 신은 술을 쓸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요. 태자께서 정신병이라 가정합니다. 그러면 남은 문제는 무엇이나 하면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혹은 이 흠과(欠過)에 대한 원인이라 함이 옳을는지도 모르지요. 어찌서 그러냐 하면 이 흠결(欠缺)의 결과는 원인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예요. 그래서 사정은 여차(如此)하오며 나머지 문제는 여좌(如左)하오니, 신 중고려하심을 양청(仰請)하나이다. 신은 딸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 딸인 동안은 신이 가지고 있습죠. 그런데 그 딸이 애비에 대한 의무와 복종심에서, 보십시오, 이런 것을 신에게 바쳤습니다. 가룩한 심지를 양찰(諒察)하여 주심을 양청하나이다. (편지를 읽는다)

“나의 영혼의 숭배대상(崇拜對象)이 되시는 천사 같은 분, 가장 미화(美化)된 오�필리아양에게…….” 문구가 서투른데요. 게다가 악취미입니다. “미화”란 악취미의 문구입니다. 하여튼 들어 주십시오. 이렇습니다. (읽는다)

“이 편지가 당신의 수려하고 순백한 가슴속에서, 운운(云云).”

왕비 그래 그 편지가 태자한테서 오�필리아에게로 왔단 말ियो?

폴로니어스 중전마마. 신이 아는 대로 죄다 아뢰올 테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읽는다)

“성신이 불인 것을 의심하고,
태양이 회전함을 의심하고,
진리가 허언이라 의심해도,
그대를 사랑함을 의심 마오.

사랑하는 오피리아양이여, 나는 시에 서투른 사람이라, 내 가슴속에
있는 고민을 시로 읊어 낼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당
신을 가장 많이, 이루 형언할 수 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만은 믿어 주
십시오. 충충(兇兇).

이 육체가 살아 있는 동안은 영원히 아리따운 당신의 것이 되고자 하
는 햄릿 올림.”

이 편지를 딸녘은 제 분부대로 신에게다 바쳤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태자께서 어느 때 어떤 수단으로 어떤 장소에서 정답을 하셨는가도 죄
다 신의 귀에다 속삭였답니다.

왕 그러면 딸애는 태자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였던고?

폴로니어스 신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시는 말씀인지요?

왕 충실하고 체면을 차리는 선비로 알고 하는 말이지.

폴로니어스 제발 그런 인간이 되고자 기망하는 바입니다만, 그런데 말씀이죠, 이
열렬한 사랑이 날개를 타고 달려오는 것을 신이 보았을 때—사실 말
이지, 딸녘이 와서 이야기하기 전에 신은 이미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
었습니다만—, 그때에 말씀이죠. 만약 신이 비밀을 보관해 둘 뿐, 아무
재주가 없는 저 책상이나 책장 모양으로 우두커니 있었다든가, 보고도
못 본 척, 스스로의 마음에 눈을 감아 말 병어리 귀머거리가 되었다든
가, 또는 그 사랑을 수수방관했다든가 하면, 폐하께서는 신을 무엇이
라 생각하셨을까요? 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중전마마께서도 어떻
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올시다. 신은 곧 일을 착수했더랍니다. 그래
서 딸녘을 보고 이렇게 타일렀습죠. “햄릿공은 태자의 귀하신 몸, 네게

는 하늘의 별이다. 그건 도저히 안 될 일이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로 주의시키기를, 앞으로는 동궁께서 자주 찾아오시지 못하시도록 집안에 들었드려 있거라.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도 집안에 들이지 말고, 선물을 보내셔도 받지를 말라.—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녀는 그 말대로 실행하여, 훈계의 덕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궁전하께서는 이렇게 여자한테서 거절을 당하고 보니까 간단히 말씀 사퇴했습니다. 비탄에 빠져서, 그다음에는 음식을 전폐하시고, 밤에도 잠을 이루시지 못하고, 그래서 몸이 쇠약해지시자 기가 허해지시고, 이렇게 차츰차츰 도져서 마침내 현재 같이 우리가 모두 다 슬퍼하는 바 저런 정신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 경은 그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오?

왕비 그럴지도 모르지요. 심중팔구 그럴 겁니다.

폴로니어스 신이 궁 내부 대신으로 양 폐하를 뵈시고 지내 오는 몇 해 몇 년을 두고, 신이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말씀 사퇴어, 그렇지 않아 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알고 싶습니다.

왕 내가 알기로는 없었소.

폴로니어스 (자기의 머리와 어깨를 가리키며) 그렇다면 이놈의 머리를 이 어깨에서 잘라 가십시오. 그저 실마리만 붙잡으면야 진실이 비록 땅속에 묻혀 있다 할지라도 신이 그 숨은 곳을 알아내죠.

왕 좀 더 자세히 알아볼 도리는 없을까?

폴로니어스 아시다시피 전하께서는 간간히 이 복도를 여러 시간 연달아서 왔다 갔다 하시는 일이옵니다.

왕비 참, 그렇지.

폴로니어스 그때에 신이 신의 딸을 내놓아 전하와 만나게 하고, 양 폐하와 신은 방장 뒤에 숨어서, 두 사람이 서로 만나는 모양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만약에 전하가 딸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그 사랑 때문에 전하의 정신에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놈도 보필의 책을

벗고,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지으려 합니다.

왕 좌우간 해 보오그려.

왕비 아이고 저것 좀 보세요. 저 가엾은 것이 슬픈 낯으로 뭇 잎으며 오는 구려.

폴로니어스 어서들 가서 숨으십시오, 제발. 신이 곧 덤벼들어 보겠습니다. (왕, 왕비와 시종들 퇴장)

햄릿 책을 읽으며 등장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동궁전하, 문안드리웁니다.

햄릿 어, 안녕하십니까?

폴로니어스 전하, 저를 아시겠습니까?

햄릿 알고말고, 생선 장수 아닌가?

폴로니어스 아니올시다, 전하.

햄릿 생선 장수가 틀렸다면, 생선 장수만큼이나 정직한 인간이 돼 보게.

폴로니어스 전하, 정직한 인간이라뇨?

햄릿 아무렴. 지금 세상 형편 같아서는 정직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만 명 중에서 한 명 뽑혀 나온 인간이 된다는 거요.

폴로니어스 그건 사실입니다.

햄릿 썩은 살에도 키스는 좋더라고, 해가 와서 죽은 개 시체를 훈훈히 녹여 주면 구더기 새끼들이 끓어 나온다니. 그런데 자네 딸이 있는가?

폴로니어스 예, 있습니다.

햄릿 너무 햇볕에 나와 다니지 않게 해.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가는 건 좋지 만, 자네 딸 뺨속에 무엇이 들었다가는 큰일이야. 친구 주의하게.

폴로니어스 (방백) 좀 봐요, 어전하. 여전히 내 딸 타령이거든. 그렇지만 처음엔 나를 몰라보고 나를 생선 장수라 했잖다! 몹시 돌았는데? 몹시 돌았어! 그야 나도 젊었을 때는 상사병에 시달려서, 거의 저만큼이나 미쳐 돌

아다닌 것이 사실이지만, 어디 다시 한 번 말을 걸어 보겠다.

전하 무얼 읽고 계십니까?

햄릿 말, 말, 말!

폴로니어스 어떤 내용이냐 말씀입니다, 전하.

햄릿 누구와 누구와의 내용이냐고?

폴로니어스 아뇨. 제가 묻는 것은 전하께서 지금 읽고 계신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햄릿 욕설이지 뭐야. 이 책을 쓴 놈은 아마도 독설가였던 모양이라.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 늙은이들은 수염이 희고, 얼굴이 쭈그럭쭈그럭하고, 눈에서 진한 호박색의 살구나무 진 같은 눈곱이 흘러나오고, 노망해서 정신력이 아주 부족한데다가, 무르팍의 힘줄에도 영 힘이 없다. 이런 것은 나도 철저하게 믿고 있는 바이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써 낸다는 것은 아마해도 점잖지 못한 일이라 생각하네. 자네도 게쳐둬 뒤로 걸어가면 나만큼이나 늙을 테니까 말이오.

폴로니어스 (방백) 틀림없는 정신병인데. 그러나 말에는 조리가 있거든.

전하 부디 바람을 쐬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햄릿 공기를 쐬지 말고 무덤으로 들어가란 말이지.

폴로니어스 아 참, 사파(娑婆)의 공기를 쐬지 않으면 무덤 속으로 들어갈박엔 없죠.

(방백) 간혹 대답이 아주 의미심장하거든—미친 사람이 가끔 잘 맞추는 그 정확한 말을 도리어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저렇게 미끈하게 내놓지는 못한다 말이야! 이제는 이만해 두고, 이제 곧 내 딸과 만나는 장면을 연구해 보자.

전하, 죄송하옵니다만, 이제는 전하로부터 물러가겠습니다.

햄릿 나한테서 물러갈 것이 있다면, 선선히 내 줄 것은 그 허락밖에는 없어. 또 하나 있다.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이다.

폴로니어스 안녕히 계십시오.

햄릿 에라, 이 청승맞은 멍텅구리 늙은 것들!

로젠크란츠와 길든스틴 등장

폴로니어스 햄릿공을 찾아들 가는 길이지? 저기 계시네.

로젠크란츠 (폴로니어스를 향하여) 대감 안녕하십니까? (폴로니어스 퇴장)

길든스틴 동궁전하, 문안드리웁니다.

로젠크란츠 동궁전하, 참 오래간만이올시다.

햄릿 이거 참 반가운 친구들이 오는군! 길든스틴, 요새 어떻게 지내나?

로젠크란츠도 왔구나. 그래, 너희들 요새 형편이 어떠냐?

로젠크란츠 저희들이야 인간의 보통 질(質)이라, 그저 그렇죠.

길든스틴 너무 복이 좋은 것도 탈이라서, 저희들은 행운의 여왕님 족두리의 첩
지는 아닙니다.

햄릿 그렇다고 신창도 아니지.

로젠크란츠 단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햄릿 그럼 허리게쯤 되느냐? 다시 말하면 가운데에서 여왕님의 귀여움을 받
는단 말이지?

길든스틴 사실 저희들은 은밀한 가운데에 행운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햄릿 뭐? 음부 속에서 행운의 사랑을 받아? 과연 그럴 테지. 행운의 여왕은
음부(淫婦)니까. 무슨 좋은 소식 없더냐?

로젠크란츠 백성들이 정직해졌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햄릿 그렇다면 말세로구나! 그렇지만 너희들의 보고는 사실이 아니다. 내가
조목조목이 문초해 보련다. 너희들은 운명의 여왕님에게 무슨 죄를 짓
기에 이 나라의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느냐?

길든스틴 이 나라가 감옥이라뇨?

햄릿 덴마크는 감옥이다.

로젠크란츠 그렇다면 이 세상도 한 감옥이지.

햄릿 훌륭한 감옥이다. 그 안에는 정신병자를 수용하는 병실도 있고, 죄인을 수용하는 감방도 있고, 또 중죄인을 넣어 두는 토굴도 있지. 덴마크는 감옥 중에서도 지독한 감옥이다.

로젠크란츠 저희들은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햄릿 그렇다면 문제는 없지. 좋고 그른 것은 다 생각할 탓이니까. 나에게는 덴마크가 감옥이야.

로젠크란츠 그야 전하의 야심이 그렇게 만드는 게죠. 웅대하신 전하의 정신에 대해서는 덴마크 나라가 너무도 좁단 말씀이죠.

햄릿 천만에. 경우에 따라선 호두껍질 속에 갇혀 있어도 나쁜 꿈만 꾸지 않으면 나 자신을 무한한 공간의 왕자라 생각할 수도 있거든.

길든스턴 그 꿈이 실은 야심이란 겁니다. 야심의 실체는 꿈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까요.

햄릿 꿈 자체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로젠크란츠 지당한 말씀이외다. 나는 꿈의 성질이 그렇게도 허무하고 뜬구름 같은 것이라서, 결국은 그림자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햄릿 그렇다면 이 세상의 거지들은 사회의 실체이고, 군주나 또는 껌딱지는 영웅들은 그 거지들의 그림자가 되는 셈이지. 내 재주로는 이 문제를 궁리할 수 없다. 대궐에나 들어가 볼까?

로젠크란츠 }
길든스턴 } 저희들도 뵈시고 가지요.

햄릿 천만의 소리를 다들 한다. 너희들을 내 하인들과 같이 취급해서야 쓰겠느냐? 사실 말이지, 요새는 그놈들이 어떻게든 지긋지긋이 내 뒤를 따라다니는지 귀찮아 못살겠다. 농담은 말고, 우리 옛날 친구답게 이야기하자. 너희들 엘시노어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야?

로젠크란츠 전하를 심방하는 일이올시다. 그 밖에는 아무 목적도 없습니다.

햄릿 나는 지금 혈수할수없는 거지라, 치사(致謝)에도 궁하다. 그러나 하여튼 감사하다. 또 내 감사라는 게 반 푼어치 값도 못 된다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다. 너희들, 누가 보내서 온 것 아니냐? 이렇게 나를 찾아오는 것이 너희들 자신의 생각인가? 너희들의 자유의사에서 나온 일인가? 자, 똑바로 말해라. 자, 자, 주저하지 말고 말해.

길든스틴 무슨 말을 저희들더러 하란 말씀입니까?

햄릿 아 왜, 요점만 비켜 놓고는 무엇이든지 다 좋지. 말 말아라. 너희들은 누가 보내서 왔어. 너희들 얼굴 위에 벌써 자백하는 빛이 뻗히 나타나 있다. 너희들은 원래가 순직한 인간이라, 그것을 가장할 만한 흥계가 모자란단 말이다. 저 착하신 상감마마와 중전마마께서 너희들을 불러 오셨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로젠크란츠 저희들을 파견하다니, 무슨 목적으로요?

햄릿 그거야 너희들이 말할 일이지. 그러나 친구의 당연한 요구로서, 우리들이 어렸을 적부터 같이 자라 오던 정리(正理)로서, 항상 변함이 없던 우리들 애정의 의무로서, 좀 더 구변이 좋은 사람 같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으면만. 아무튼 이런 것들보다도 좀 더 신성한 그 무엇에 호소해서, 솔직히 말해라. 너희들 누가 파견해서 온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로젠크란츠 (길든스틴을 향하여) 어떻게 할까?

햄릿 (방백) 아, 그렇다면 잘 알겠다. 내가 딱 보고 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거든 나를 그렇게 쉬쉬하지 말란 말이야.

길든스틴 전하, 과연 저희들은 파견당해 왔습니다.

햄릿 그 이유는 내가 말하지. 이렇게 내가 앞장을 질러 말해 두면, 너희들은 비밀을 탄로할 필요도 없고, 따라서 상감과 중전에 대하여 비밀을 지켰다고 약속했던 신의를 털끝만큼도 잃지 않게 된단 말이거든. 근자에 내가 웬셈인지 까닭도 모르게 모든 일에 흥취를 잃어버리고, 내가 평소에 그렇게도 즐겨 하던 운동 경기도 다 던져 버리고 말았다. 항상 이렇게 심사가 우울해서 이렇듯 수려한 산천대지도 나에게서는 황무한 바다 뿔파구처럼 보인다. 저 굉장한 천개(天蓋), 대기, 우리들 머리 위에 걸쳐 있는 저 찬란한 창궁, 금 볼로 아로새긴 저 장엄한 지붕—바

로 저것이 나에게서는 무슨 악역장려(惡疫瘡癘)의 독기 텅어리처럼 보이
는구나. 인간이야말로 참 천지조화의 묘로 생겨난 물건이 아니냐? 그
숭고한 이성! 그 무한한 능력! 그 단정한 자태! 그 감탄할 운동! 행동은
천사 같고, 이해력은 신 같아서 세상의 꽃이며, 만물의 영장이로다! 그
렇지만 이러한 물질의 평수가 나에게서는 어떻게 보이느냐 말이다. 인간
의 꼴이 보기 싫다. 여자, 여자의 꼴도 보기 싫다. 너희들 웃는 것을 보
니 그렇지 않은 모양이로구나.

로젠크란츠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햄릿 그러면 내가 “인간의 꼴이 보기 싫다”고 말할 때 어째서 웃었느냐?

로젠크란츠 전하, 사실은 전하께서 인간에 흥미를 느끼시지 않는다면 앞으로 올
배우들이 전하한테서 얼마나 박대를 받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웃
었습니다. 우리들이 이리로 오는 도중에 만나서 앞서 왔는데, 그들은
전하 앞에서 연극을 보여 드리려고 지금 이리로 오는 도중입니다.

햄릿 그야 환영해 주지. 특별히 왕으로 분장하는 배우를 환영해 주마. 연극
에 나오는 국왕 폐하에게는 찬사를 바치겠다. 무예 수련을 하는 무사
는 검과 방패를 쓰게 하자. 애인의 탄식에 대해서는 상을 주마. 성미가
사나운 인물은 끝까지 화를 부리도록 내버려 두자. 어릿광대에게는 웃
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허파를 터지게 해 주자. 귀부인에게는 자유롭게
그 심중을 토로시키자. 그렇지 않아서는 연극의 대사가 술술 나가지는
못할 거다. 그들은 어떤 배우들이냐?

로젠크란츠 전하께서도 평소에 즐겨 하시던 바로 그 서울 비극단입니다.

햄릿 어떻게 해서 그들이 지방 순회를 하게 되었느냐? 서울에 정주하는 것
이 명성으로 보아서나 수입으로 보아서나 펍 나를 텐데.

로젠크란츠 최근의 개정법 때문에 서울 공연이 금지되었나 봅니다.

햄릿 내가 서울서 그들의 연기를 보았을 때처럼 지금도 평판이 여전하냐?
그때는 보니까, 사람들이 뒤를 줄줄 따라다니고 그러던데.

로젠크란츠 그때만은 못합니다.

햄릿 어째서 그럴까? 그들 연기에 녹이 슬었나?

로젠크란츠 아닙니다. 그들의 노력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요새의 연극을 보면 꼭
 매 새끼들 같은 어린애 배우들이 나와서는 시비조로 목청이 터지게 뻑
 뻑 고함을 지르는데, 그 때문에 맹렬한 박수갈채를 받는답니다. 이런
 것이 그만 유행이 되고 말아서, 예전과 같은 연극은 보통극이라 하여
 함부로 욕설들을 합니다. 제법 칼을 찬 점잖은 어른들이 겨우 못 한 자
 루를 무기로 삼는 극작가들의, 요 소인종(小人種)들이 무서워서, 감히
 그런 극장에는 출입을 못 하는 형편입니다.

햄릿 뭐, 어린애 배우들이 있어? 그래, 그 포주는 누구냐? 어떤 정도의 급료
 를 받고들 있느냐? 그러면 그 애들은 어린애 음성이 나올 때까지밖에
 는, 배우 노릇을 못 할 것이 아니냐? 만약 그 애들이 자라서 보통 배우
 가 될 때에 그 애들 형편이 다시 펴지지 못 한다면 그 것밖에는 할 노
 릇이 없을 모양인데—그 배우들은 극작가가 자기네들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욕설을 시켰다고 원망하지나 않을까?

로젠크란츠 그러기에 쌍방에서 상당히 시비도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또 국민 일반
 은 그 싸움에다 불을 지르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극작가와 배우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는 장면이 없으
 면 그런 연극에 대해서는 극장 경영주 측에서 원고료를 지불하지 않는
 일조차 있었답니다.

햄릿 그게 사실일까?

길든스톤 사실이고말고요! 굉장히 머리싸움을 했답니다.

햄릿 싸우면 의례히 어린애 배우들이 이기는가?

로젠크란츠 암, 그렇죠. 뭐 어느 극장이랄 것 없이 모두 다 그 모양입니다.

햄릿 생각해 보면 그다지 괴상할 것도 없지. 이를테면 내 숙부는 현재에 덴
 마크 왕인데 선왕이 살아 계실 때 같으면 그 얼굴에 대해서 입을 뻑죽
 거리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임금님의 초상화라고 해서, 조그만 그림
 한 장에 이십 냥, 사십 냥, 오십 냥, 백 냥씩 돈을 척척 내는 세상이니

까. 제기랄 것, 이런 묘한 이치야 철학자인들 알아낼 수 있을라고.

(안에서 의기양양한 나팔 소리)

길든스톤 배우들이 왔습니다.

햄릿 하여튼 너희들 엘시노어에 잘들 왔다.

악수하자, 어서. 이렇게 환영함엔 마땅히 예법이 따라야 한다. 내가 배우들과 만날 때에는 이렇게 환영하는 뜻이 외부에도 정중하게 나타나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보다도 배우 일단을 더 환영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을 갖추어 너희들에게도 예의를 지키는 거다. 이렇게 찾아 주니 반갑다. 그렇지만 숙부 겸 부친님과 숙모 겸 모친은 숙고 계시단 말이다.

길든스톤 속다니오, 무었에 속으셨단 말입니까?

햄릿 내 정신이 돌았다고 생각들 하시는 모양인데, 내 정신의 나침반은 북북서방향으로만 돌았어. 그러니까 남풍이 불 때엔 매와 창로(蒼鷺)를 구별할 수 있거든.

폴로니어스 다시 등장

폴로니어스 두 분 선비 기체 만안하시오?

햄릿 익히 잘 들어 뒤라. 길든스톤, 그리고 로젠크란츠도 두 귀를 번쩍 들고 잘 들어 두어. 저기에 오는 저 커다란 갓난아이는 아직도 기저귀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

로젠크란츠 아마도 두 번째 어린애가 된 게죠. 늙은이는 어린애라고들 하니까요.

햄릿 두고 봐. 내 앞에 와서 배우들이 왔다고 보고할 터이니. 네 말이 옳다. 월요일 아침이었지. 참, 바로 그랬어.

폴로니어스 전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햄릿 (흥내 내면서) 전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각설 이때에 로스키우스(Quintus Roscius Gallus)가 로마의 일대 명우(名優)였으니—

폴로니어스 그 배우들이 지금 참내했습니다.

햄릿 흥, 흥.

폴로니어스 사실 말씀이죠—

햄릿 그때에 배우들이 각기 노새를 타고 왔도다.

폴로니어스 사실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일등 가는 배우들입니다. 비극에나, 희극에나, 역사극에나, 전원 희극에나, 역사 전원극에나, 역사 비극에나, 역사적 전원적 비희극에나, 장소의 통일을 지키는 극에나, 무시하는 극에나, 막히는 일이 없답니다. 세네카의 비극(Senecan tragedy)이라고 해서 너무 무거워 못 하는 법이 없고, 플라우투스(Titus Maccius Plautus)의 희극이라고 해서 너무 가벼워 잡치는 법도 없습니다. 작극의 법칙을 지키는 연극에나, 자유로운 극에나 능소능대합니다.

햄릿 오오, 이스라엘의 사사(士師) 입다(Jephthah)여, 그대는 얼마나 귀중한 보배를 가졌더뇨—

폴로니어스 전하, 그는 어떤 보배를 가졌었던가요?

햄릿 아 왜, 옛날 노래에도 있지 않은가? “예쁜 딸이 있었으니 무남독녀라, 애비 그를 애지중지하였더니라.”

폴로니어스 (방백) 여전히 내 딸 타령이거든.

햄릿 늙은 입다, 내 말이 옳지 않은가?

폴로니어스 전하께서 저를 입다라 불러 주신다면 저에게는 사실 애지중지하는 딸이 있습니다.

햄릿 아니, 노래 문구는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아.

폴로니어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햄릿 아 왜, 몰라?

“천생팔자 연분으로.”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렇지.

“기연미연(其然未然)된 일은 기어이 일고야 말았도다.”

그 신성한 노래 제1절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어. 내가 읊은 일단(一端)

은 거기서 왔는데, 자 보오. 지금 배우 일단(一團)이 저기에 오오.

네다섯 명의 배우 등장

여러분들 잘 왔소. 다들 잘 왔소. 모두들 성해서 다행이오. 반가운 친구를 환영하오. 아아, 자네도 왔구먼! 그런데 우리 헤진 뒤에 수염이 났구먼! 그래 덴마크에 와서 내 앞에 어른 노릇을 하려는 모양인가? 아아, 아가씨도 오셨고. 아가씨께서는 요전 만났을 적보다도 발돋움 만큼 천당에 가까워졌어. 제발 네 목소리가 못쓰는 금화모양으로 페이지 않기를 축수한다. 여러분들 참 반갑소. 우리 엘시노어 사람들은 프랑스의 매사냥꾼들처럼 배우들을 보기만 하면 그저 쫓아다닌다오. 이 자리에서 한마디 들읍시다. 어디 맛을 좀 보여 주구려. 자 아주 감격한 놈으로다.

배우 1 어떤 이야기를 읊을까요?

햄릿 언젠가 읊기만 하고 연극은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은 법한데. 혹은 연극이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한 번 이상은 아니오. 내 기억으로는 그때의 연극이 일반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지. 개발에 편자지, 알 턱이 있나. 내가 보기엔 참 훌륭한 각본이었었는데, 또 나쁜만 아니라, 이런 문제에 들어서는 나보다도 훨씬 권위를 가지는 사람들도 같은 의견이었었는데, 각색도 잘되고, 문구도 적절 교묘하다고 사람들이 말하던데. 그리고 내용을 구수하게 할 만한 잡된 양념이나, 또는 문장의 맛을 부려 보려고 한 자취가 전연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나도 들어 기억하고 있지만, 그 대신 연극을 구성하는 방법이 성실하고, 내용이 재미도 있지만 건전해서, 저속한 화려미보다는 천연적인 미가 훨씬 많았다고 비평들을 했지. 그중에서도 한 대목을 특히 나는 사랑했지. 디도(Dido)에게 하는 아이네이아스(Aeneas)의 이야기 말이오. 그중에서도 프라이모스(Priam)의 최후를 그리는 구절이 특별히 좋았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거든. 이런 데서부터 시작하라고. 어, 뭐였더라? 가만히 있자.

“대장부 피로스(Pyrrhus), 히르카니아의 비호(Hyrceanian beast)처럼.”
아니, 그렇지는 않지. 이렇게 시작되지.

“대장부 피로스, 그의 흑심처럼
검은 갑옷을 입고, 칠칠 그믐밤에
흉마(凶馬) 뱃속에 잠복하더니
이제 그 무서운 검은 얼굴에다
또다시 처참한 칠을 하였도다.
아비 어미 딸 아들들의 피를 칠하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투성이라.
화염이 충천하여 시체는 숯이 되니
장부의 활약에 좋은 등불이로다.
분노와 화염에 몸이 달아
전신의 피칠은 야교처럼 굳어지고
눈에는 홍옥 같은 살기가 등등하여
아수라(地獄)인 양 피로스는
노왕 프라이모스를 찾아간다.”
자, 이제는 받아서 해.

폴로니어스 참 잘하십니다. 구변도 좋으시고, 음성의 고저도 그만이시요. 내용의 이해도 훌륭하십니다.

배우 1 “그때 보니 노왕은 희랍 군을 치려 하나
역불급(力不及)이라 보검은 손의 말을 듣지 않고 땅에 떨어진 채 다시
들지도 못하더라
노약이 부적이라, 피로스는
프라이모스를 향하여 달려가도다.
마음이 급하여 칼은 빛나갔지만

매서운 칼이 허공을 치는 획 소리에
노왕은 기운 없이 까부라지고 만다.
그때에 비록 무심한 궁궐일지나
일격을 느꼈음인지 화염의 누각은
땅 위에 쓰러져 천지가 무너지는 듯.
이 소리에 피로스는 망연자실한 양,
보라, 프라이모스의 백발노두를 향하여
내려치던 칼은 허공에 얼어붙고,
그림에 그린 폭군인 양, 피로스는
진퇴미결로 우뚝 서 있을 뿐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
폭풍이 오기 전에 천지가 고요하여
구름이 정지하고 바람도 함구무언,
대지는 죽은 듯이 잠짓할 바로 그때에
별안간 벽력이 터져 허공을 찢듯이
잠시 망설이던 피로스의 분노심은
잠을 깨어 그를 분발시킬 제
군신 마르스(Mars)의 영구불파한 투구를 단련하던
척안거인(隻眼巨人) 사이클로프스(Cyclops)의 철퇴도
이랬던가시피 사정없이
피로스의 피를 뿜는 칼은
프라이모스의 머리를 내려치다.
아서라, 말아라, 운명의 여신아!
천상의 제신은 중의로써 그 권력을 뺏고
그 수레바퀴에서 살과 테를 부수어
둥근 바퀴통만 구천을 굴러 굴러
지옥의 악귀들 위로 떨어뜨리라!”

폴로니어스 애, 건 좀 길다.

햄릿 네 수염과 함께 이발소로 보내라. 어서 다음을 계속해 다오. 저자는 우스갯소리나 우란한 장면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졸고 마는 위인이 다. 자, 헤카베(Hecuba)의 장면을 부탁한다.

배우 1 “그때에 아아 그때에 보자기로 머리를 싸맨 왕비가—.”

햄릿 보자기로 머리를 싸맨 왕비라?

폴로니어스 거 참 좋은 말이다. “보자기로 몸을 꾸린 왕비”는 관주다.

배우 1 “맨발로 뛰어나와 허둥지둥
불을 끄려는지 역수 같이 눈물을 뿌리며
보관이 없혀 있던 머리엔 보자기 하나,
치렁치렁하던 비단옷은 간 곳이 없고
일평생 애기 낳기에 빼만 남은 허리에는
흔겁 중에 주워 걸친 요때기 한 잎뿐.
이런 광경을 본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독약물에 혀끝을 적시어
운명의 여신에 독설을 퍼부었을 것이다.
만일 천신들이 그 자리에 강림하여,
피로스가 갖은 잔악을 다 부리며
남편의 사지를 칼로 다지는
이 참경을 당하는 늙은 왕비가
그 자리에 지르는 으악 소리를 들었다면
신인들 어찌 인간사에 무심할쏘냐?
하늘에 불타는 별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
천심 속에 감동이 뭉쳤으리라.”

폴로니어스 보십시오. 저 배우의 안색이 변하고 두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지 않습니다니까? 여봐라, 이제는 제발 그만 두어라.

햄릿 그만해 두자. 나머지 부분은 곧 다시 듣기로 하자.(폴로니어스를 향하여)

영감, 이 배우들을 편히 쉬게 해 주시오. 마음먹고 저 사람들을 후히 접대하시오. 저들은 시대의 역사를 압축해서 전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영감이 살아 있는 동안에 저 사람들한테서 구설을 듣느니보다는, 죽은 뒤에 좋지 못한 비명(碑銘)을 써 받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오.

폴로니어스 전하, 저들 신분에 적당하게 접대하겠습니다.

햄릿 영감도 참, 좀 더 높이 접대해요. 각자의 자격에 따라서 대우한다면 이 세상에서 회초리를 면할 사람이 어디 있겠소? 당신 명예와 체면에 어울리도록 접대해 두란 말이오. 흥한 접대를 받는 그들이 자격이 없으면 없을수록, 당신의 선심은 빛이 난다는 거요. 안으로 안내하시오.

폴로니어스 자, 여러분, 오시오.

햄릿 친구들, 영감을 따라가오. 내일 여러분의 연극을 보기로 합시다.

(배우 1만 남고 폴로니어스와 모든 배우들 퇴장)

자네 좀 물어 볼 말이 있는데, 자네 <곤자고 시역(弒逆)—The Murder of Gonzago>을 할 줄 아나?

배우 1 네, 압쑤.

햄릿 내일 밤 그 연극을 할 텐데, 혹 필요하다면 열대여섯 줄 가량 대사(臺詞)를 외워 둘 수 있겠지? 내가 자작 써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배우 1 할 수 있습니다.

햄릿 그러면 됐네. 저 영감을 따라가게. 그런데 말이오, 저 영감을 하대해서는 안 되오. (배우 1 퇴장) 자, 우리 오늘 밤에 다시 만나자. 하여튼 반갑다.

로젠크란츠 전하, 안녕히 계십시오.

햄릿 아, 그러냐. 그러면 잘들 가거라. (로젠크란츠, 길든스턴 퇴장)

이제는 나 혼자다.

아아, 내가 어찌면 이렇게도 지지리 못한 비열한이 되고 말랴! 이제 온 저 배우가 다만 시인의 창조 속에서 상상의 정열에 취하여 그 영혼을 스스로 마음속의 이념에 공명케 함으로써 우러나오는 감격에서 안색

이 창백해지고, 두 눈에 눈물이 고이고, 미칠 듯한 고민의 표정이 나타나고, 목이 메어 말소리가 끊어지고, 신체 모든 기관이 이념에 따라서 갖은 모양으로 놀고 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나?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나? 오직 헤카베 때문에! 그러면 헤카베는 그에게 대하여 무엇이며, 그는 헤카베에 대하여 무엇이관대, 그가 그 여인을 위하여 우는고? 만일 그가 나와 같이 감동을 일으켜야 할 충분한 동기와 교시를 받았다면, 그는 어찌할까? 그는 눈물로 무대를 적시고, 그 무서운 대사로써 청중의 귀를 찢고, 양심 속에 죄를 느끼는 자들로 하여금 미치게 하고, 순결한 자들의 가슴속에도 공포심을 가득 차게 하고, 무지한 사람들의 혼을 흔들어 놓고, 보고 듣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노둔하고 나약한 이 못난 놈은, 몽상아(夢想兒)처럼 마음 속에 아무 경륜이 없이 그저 무위도식할 뿐, 한마디 말이 없구나! 세상에도 흉칙스러운 수단으로써 전 재산과 지위와 귀중한 생명에 파멸을 본 한 임금을 위해서 한마디 말이 없구나! 나를 한 겁쟁이라, 악한이라 부를 자 누구이나? 내 머리통을 후려갈길 자 누구이나? 내 수염을 뽑아 내 면상에 붙어 내갈길 자 누구이나? 내 코를 잡아당길 자 누구이나? 나를 멸절한 거짓말쟁이라고 욕설할 자 누구이나?

하아, 그럴 사람이 있다면, 진정 나는 그 욕을 달게 받겠다. 받지 않고 어일꼬냐? 필시 내 간은 비둘기 간만밖에는 못하고, 게다가 굴욕에 분기할 만한 뱀도 없는 놈이리라. 만일 그렇지 않다면야 벌써 저 악한의 시체를 뜰에 던져 그 썩은 고기로 하늘에 무수한 술개미 떼를 살찌게 했으리라. 이 잔인음탕한 악한아! 잔악음흉하고도 호색무치한 악한아! 아, 복수다! 내 얼마나 못난 자식이나! 사랑하는 아버지를 참살당한 아들놈이 하늘과 땅에서 복수하라는 엄명을 받고도, 창부처럼 말로만 가슴속을 늘어놓고, 막상 원수를 만나면 입속에서는 욕설을 중얼거리면서도, 매춘부처럼 가랑이를 벌리는 꼴이 참 장하다.

부엌 머슴애만도 못한 자식! 이게 무슨 꼴이냐? 분기해라! 머리를 써서 생각해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다. 죄를 지은 놈들이 연극을 보다가, 무대에 나타나는 그 교묘한 연기에 하도 감동되어 즉석에서 자기의 죄상을 불었다고 한다. 살인죄는 비록 입이 없어도 가장 놀라운 웅변으로 말을 내는 법이다. 저 배우들에게 시켜서 내 숙부 앞에서 아버지 살해의 장면과 비슷한 연극을 하게 하리라. 내 그 안색을 살펴 보면서 그 아픈 데를 찢러 보리라. 그래서 움칠하면 벌써 앞으로 할 일은 뻔하다. 내가 본 혼령은 마귀인지도 모를 일이다. 마귀는 그럴듯한 모양을 차리는 마력을 가졌으니까. 옳지, 나의 기가 허해지고 율화증이 생긴 틈을 타서, 마귀는 이런 혼령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력을 가졌으니까. 나를 어떤 신세 망칠 파멸의 구렁으로 끌고 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좀 더 충분한 근거를 잡아야 하겠다. 마침 이 연극은 왕의 양심에다 덮을 걸어 보는 알맞은 방법이다. (퇴장)

제 3 막

제1장 궁성 안의 한 방

왕, 왕비, 폴로니어스, 오�필리아, 로젠크란츠, 길든스틴 등장

왕 그러면 너희들이 아무리 우원(迂遠)한 방법을 써 보아도, 동궁이 어째서 이렇게 난심하여 소란하고 위험스런 광태를 부리며, 고요한 대궐 안의 하루하루를 시끄럽게 어지럽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낼 수 없단 말이냐?

로젠크란츠 동궁계서는 정신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자백하고는 계십니다. 그렇지만 무슨 원인에서 그렇게 되셨는지는 도무지 말씀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길든스틴 그 가슴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좀 재어 보려 해도 전연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또 어떤 때에 그 진정을 자백시키려고 꺾어 보려 하면, 슬쩍 미친 사람으로 돌아가서 교묘하게 저희들을 경이원지(敬而遠之) 하십니다.

왕비 반갑게 영접은 해 주시던가?

로젠크란츠 아주 점잖게 대해 주십니다.

길든스틴 그러나 진정을 숨기고 억지로 하시는 일이지요.

로젠크란츠 자진해서 말씀은 별반 없으셨지만, 저희들이 묻는 말에는 아주 허심하게 대답하십니다.

왕비 무슨 오락으로 끌어 본 일이 있소?

로젠크란츠 중전마마, 마침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상에서 배우단을 만났기에 그 말씀을 전하께 사뢰었더니, 펍 반가워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들은 지금 대궐 안에 와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그들이 오늘 저녁 전하 앞에서 연극을 하라는 분부를 이미 받은가 봅니다.

폴로니어스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 폐하께옵서도 연극을 보시도록 신으로부터 앙청(仰請)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왕 가 보고말고, 동궁의 마음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말을 들으니 만족한다. 자, 어서들 가서 자꾸 권유해서 이런 재미나는 일로 동궁의 마음을 끌도록 노력해 보아라.

로젠크란츠 예, 그리하겠습니다. (로젠크란츠와 길든스턴 퇴장)

왕 이제는 중전도 물러가시오. 내가 슬그머니 사람을 보내어 동궁을 이리로 불렀답니다. 동궁이 여기서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오페리아와 만나게 하자는 거요. 오페리아의 부친과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탐정 노릇을 해도 몇몇하니까. 탐정으로 서서, 몰래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충분히 살펴보고, 그때의 행동거지로 미루어, 과연 동궁의 병 원인이 사랑에서 온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한단 말이오.

왕비 분부대로 하옵지요.

오페리아야, 네가 맡아 볼 일에 대해서도 한마디 부탁이 있다. 동궁의 광란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너의 아름다운 용모가 원인이 되었기를 내 진심으로 바란다만, 이번에는 너의 인격의 힘으로 어쨌든지 동궁을 다시 성한 사람으로 만들어, 두 사람의 체모가 다 서도록 하여 주기를 바란다.

오페리아 중전마마, 저도 그러기를 바라웁니다. (왕비 퇴장)

플로니어스 오페리아야, 너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라. 상감마마, 무방하시거든 숨으십시오.

(오페리아에게) 너는 책을 읽는 것처럼 들여다보고 있거라. 그렇게 책에 골몰해 있는 것처럼 꾸며 보이면, 네가 혼자서 있는 것이 그럴듯해 보인다 말이다.

우리들 인간이란, 평소에 누구나 다 경험하는 바입니다만, 이렇게 뱃속에는 마귀의 마음을 가지면서도 겉으로는 신심이 두터운 듯한 얼굴과 제법 경건한 듯한 행동으로 사탕발림을 하니, 이것이 다 죄 되는 일 이랍니다.

왕 (방백) 과연 그렇다. 네 말이 아픈 채찍처럼 내 양심을 치는구나. 화장

술로 곱게 단장을 한 창녀의 볼이 연지에 비해서 추악하다 한들, 내 소
행이 그럴 듯이 꾸미는 말에 비하여 그러한 이상으로 추악할쏘냐? 참
무거운 죄고로다!

폴로니어스 지금 오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상감마마, 숨으십시오.

(왕과 폴로니어스 퇴장)

햄릿 등장

햄릿 살아 부지할 것인가, 죽어 없어질 것인가,
 그것이 문제다.
 가혹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받고,
 참는 것이 장한 정신이냐?
 아니면 조수처럼 밀려드는 환난을 두 손으로 막아,
 그를 없이 함이 장한 정신이냐?
 죽는 일은 자는 일. 다만 그뿐이다.
 잠들면 심로와 육체가 받는 온갖
 고통을 끝낼 수 있다 할진대,
 죽음이야말로 인생의 극치되어,
 우리가 열렬히 바라 원하리라.
 죽는 일은 잠드는 일.
 잔다! 그래 꿈도 꾸겠지! 아!
 꿈을 꾸다면 문제다.
 대저 생의 굴레를 벗어나 죽음 속에 잠들 때에,
 그 어떤 꿈이 우리를 찾아올까 생각하면
 잠드는 죽음으로 발길을 내키지를 앓는다.
 그 염려가 있기에 우리 인생은
 불행을 일평생 끌고 나가게 된다.

불연이면 이 세상의 채찍과 조소를 누가 참을꼬냐?
한 자루의 단도면 그 자신을 깨끗이 청산할 수 있는데
압박자의 억울한 행사와 권세가의 무례를,
멸시받은 사랑의 쓰라림과 법률의 태만을,
관리들의 오만과 유덕한 사람이 가치 없는 자에게서
꼭 참고 받아야만 하는 발길질을, 누가 참을꼬냐?
죽은 뒤에 무엇이 올지 모르는 두려움과
나그네 한 번 가면 다시 돌아 못 오는 미지의 나라가
사람의 마음을 망설이게 하고,
아직 못 하는 저 세상으로 날아가느니,
차라리 갖은 환난을 참게끔 아니한다면,
그 누가 이 무거운 짐을 걸머지고
지루한 인생고에 신음하며 진땀을 뺀 것인가?
이래서 분별심은 우리를 모두 다 겁쟁이로 만들고 만다.
이래서 또 결심의 천연한 혈색 위에
사색의 창백한 병색이 그늘져
의기충천하던 웅도는 마침내
잡념에 사로잡혀 발길이 어긋나고
실행이라는 명색조차 묘연해진다.
가만 있거라! 어여쁜 오페리아가 오신다. 선녀님.
기도하실 때는 제 죄도 잊지 마시고 빌어 주시오.

오페리아 동궁전하, 참 오래간만입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햄릿 황송합니다. 무사태평, 태평, 태평합니다.

오페리아 전하, 저에게 보내 주신 가지가지 사랑의 예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돌려보내 드리자드리자 하면서도 이 날까지…… 지금 드리오니, 부디
받아 주세요.

햄릿 그건 받을 수 없어요.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선물한 것이 없습니다.

오피리아 아이 참, 전하도, 보내 주신 걸 뻔히 아시면서도, 그 예물들을 보내 주실 때엔 그윽한 말씀을 엮어 주셔서 그 물건들이 더욱 값지다 생각했었건만, 이제는 그 향기도 사라졌으니, 이걸 도로 찾아가세요. 마음이 맑고 고운 사람에게는 비록 호화스런 예물일지라도 보낸 사람의 정이 변했다고 생각될 때는 초라해진답니다. 어서 가져가세요. 전하.

햄릿 하하하! 당신은 정조가 굳은 여자입니까?

오피리아 네?

햄릿 당신은 얼굴이 고옵니까?

오피리아 무슨 말씀이세요?

햄릿 당신의 정조가 굳고 얼굴이 고우면 말이오, 당신의 미모가 당신의 정절에 수작을 붙이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어선 안 됩니다.

오피리아 여자의 미모와 정절처럼 서로 어울리는 천생의 연분도 또 있을까요?

햄릿 천만의 말씀이오, 정절이 미모를 자기와 같이 깨끗한 모양으로 변모시키는 일보다는, 미모가 정절을 타락시키어 음란으로 변케 하는 일이 더 쉬울 걸요. 과거에는 이것이 패설이었습니다만, 현재는 그것이 진리라는 증명이 충분합니다. 나는 과거에 과연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오피리아 사실이었습니다. 전하 하시는 일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햄릿 당신은 내 말을 믿지 않았어야 마땅했죠. 인간의 천성이라는 나무그루에 아무리 숙덕의 새 가지를 접붙인들, 우리가 그 구미를 아주 잃을 수야 있나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사실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피리아 그렇다면 제가 그만큼 더 속은 게죠.

햄릿 암자로 가시오.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사람과 붙어서 죄인들을 더 만들어 내려는 거요? 나 자신은 이래봐도 꽤 유덕한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차라리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 주지 않았더라면 하고 생각할 만큼 가지가지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있답니다. 나는 오만하고 복수심이 강하고 야심이 많은 인간이라서, 이루 머릿속에서 사상의 옷을 입히고, 사상의 형체를 붙이고, 실행의 시간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술한 죄악들

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나 같은 못된 인간이 하늘과 땅 사이에 벌레처럼 기어 다니며, 도대체 할 일이 무엇이란 말이오? 우리는 모두 다 극악한 무리입니다. 우리들의 말을 조금도 믿지 마시오. 어서 암자로 당신 길을 가시오. 당신의 아버지는 어디 계시오.

오피리아 집에 계십니다.

햄릿 아버지가 밖에 못 나오게 문을 죄다 잠가 버리시오. 내 집안에서나 못한 짓을 하지, 밖에까지 나와서 하지는 말라시오.

오피리아 아아, 천사님들, 전하를 두둔해 주옵소서.

햄릿 만일 당신이 결혼을 하신다면, 내 이런 악담을 채단 삼아 보내리다. 당신이 얼음같이 정절하고 눈같이 순결타 해도 세상의 구설은 면치 못하리다. 암자로 가십시오. 자,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혹은 또 기어이 결혼하려거든, 바보와 결혼하십시오. 영리한 사람들은 당신과 결혼을 하면 머리에서 뿔이 나올 것을 잘 알고들 있으니까요. 암자로 가시오. 어서 빨리 가시오. 그럼 안녕히.

오피리아 하늘에 계신 신령님들, 저이의 병환을 구환해 주시옵소서.

햄릿 당신네들 여인이 뒷박처럼 분칠을 하는 이야기도 잘 알고 있지요. 하느님이 주신 얼굴을 당신들은 전연 판 얼굴로 만든단 말이오. 모양을 내서 걸음걸이를 하고, 허튼 소리를 하면서 하느님이 창조하신 물건들에다 별명을 붙이기가 일수요. 방자하다고 나무라면, 그게 다 천진한 탓이라고 변명을 하죠. 어렵도 없이, 다시는 용서치 않아요. 내 그것 때문에 미쳤단 말이오. 정신 차려요. 다시는 세상 연놈들에게 결혼을 시키지 않을 테니까, 기왕 결혼한 놈들 중에서는 한 놈만 빼놓고는 모두 다 살려 두지만, 그 나머지 홀아비들은 홀아비대로 둔단 말이오. 암자로 가시오, 암자로 가. (퇴장)

오피리아 아아, 그렇게도 거룩하시던 분이 저 꼴이 되고 말다니! 공정의 안목이요, 학자의 대변이요, 군인의 검이요, 국민의 기대요, 나라의 꽃이요, 풍속의 거울이요, 예절의 모범으로서 만인이 우러러보던 그 높으시던

정신이 아주 땅에 무너지고 말았구나! 노래 곡조처럼 달콤한 그분, 가
약의 꿀만 빨아 먹고 살아오던 나는 지금 모든 여성 중에서 가장 상심
하고 비참한 여자. 아름답게 어울리는 종소리들처럼 거룩하고 장하시
던 이성의 조화는 간 곳이 없고, 마치 불종을 난타하는 듯 어지럽고 귀
아픈 소리들뿐. 한창 피어나는 꽃처럼 비할 바가 없던 그 용모는 그 자
태가 산벼락을 맞은 것을 내 눈으로 보다니! 몸쓸 내 팔자야, 옛일을
왜 보았는고! 이제 일을 왜 보는고!

왕과 폴로니어스 등장

왕 사랑 때문이라고? 쓸데없는 소리! 그 애의 모든 생각이 그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아. 그 하는 수작들이 약간 형식을 갖추지는 못했으나, 결코
미친 사람의 소리 같지는 않았다. 가슴속에 무엇인가 화근이 있는데,
우울증이 날개를 폭 내리고 앉아 있는 모양이다. 그 속에서 깨나올 병
아리들이 암만해도 위험스러운 종자들이 될까 염려다. 그런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짐이 이미 결심한 바 있어, 이렇게 정했다. 저자를 급히
영국으로 파견한다. 이유는 태과(太過)된 조공을 독촉하는 것이라 해
둔다. 수륙만리의 길을 떠나, 그 여러 색다른 풍물과 습속(習俗)을 구
경하느라 자연 그 마음속에 뭏혀서 주야로 머리를 썩히며, 마침내 실
성하게 된 원인을 풀어헤칠지도 모른단 말이야. 경의 생각은 어떠요?

폴로니어스 잘 되겠쬬. 그렇지만 신은 아직도 수심의 근원이 실연에 있다고 생각
합니다.

아, 너, 오피리아, 어떻게 여기에 오냐? 동궁전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시 일러바치지 않아도 좋다. 우리가 들었으니까.

상감마마,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그러하옵지만 말씀이오, 연극이 끝
난 뒤에 중전마마께서 조용히 태자를 앞에 부르셔다가 비탄의 곡절을
말하도록 간곡히 분부하시면 어떠실까요? 좀 노골적으로 분부하시라

쥬. 그리고 무방하시다면 신이 뒤에 숨어서 두 분 담화를 엿듣기로 하
옵쥬. 그래서도 원인을 알아낼 수 없다면 그때에는 영국으로 보내시든
가 혹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감금하심이 좋을까 생각하
노이다.

왕 그리하오. 귀인의 광증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퇴장)

제2장 궁성 안의 홀

햄릿과 배우들 등장

햄릿 대사는 내가 아까 자네에게 해 본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라고. 만약 그렇지 않고 보통 배우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웅변조로 떠들어 댄다면, 차라리 거리에 포고문을 외치며 다니는 전령사령을 불러다 내 시를 낭독시키는 것이 더 나를 곁세. 또 이렇게 손을 톱 삼아 허공만 치지 말고, 매양 동작을 부드럽게 가지란 말이오. 감정이 격화해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든가, 또는 폭풍처럼 날뛰든가, 또는 뭐라고 할까, 회오리바람처럼 일어날 때에도, 그것을 미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제심을 배워서 수시로 활용해야 한단 말이오. 머리에 가발(假髮)을 쓴 장한(壯漢)이 나와서, 수작도 되지 않는 무언극이나 그렇지 않으면 큰 소리나 쳐야 알아듣지, 그 밖에는 아무것도 이해할 능력이 없는 삼등석 관중의 귀가 찢어져라 하고 목청을 터치어 감격적인 장면을 영 망쳐 놓고 마는 꼴을 볼 때에는 참말로 화가 치밀어 올라온단 말이야. 무대에 올라와서 난폭한 회교 신 터머건트(Termagant)나 폭군 헤롯(Herod)을 한술 더 떠서 지랄을 하는 놈들은 모조리 잡아다가 불기를 때려 쥐야지. 제발 그런 짓을 말아 주게.

배우 1 맹세코 그런 일은 아니하겠습니다.

햄릿 그렇다고 너무 활기가 없어도 안 돼. 분별심을 선생 삼아 연기와 문구, 문구와 연기를 일치시켜야 하지. 특히 자연의 절도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게. 무엇이나 지나치면 연극의 목적에서 벗어나네. 연극의 목적이란 처음 생기던 때나 이제나, 말하자면 자연을 거울에 비추어 보이는 일ियो, 선에는 선한 얼굴, 악에는 악한 모양을 보여 주며, 시대의 현 단계와 사회에다 시대상과 시대적 성격을 부여해 주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지나치든가 또는 거기에 미흡하든가

하면, 서투른 관객을 웃길지는 모르나, 식견이 있는 관객은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지. 그렇게 식견 있는 한 사람의 비난은 극장에 가득 찬 관객 전체의 칭찬보다도 더 무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네. 참 내가 본 배우들 중에는—남들은 칭찬을, 그것도 대단한 칭찬을 하데만—사실은 좀 지나친 말 같으나, 그리스도교인다운 말씨도 모르고, 그리스도교인은커녕 이교인, 아니 그냥 인간의 걸음걸이도 할 줄 모르면서, 그저 무대 위에서 꺼떡대거나 하고, 고함이나 지르려면 어찌도 잘 지르는지, 자연 창조의 견습직공들이 인간을 만들 때에 얼치기로 만들었다고 생각할 만큼 꼴사납게 사람의 흉내를 내는 패들이 있어.

배우 1 저의 극단에서는 그런 결점을 상당히 철저하게 교정했다고 생각합니다만.

햄릿 암, 철저히 고쳐야지. 그리고 어릿광대로 분장하는 배우가 대본에 써 있는 이외의 대사를 말하지 않도록 해. 또 그들 중에는 둔한 관객까지도 웃기려고 자기가 먼저 웃어 보이는 패들도 있는데, 그들은 웃고 있는 동안에 연극에 필요한 점을 머릿속에서 생각해 뒤야 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거든. 아주 못된 버릇이야. 그런 웃음을 파는 바보의 뱃속에는 아주 치사한 야심이 있다는 것이 뻔히 들여다보이지. 자, 가서들 준비하게. (배우들 퇴장)

폴로니어스, 로젠크란츠, 길든스턴 등장

이거 참 영감님이 오시는군. 상감께서 관극하신다고요?

폴로니어스 중전마마께서도 보시겠답니다. 곧 시작하라 분부하십니다.

햄릿 그러면 영감이 가서 재촉해 주시오. (폴로니어스 퇴장) 자네들도 가서 좀 거들어 주게.

로젠크란츠 }
길든스턴 } 네, 분부대로 하옵겠습니다. (로젠크란츠와 길든스턴 퇴장)

호레이쇼 등장

햄릿 어어, 호레이쇼, 자네 참 잘 왔네.

호레이쇼 전하의 분부를 기다립니다.

햄릿 내 여러 사람을 만나 이야기도 해 보았지만, 자네만큼 정직한 인간은 없어.

호레이쇼 전하께서는 별 말씀을 다—

햄릿 아니, 내가 아첨한다고는 생각지 말게. 자네는 의식의 방도라고는 타고난 좋은 성품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러한 자네에게서 내가 무슨 출세의 기회를 바랄 것인가? 그러한 사람에게 아첨할 필요야 없지 않나? 아닐세. 달콤한 햇바닥을 가진 놈은 가서 권세를 자랑하는 멍텅구리나 훔아 주고,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무르팍 집철을 가진 놈은 아침에 이득이 따라옴직한 데 가서 무릎을 꾸부리면 그만이지, 알아듣겠나? 내 영혼 속에 스스로 분별하는 지각심이 생겨서 인간의 고하를 가릴 줄 알게 된 때부터 나는 자네를 꼭 내 사람으로 마음속에 정해왔네. 자네만은 이 세상에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인 양, 운명의 고락을 꼭 같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네. 정열과 의지가 그렇게도 화합해서, 운명의 손가락이 노는 대로 탄 소리를 내는 통소가 되지 않는 사람은 참 이 세상에 타고난 사람일세. 정열의 노예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마치 자네와 같이 내 마음속 깊은 속에 차고 다니려 하네. 내 말이 좀 장황해진 것 같으니. 오늘 밤 어전(御殿)에서 연극이 상연되는데, 그중의 한 장면은 내가 선친의 최후에 대해서 자네에게 설명하던 그때 장면과 흡사하네. 연극을 해 나가는 도중에 그 장면이 나오거든 자네의 모든 충기를 모아 가지고 내 숙부의 눈치를 살펴봐 주기 바라네. 만일 숙부의 숨은 죄악이 어느 대목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본 것은 엉터리 귀신이 분명하고, 따라서 내 심안(心眼)은 화신(火神) 불칸(Vulcan)

의 대장간처럼 흐렸던 썸이지. 숙부의 일거일동을 주의해서 살펴 주게. 나도 두 눈을 그 얼굴에서 잠시도 떼지 않고 있을 테니, 나중에 우리들의 의견을 합쳐서 그의 태도를 판단해 보세.

호레이쇼 잘 알았습니다. 연극하는 도중에 만약 숙부님께서 조금이라도 내 눈을 속이는 일이 있다면 제가 그 값을 하지요.

햄릿 지금 연극을 구경하러들 나오시네. 나는 시치미를 떼야지. 자네도 가서 자리에 앉게.

텐마크 행진곡. 나팔 소리.

왕, 왕비, 폴로니어스, 오펔리아, 로젠크란츠, 길든스톤, 기타 등장

왕 조카님, 자미(滋味)가 어떠신고?

햄릿 맛이 그만입니다. 카멜레온 일등 요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기만 마시고 살죠. 속에는 약속만 가득 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런 빈탕을 가지곤 답도 못 칠 걸요.

왕 동문서답이로구나. 내 말과는 상관없는 말들이다.

햄릿 네, 이제는 입 밖에 나갔으니까, 제 말도 아닙니다. (폴로니어스에게) 영감께서는 대학시대에 연극을 하셨다고요?

폴로니어스 네, 했습니다. 훌륭한 배우로 지목받고 있었습니다.

햄릿 무슨 역할을 맡아 보았나요?

폴로니어스 줄리어스 시저를 했죠. 그래서 수신전(首神殿, 카피톨—Jupiter Capitolinus temple)에서 암살을 당했답니다. 저를 죽인 놈은 부루투스죠.

햄릿 그런 미련한 수신(獸身)을 찢러 죽이다니, 그놈 인면수심(人面獸心)이로군.

배우들은 다 준비가 되었는가?

로젠크란츠 네, 전하의 분부만 고대하고들 있습니다.

왕비 동궁, 이리 와서, 내 곁에 앉으시오.

햄릿 아뇨. 강한 지남철이 여기 있습니다.

플로니어스 (왕에게) 호오, 호오. 인제 그 말을 들으셨습니까?

햄릿 아씨 품 안에 누워 볼까요? (오필리아의 무릎에 기대고 발밑에 눕는다)

오필리아 아이 참, 전하도.

햄릿 내가 말하는 건 머리만 품 안에 둔단 말씀입니다.

오필리아 그건 좋아요.

햄릿 그러면 제가 무슨 무식한 행동이라도 할 줄 아셨던가요?

오필리아 아뇨. 별 생각 없었어요.

햄릿 처녀 가랑이 속에 눕는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참 기막힌 생각인데요.

오필리아 무엇이 말입니까?

햄릿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필리아 오늘 밤은 꽤 기분이 좋으신데요?

햄릿 누가? 내가?

오필리아 네, 전하께서.

햄릿 그야 그럴 테죠. 당신의 돌도 없는 광언시인(狂言詩人)이니까요. 인간 된 자 모름지기 기분이 좋지 않고 어이할쏘냐 말씀이오. 자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의 저 희색만면(喜色滿面)하심을.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는 두 시간도 못 된다고.

오필리아 아니죠. 두 달의 갑절도 됩니다.

햄릿 벌써 그렇게 됐나? 그렇다면 상복은 악마에게나 주고, 나는 곧 수달피 옷이라도 입어야겠군. 벌써 두 달 전에 죽었는데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다가는 위인의 기억이 반년은 살아 있을 희망도 충분한 걸요. 아 참, 그러자면 교당(教堂)을 지어야지. 그러지 않아서는 이랴, 저랴 말(木馬)과 같이 잊어지고 말테니까. 그 말 무덤 비석에 뭐라고 써어 있는지 아시오?

“이랴 말! 저랴 말! 이랴 저랴 잊어졌다.”

오보에(hautboy—oboe)를 부는 소리. 무언극 배우들 등장

왕과 왕비가 다정스럽게 들어 와서 서로 껴안는다. 왕비가 꿇어앉고 왕을 열렬히 사랑하는 척하는 동작을 해 보인다. 왕은 왕비를 일으켜 앉히고 그의 어깨에다 머리를 기대인다. 꽃이 만발한 두단에 눕는다. 왕이 잠든 것을 보고, 왕비는 자리를 떠난다. 얼마 아니 있다가 한 사나이가 나온다. 왕관을 벗기어 키스를 하고, 왕의 두 귓속에도 독약을 넣고 퇴장한다. 왕비가 돌아온다. 왕이 죽은 것을 보고 비탄하는 동작을 취한다. 독살한 사나이는 두세 명의 무언극 배우를 데리고 다시 나온다. 왕비와 함께 비탄하는 모양, 시체를 들어 내간다. 독살한 사나이는 예물을 왕비 앞에 내놓고 사랑을 구한다. 왕비는 처음에는 싫어서 말을 안 듣는 체하다가 승낙한다. (퇴장)

오페리아 동궁전하, 이 연극은 무슨 의미입니까?

햄릿 이제 비밀한 범죄 행위란 겁니다.

오페리아 아마도 그것이 오늘 밤 연극의 내용을 암시하는 모양이죠?

서막 배우 등장

햄릿 저자의 말을 들어 보면 알 테죠. 배우들은 비밀을 숨겨 두지는 못합니다. 있는 대로 죄다 관객 앞에서 말해 버리니까요.

오페리아 그러면 아까 나온 무언극의 의미도 설명해 줄까요?

햄릿 암, 해 주죠. 그뿐이겠습니까? 당신이 배우에게 내보이는 건 무엇이나 설명해 주죠. 당신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보이면, 배우는 서슴지 않고 설명해 줍니다.

오페리아 아이, 망측스런 소리도 다 하셔. 난 연극이나 보고 있겠어요.

서막 배우 저의 극단 일동을 대표하여 여러분 앞에 백배 사례하옵고, 이제부터 나오는 비극을 끝까지 조용히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퇴장)

햄릿 이게 서막인가, 반지의 명(銘)인가?

오�필리아 너무도 짧은데요.

햄릿 여자의 사랑처럼.

왕과 왕비로 분장한 두 명의 배우 등장

배우 왕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을 합하고, 결혼 신 히멘(Hymen)이 우리들의 손을 마주 매어 신성한 백년가약을 맺어 준 날부터, 해님의 수레바퀴가 해신의 바닷길과 자신의 둥근 땅을 굴러가기를 꼬박이 서른 번, 열두 번을 서른 곱절 해서 반사의 달님이 지구를 돌기를 서른 번에 열두 곱절.

배우 왕비 우리의 사랑이 끝나기 전에 해님이 또다시 그만한 횡수를 돌기를 축수합니다. 그렇지만 요새 상감께서 병환이 나시어, 평소에 유쾌하신 기상과 예전의 굳건하시던 모양을 보옵지 못하오니 저의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이렇게 가슴속에 두려움을 품는다 해서 언짢게 생각하시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자의 공포심과 애정은 상반되는 것, 애정이 없으면 공포심도 없고, 애정이 크면 공포심도 큼니다. 저의 사랑이 얼마만한가는 지내보셔서 아신테이고, 저의 애정이 크니만큼 공포심도 큼니다. 애정이 큰 사람에게는 사소한 염려도 공포심이 되고, 공포심이 커지면 사랑도 커집니다.

배우 왕 진정으로 내 사랑 왕비여, 그대를 버리고 가야 할 나의 운명, 그 운명도 멀지 않았소. 내 모든 신체 능력이 그 활동을 정지하였소이다. 그러면 당신 혼자 이 아름다운 세상에 남아서 만백성의 경애를 받으며 사시오. 그리고 요행 나만큼이나 친절한 남편을 만나—

배우 왕비 아이고 창피야! 나머지 말씀은 입 밖에 내시지도 마세요. 그런 사랑이 제 가슴속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필연코 변절이올시다. 개가(改嫁)를 할 바에야 차라리 이 몸이 지옥에 떨어지이다. 먼저 낭군을 죽인 여자가 아니고서야 어찌 두 번째 낭군을 맞이하리오?

햄릿 (방백) 아, 쓰다! 쓰다!

배우 왕비 개가로 마음이 내키는 동기는 더러운 물욕이지, 결코 사랑은 아닙니다. 두 번째 낭군이 잠자리에서 나의 입술을 맞출 때에, 나는 돌아가신 낭군을 두 번 죽이는 셈입니다.

배우 왕 당신은 지금 말하고 있는 그대로 생각하고 있다고 진정으로 믿으오. 하지만 우리들 인간은 마음에 굳게 정한 바를 스스로 깨친다오. 지개(志概)는 기억의 노예에 지나지 않는 것. 날 때의 기세는 장하나 계속되는 힘은 약하오. 지개는 선과일처럼 나무에 매달려 있지만 익으면 사람이 흔들지 않아도 저절로 떨어진다고. 내 자신에게만 빛이 되는 일을 스스로 갇기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인정의 필연. 열정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약정한 일은 열정이 끝나자 그 결심을 잊어버리오. 슬픔이나 기쁨이나 힘이 강할 때에는 저절로 불이 꺼지면서 스스로 정했던 결심의 실행도 자취를 감추고 마오. 기쁨이 가장 날뛰는 자리에서 슬픔은 가장 한탄하는 법이니, 사소한 사유만 있어도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고, 기쁨은 슬픔으로 변하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니 우리의 사랑까지도 우리의 운명과 더불어 변한다는 것은 괴이한 일이 아니오. 과연 사람이 운명을 어거(馭車)하느냐, 운명이 사랑을 어거하느냐, 그것은 아직도 미해결로 남아 있는 인생 문제이오. 위인이 쓰러지면 생전에 애고를 받던 무리가 송사리 떼처럼 산지사방(散之四方)하는 꼴을 볼 수 있으며, 미천한 사람도 출세하면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거요. 현재까지는 사랑이 운명의 종인 것이 사실이며, 다시 친구의 필요가 없는 사람은 친구가 모자라서 탈이 없는데, 친구의 필요가 절실한 사람은 설부른 친구를 만지작거리다 도리어 그 자리에서 원수로 익히고 마는 법이오. 그러나 우리 이야기 첫머리로 돌아가서 추려 말한다면, 우리의 뜻과 운명이 하나는 동(東)으로, 하나는 서(西)로 달리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은 항상 뒤집혀진다는 거요. 내 마음은 내 것이지만, 운명의 목표는 내 알바가 아니오. 그러하매 당신은 지금 두 번째 낭군을 맞이하지 않으려 생각하지만, 첫 번 낭군이 죽는 날에 당신의 마음도 죽는단 말이오.

배우 왕비 설령 땅은 음식을 주지 않고, 하늘은 광명을 주지 않을지언정, 낮이 오락을

막고 밤이 휴식을 막는다 할지언정, 신뢰와 희망이 절망으로 변할지언정, 옥중에서 은사(隱士)가 먹는 음식을 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진미로 생각하게 된다 할지언정, 기쁨의 얼굴을 실색케 하는 가지가지 재앙이 내 축수하는 모든 소원과 만나 이를 망칠지언정, 영원의 투쟁이 현세와 내세에 내 뒤를 쫓을지언정, 일단 과부가 된 이 몸이 다시 아내가 되리오?

햄릿 저 맹세가 이제 깨지는 날이면—?

배우 왕 참 굳은 맹세로다. 사랑하는 왕비여, 잠시 물러가시오. 머리가 흐릿해집시다. 한참 자고 나면 지루한 이날이 개운해질까 합니다. (잠든다)

배우 왕비 고이고이 잠드소서. 우리들 사이에 꿈에도 재앙이 오지 마옵기를! (퇴장)

햄릿 중전마마, 연극이 맘에 드십니까?

왕비 여자가 좀 수다스러운 것 같으오.

햄릿 예, 그렇지만 약속대로 실행할 걸요, 뭐.

왕 너는 연극 내용을 들었느냐? 연극 속에 무슨 난폭한 데나 없느냐?

햄릿 아뇨. 그저 야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독설로 사람을 죽이는 셈이죠. 사실 난폭한 행동은 전혀 없습니다.

왕 연극의 제목을 뭐라고 하느냐?

햄릿 <쥐 뒷>이라고 합니다. 어쩌서 그렇게 부르느냐고요? 물론 비유입죠. 이 연극은 비엔나에서 생겨난 암살 사건을 그대로 그려 낸 것입니다. 그 영주의 이름은 곤자고라 하고, 부인의 이름을 뱍티스타라 합니다. 이제 곧 아실 겁니다. 대단히 고약한 내용입니다. 뭐 그렇지만 상관있어요? 폐하나 저희들처럼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도둑놈 제 발이 절이고, 죄를 지은 놈은 다리를 오므리고 잔다지요.

루시아너스 등장

이건 루시아너스라고 하는 영주의 조카입니다.

오피리아 전하는 꼭 코러스처럼 해설을 씩 잘 하세요.

햄릿 인형극에서 정남 정녀가 나와서 수작을 부리는 걸 보면, 내 당신과 당신 애인의 관계를 해설할 수 있죠.

오피리아 아이, 입도 사나우세요.

햄릿 제 사나운 뿔을 빼자면, 아마도 아씨가 으응 소리를 질러야 할 걸요.

오피리아 점입가경(漸入佳境)이라더니, 점점 험해지는군요. 좋거나 그르거나.

햄릿 그 식으로 여자들은 남편을 맞이해야 하는 겁니다. (배우들에게) 시작해라. 이 사람 백장놈! 이 엠병할 놈아, 얼굴만 찡그리고 있지 말고, 빨리 연극을 시작해! 자! “까마귀가 깹깹 복수를 부르짖는다”서부터 시작해.

루시아너스 마음은 검고, 손은 재빠르고,

약은 강하고, 때는 알맞다.

하늘이 나를 도와 보는 자 없다.

밤중에 약초를 캐어다가,

세 번 헤카테(Hecate)의 주문 속에 말리고,

세 번 독기를 씌어서 만든 독약.

자연의 마력과 무서운 약효를 합하여

빨리 건전한 생명 속으로 숨어들어라.

(독약을 잡자는 사람 귓속에서 뱉는다)

햄릿 저 조카 놈은 왕의 지위를 빼앗기 위해서 금원 안에서 왕을 독살합니다. 왕의 이름은 곤자고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현재까지 전해 내려와서 훌륭한 이탈리아 말로 저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 살인범이 곤자고의 아내에게서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오피리아 상감께서 자리를 일어나십니다.

햄릿 제기랄! 공포에 놀랐는가?

왕비 상감마마, 어찌신 일입니까.

플로니어스 연극을 중지하라!

왕 등불을 가져오너라. 나가려다.

모두들 등불, 등불, 등불! (햄릿과 호레이쇼만 남고 모두 퇴장)

햄릿 살에 맞은 사슴은 물러가고
성한 암사슴은 춤을 추어라.
밤을 새는 نوم 잠을 자는 نوم
세상만사 여자 여자.
이렇게 한 곡조 빼고, 옷에다 새 깃이나 잔뜩 달고—일후에 내 팔자가
기구해지면 말이야—큼직한 장미꽃 리본이나 두어 개 샌들 코에다 달
고 나서면, 어때? 나도 극단에 한몫 킬 수 있지 않은가?

호레이쇼 반쯤짜리는 되지요.

햄릿 몽땅 한몫이야, 적어도 본인인데.
그대는 알지, 사랑하는 데이몬이여,
이 나라는 조브(Jove)를 빼앗기고
왕으로 들어앉은 نوم은
괴악 망칙한 공작새로다.

호레이쇼 운을 났었다라면 좋았을 걸요.

햄릿 그런데 참, 호레이쇼, 이제는 그 혼령의 말이라면 만 냥을 주고라도 사
겠어. 자네 봤나?

호레이쇼 예, 상감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햄릿 그 독살 대목이 나올 때에도?

호레이쇼 예, 잘 보았습니다.

햄릿 아하 아! 자, 음악이다! 자, 피리다!
임금님은 희극이 싫으시단다.
싫다면 정말 싫으신 게지,
자, 애들아 풍악을 치라!

로젠크란츠와 길든스틴 다시 등장

- 길든스톤 전하, 황송하옵니다만, 한마디 사죄하겠습니다.
- 햄릿 한 마디 아냐, 천만 마디라도 듣지.
- 길든스톤 상감마마께서—
- 햄릿 그래, 상감마마가 어찌하셨단 말이냐?
- 길든스톤 입전하신 후로 몹시도 기분이 어지러우십니다.
- 햄릿 왜 술 탈이냐?
- 길든스톤 아니올습니다. 화가 나셨습니다.
- 햄릿 그건 시의한테 가서 보고하는 것이 영리할 텐데. 화병에는 토설제(吐瀉劑)가 좋은데, 만일 내가 토설(吐瀉)시키려고 한다면, 점점 더 화가 나실 걸.
- 길든스톤 황송하옵니다만, 요긴한 말씀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마시고, 좀 조리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 햄릿 가만히 앉드려 듣는다. 어서 말해라.
- 길든스톤 중전마마께서 대단히 걱정을 하시어 저를 보내셨습니다.
- 햄릿 잘 오셨네.
- 길든스톤 그 인사 말씀은 이 자리에 온당치 않으신 줄 아옵니다. 죄송하옵니다만, 사리에 해당하는 대답을 해 주시면, 중전마마의 분부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시면 저는 하직하옵고, 돌아감으로써 이 일을 끝낼까 하옵니다.
- 햄릿 난 할 수 없다.
- 길든스톤 전하, 무슨 말씀이십니까?
- 햄릿 너에게 똑똑한 대답을 할 수 없단 말이다. 내 머리가 돌았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이라면 언제든지 소원대로 해 주지. 다시 말하면 네 말마따나 중전 소원대로 해 드리지. 그러니까 긴소리 말고, 용건을 말해라. 그래 중전마마께서 어쨌다?
- 로젠크란츠 그러면 사죄하겠습니다. 중전마마 말씀이 전하의 행동이 당돌하시어 매우 놀라셨다 하십니다.

햄릿 기특한 자식이로군. 어머니를 경탄케 하니, 그러나 중전께서 놀라신 뒤 끝에 무엇이 달려 있지 않니? 말해라.

로젠크란츠 전하, 주무시기 전에 침전에서 조용히 말씀하시겠다 하십니다.

햄릿 열 곱절만 내 어머니가 되신다면 짐이 복종하겠노라 여쭙어라. 그 이상 또 내게 무슨 용건이 있느냐?

로젠크란츠 전하께서 이전에는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햄릿 인제도 사랑한다. 버릇이 나쁜 이 두 손에 걸어서 맹세한다.

로젠크란츠 제발 동궁전하! 그렇게 화를 내시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불쾌하신 심중을 친구에게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전하 스스로가 회중에서 빠져 나올 길을 막아 버리는 겁니다.

햄릿 사실은 출세할 기회가 없어 그러는 걸세.

로젠크란츠 그게 될 말씀입니까? 전하를 덴마크 왕의 후계자로 천거하신다는 상감마마의 말씀이 계셨는데.

햄릿 아, 그야 그렇지. 하지만 “풀이 자라는 동안에—.” 이 속담도 어찌 김이 빠졌다.

배우들이 피리를 가지고 다시 등장

아아, 피리가 왔구나, 어디 나도 하나 다오.

저리 잠깐 가자. 너 어째서 나를 자꾸 몰아세우는 거냐? 마치 내게다 올라가더라도 씹으려는 것처럼.

길든스턴 죄송합니다. 직책상 제가 하는 일이 좀 지나칠지는 모릅니다만, 그건 다 전하에 대한 저의 애정에서 나오는 무례한 행동이라고만 널리 생각해 주십시오.

햄릿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들을 수 없다. 이 피리나 불어 다오.

길든스턴 죄송합니다. 피리는 불 줄 모릅니다.

햄릿 제발 부탁이다.

길트스텐 참말 불 줄 모릅니다.

햄릿 제발 빈다.

길트스텐 참말, 피리는 손도 댈 줄 모릅니다.

햄릿 뭘, 거짓말하는 것보다 어렵지 않지. 이 구멍들을 손가락으로 막고, 주둥이로 바람만 불어 넣으면 도도한 음악이 나온다. 잘 봐. 이것들이 구멍이야.

길트스텐 그렇지만, 그 구멍들을 조절해서 조화로운 음악을 낼 줄을 모릅니다. 그 기술이 없어서요.

햄릿 그렇다면 이놈아, 너는 도대체 나를 뭐로 생각하고 있는 거냐? 너는 내 구멍수를 잘 알아서 내 마음속에서 비밀을 빼내고, 열은 데서 높은 데까지 내 심금을 울려 보아, 나를 피리 삼아 놀려 보려는 모양이지. 이 조그만 악기 속에는 기가 막힌 음악 소리가 무진 들어 있다. 그러면 서도 너는 이 피리에는 발음시킬 줄을 모른다! 이 경칠 놈아, 나를 이 피리보다도 불기 쉬운 물건으로 알았더니! 네가 나를 피리라 부르는 건 좋다. 하지만 내게 화를 내게는 해도 소리를 내게는 못 할 거다.

플로니어스 등장

영감, 안녕하십니까?

플로니어스 전하, 중전마마께서 전하와 좀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곧 오시라 하십니다.

햄릿 저기 있는 저 약대같이 생긴 구름이 보이십니까?

플로니어스 참, 꼭 약대 모양이군요.

햄릿 내게는 족제비같이 보이는데?

플로니어스 참, 등 모양이 족제비 같습니다.

햄릿 아니, 고래같지 않나?

플로니어스 아 참, 꼭 고래 같습니다.

햄릿 그럼 곧 가 뵈웁는다고 아뢰시오.
(독백) 이놈들, 분통이 터지게 나를 우롱하러 든단 말이야.
(높은 소리로) 가 뵈웁는다고 아뢰시오.

폴로니어스 말씀대로 사죄겠습니다.

햄릿 곧 가 뵈웁는 거쯤, 어렵지 않은 일이다. (폴로니어스 퇴장) 자, 이제는 나 혼자 있고 싶으니, 다들 물러가시오. (햄릿만 남고 모두 퇴장)
지금은 마녀들이 놀아나는 정 밤중, 무덤들이 아가리를 벌리어, 지옥이 이 세상에 독기를 내뿜는다. 아 뜨거운 피를 마시고, 낮에 보면 사지가 떨릴 만한 무시무시한 일이라도 할 것 같다. 자! 이제는 어머니한테 가 봐야 하겠다. 마음아, 천륜의 정을 잃지 말라. 네로(Nero)의 정신은 착실한 내 가슴속에 절대로 못 들어온다. 가혹한 일을 할지언정, 천륜에 벗어나는 일은 말자. 혀끝을 단도 삼아 내 어머니의 가슴을 찌르리라만, 단도를 쓰지는 않으려다. 이 문제에 한해서는 내 영혼이 내 헛바닥에 대하여 위선자가 된다 해도 무가내하다. 거친 말로 어머니를 책망한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이여, 그 말들을 실행하는 데 동의하지 말라. (퇴장)

제3장 궁성 안의 한 방

왕, 로젠크란츠, 길든스틴 등장

왕 내 그 꼴이 보기 싫다. 또 광한(狂漢)이 날뛰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본다는 것은 우리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좋지 못한 일이다. 그러므로 준비들을 하여라. 너희들의 임명장은 곧 차출(差出)할 테니, 동궁을 데리고 영국으로 건너가거라. 시시로 그 광증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신변에다 두고도 태평할 만큼 지금 국정이 안온하지는 못하다.

길든스틴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폐하께 목숨을 매고 사는 만백성의 안전을 보호해 주자 하심은, 거룩하시고 세심하신 성령이신가 하옵니다.

로젠크란츠 사사로운 한 개인일지라도, 자기 생명이 위해를 면하도록 모든 정신력으로 무장을 하고 보호해야 한다 함은 당연한 일이옵거늘, 하물며 무수한 생명이 오로지 그 안태에 달려 있는 옥체로서야 다시 이를 말씀하겠습니까? 지존의 붕어(崩御)는 옥체 한 몸에 그치는 것이 아니오며, 마치 소용돌이와 같아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끌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높은 산봉우리에 장치되어 있는 거대한 수레바퀴. 그 큰 살들에는 무수한 잔 것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 수레바퀴가 굴러 떨어질 때에는 작은 부속물 하나하나가 다 같이 따라서 요란스런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려옵니다. 지존이 한 번 탄식하시면 반드시 만백성이 신음을 하게 됩니다.

왕 어서 어서 준비들을 해서 빨리 떠나도록 하여라. 이 걱정거리가 지금 제멋대로 꼬리를 치고 다니니, 발목을 비끄러매 두려 한다.

로젠크란츠 } 그리 하옵겠습니다. (로젠크란츠와 길든스틴 퇴장)
길든스틴 }

폴로니어스 등장

폴로니어스 상감마마, 지금 동궁전하께서 중전마마 침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저는 방장(房帳) 뒤에 숨어서 두 분의 이야기를 엿듣기로 하겠습니다. 중전마마께서는 필시 단단히 걱정을 하실 것입니다. 상감마마 말씀대로, 참 지당하신 말씀이온데, 중전마마 외에 딴 사람이 숨어서 엿듣는 것이 좋을 줄 아옵니다. 어머니의 정이라, 자연 아드님에 대해서는 생각이 치우칠지도 모르니까요. 상감마마께서 침전에 드시옵기 전에 배알 하옵고 탐문한 바를 세세히 아뢰겠습니다.

왕 어, 수고하오. (폴로니어스 퇴장)

아아, 나의 몸을 죄행(罪行), 그 악취가 하늘을 찌른다. 형제를 죽인다는 인류 최초의 저주를 받았다. 기도하고 싶은 심정과 기도하자는 결심이 간절하다만, 기도를 드릴 수가 없구나. 기도하고 싶은 심정은 강하나, 나의 죄악은 더 강해서 눌러우고 만다. 두 일에 다리를 걸친 사람과 같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두 일 다 못 하고 만다. 설사 이 저주받은 내 손이 형의 피로 두꺼워졌다 할지라도, 홍은(鴻恩)이 무변하신 하늘에 이 손을 눈처럼 희게 씻어 줄 비는 없는가? 죄상과 면대해서 이를 물러가게 못 한다면, 하느님의 자비는 무삼 공덕이라 할꼬? 우리가 쓰러지려 할 때에 미리 부축해 주고, 또 일단 쓰러진 뒤에는 용서해 주는 이 중의 공덕이 없다면, 기도는 드러 무엇할꼬? 그렇다면 나도 희망의 눈을 들어 우러러보겠다. 내 죄과는 이미 지나간 일이다. 그렇지만, 아아, 어떤 형식의 기도를 드러야만 내 경우엔 꼭 알맞을까? “저의 비열한 살인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까? 그건 안 될 말이다. 나는 나의 살인죄에서 얻은 바 이득—나의 숙망이었던 왕관과 왕비를 아직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가? 죄의 결과를 보존하면서 죄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세상 타락 속에는 범죄자의 황금 마수가 법률을 밀어젖히고 범죄를 얻은 바로 그 금력으로 법률을 매수하는 것쯤, 식은 밥 먹기다. 그러나 이런 것은 하느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하느님의 심판석 앞에서는 회피할 도리가 없고, 죄

행은 그 본체를 들어내놓고야 만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죄상에 대하여 일일이 증거를 바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앞으로 할 일은 무엇이랴? 회개의 힘으로 어떻게 해 보자. 회개해서 못 할 일이 있으랴? 그러나 사람이 회개할 수 없을 때는 회개가 무슨 힘이 있으랴? 아아, 처참한 이 꼴, 나의 가슴은 죽음처럼 꺼땀다. 새털에 걸려든 나의 영혼,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늘어붙는다. 천사님들 도와주소서! 힘을 내소서! 이 완고한 무릎아, 꾸부러지려 무나! 강철사로 버티어 놓은 심장아, 갇난아이 힘줄처럼 부드러운지려 무나! 만사형통하기를! (물러가 무릎 꿇는다)

햄릿 등장

햄릿

지금 저자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이니까, 이제 실행하면 알맞게 해 치울 수 있다. 자, 해 버리자. 그러면 저자는 천당으로 가고, 나는 원수를 갚는다. 하지만, 그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다. 악한이 내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 앙갚음으로 외아들 내가 그 악한을 천당으로 보내? 그것은 그에게 원수를 갚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그에게서 사례를 받아야 할 품 일이다. 그는 나의 아버지가 품비한 가운데 정력이 왕성하여 마치 오월 달처럼 방장한 혈기를 갖춘 죄업이 만발하던 때에 별안간 달려들어 목숨을 빼앗아 갔다. 그러니 내세에 가서 아버님 공적의 셈이 어떻게 될는지, 하느님밖에는 누가 알랴? 그러나 우리가 이모저모 굴려 생각해 볼 때에, 아버님의 지신 빛은 중하다. 그런데 저자가 영혼을 말갭게 씻어 지금 천당으로 가기 꼭 알맞게 된 이때에 저자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그것이 과연 나의 복수가 될 수 있을까? 아니다! 칼이여, 네 집으로 돌아가거라. 좀 더 무서운 기회를 알아차리라. 저자가 술이 취하여 자고 있을 때나, 혹은 성을 내고 있을 때나, 혹은 상피 자리에서 음욕을 탐하고 있을 때나, 혹은 노름할 때와 폭언할 때에, 또는

기타 전연 구원의 여지가 없는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때에, 그럴 때에
길을 떠나보내라. 그러면 그는 뒷발로 하늘을 걷어차면서 그 영혼은
어차피 찾아가는 지옥처럼 캄캄해서 굴러 떨어지리라. 어머니가 기다
리고 계시다. 이 의사는 너의 생명을 살려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병
고를 연장시킬 뿐이다. (햄릿 퇴장)

왕 (일어서면서) 내 말은 허공으로 날아가지만, 마음은 지상에 그대로 남는
다. 맘 없는 말이 천당에 가지는 못한다. (퇴장)

제4장 왕비의 침실

왕비와 폴로니어스 등장

폴로니어스 동궁이 곧 오실 겁니다. 단단히 꾸중을 하셔야 합니다. 장난이 너무 지나쳐서 이 이상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말씀, 그리고 중전마마께서 새에 드셔서 겨우 상감마마의 역정을 막아 내셨다는 말씀을 하십시오. 저는 곧 여기에 숨겠습니다. 제발 털어놓고 말씀하십시오.

햄릿 (안에서) 중전마마! 중전마마! 중전마마!

왕비 염려 마오.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돌아가오. 동궁 오는 소리가 들리오. (폴로니어스 방장 뒤에 숨는다)

햄릿 등장

햄릿 중전마마 무슨 일이십니까?

왕비 동궁, 동궁은 그대 아버님에 대해서 대단히 불측스런 일을 했소.

햄릿 중전마마, 당신은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 대단히 불측스런 일을 했습니다.

왕비 이보. 동궁은 객쩍은 입을 놀리는 거요.

햄릿 저봐요. 중전마마는 악한 입을 놀리고 있습니다.

왕비 동궁, 그게 무슨 말이오?

햄릿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왕비 동궁은 나를 잊었는가?

햄릿 아니올시다.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왕비이며, 당신의 남편의 동생의 아내이십니다. 그리고 또—그렇지 않기를 오죽이나 바라겠습니까만—저의 어머니올시다.

왕비 아니, 그래? 정히 그렇다면 내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다 앓힐 테야.

햄릿 자, 앉으십시오. 꿈작도 못하십니다. 제가 들어 대는 거울 속에서 당신의 깊은 창자 속을 똑똑히 보실 때까지는 이 자리를 뜨시지는 못합니다.

왕비 나를 어찌려는 거요? 설마 죽이려는 것은 아니겠지? 사람 살려라, 사람 살려라, 여봐라!

폴로니어스 (뒤에서) 어어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햄릿 (검을 빼 들고) 예, 이건 뭐냐? 쥐새끼냐? 죽었다! 꿈작 없이 죽었다! (방장 속으로 칼을 찌른다)

폴로니어스 (뒤에서) 찢렸다! (쓰러져 죽는다)

왕비 아이고머니! 이게 무슨 짓이냐?

햄릿 저도 모르겠습니다. 왕입니까?

왕비 이게 무슨 경솔하고도 참혹한 짓이란 말이오?

햄릿 참혹한 짓! 착하신 중전마마, 왕을 죽이고 그 왕의 아우와 결혼하는 짓만큼이나 악한 일입니다.

왕비 왕을 죽였다?

햄릿 네, 틀림없죠. (방장을 찢히고 폴로니어스를 발견한다)

이 지지리 못한, 경망스런 감초 같은 천치 바보야! 잘 가거라! 나는 너를 너의 상전으로 알았구나, 네 팔자다. 너무 다사스려우면 간혹 위험한 일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지?

그렇게 손만 쥐어짜지 마시고, 진정해서 앉으십시오. 제가 당신 마음을 쥐어짤 테니. 만약 당신의 마음이 돌이나 쇠가 아니라면, 만약 그것이 괴악망측한 습관에 주석(朱錫) 때가 올라서 인간다운 감정이 전연 뚫고 들어갈 수 없게 무감각해지지 않았다면, 제가 쥐어짜 드리지요.

왕비 동궁이 그렇게 함부로 입을 놀려 내게 욕설을 하니, 그래 내가 무슨 행동을 했단 말이오?

햄릿 참 기막힌 행동입죠. 꽃도 낮을 불힐 정숙한 여자의 맑은 얼굴에다 흠칠을 하고, 덕이 있는 여자를 위선자라 부르게 하고, 천진난만한 사랑

의 동신(童身) 이마에서 장미꽃을 떼 버리고, 그 대신 천부(賤婦)의 화인(火印)을 찍어 놓으며, 혼인의 서언(誓言)을 노름꾼의 장담처럼 거짓 되게 하는 행동입니다. 백년가약이라는 말에서 정신을 빼 버리고, 달가운 종교를 한낱 언어의 광상곡으로 만드는 행동입니다. 하늘도 격분하여 낮을 붉히고 이 반석 같은 대지도 그 행동을 보고 마치 최후 심판 날이나 당한 것처럼 상심해서 슬픈 표정을 띠웁니다.

왕비
햄릿

서막부터 그렇게 요란히 울리는 이 연극은 대체 무슨 행동의 연극이오?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다음에는 또 이 그림을 보십시오. 두 형제분의 초상화입니다. 보십시오. 이 그림에 나타나 계신 분의 미목이 얼마나 수려한가를. 히페리온(Hyperion)의 물결치는 머리카락, 바로 조브 그대로의 얼굴 모습, 주위를 위압하는 군신 마르스의 눈, 하늘과 입을 대는 산봉우리에 갓 내려앉은 전령신(傳令神) 머큐리(Mercury)와 같은 자세, 모든 덕을 한 몸에 지닌 조합(調合)의 화신, 모든 신이 도장을 쳐서 이거야말로 남아의 모범이라고 이 세상에 내놓으신가 싶은 분, 이분이 당신의 남편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이 그림을 보십시오. 당신의 현재 남편입니다. 썩어 곰팡이가 슬은 보리 이삭 모양으로 그 신성하던 형을 말려 버렸습니다. 눈이 있습니까? 눈이 있다면, 어찌 이 아름다운 산 위에서 풀 뜯어 먹는 것을 마다고 이 수렁에 내려와서 약식을 하신단 말입니까? 과연 눈이 있습니까? 설마하니 사랑이라 부를 수야 없겠지요. 당신 연배가 되면 불길 같은 정욕도 숨이 죽어 순종해 지고, 분별심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 분별심이 있다면, 여기서 이리로 자리를 옮겨요? 당신도 필시 감각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동도 못 했겠지요. 그렇지만 그 감각은 분명히 마비되었습니다. 미친 사람일지라도 실수가 만무한 일입니다. 인간의 감각이 일시적인 혼분 상태의 지배를 받는 일은 있지만, 그래도 약간의 식별하는 힘은 남아 있어, 이런 구별쯤을 하는 것이 예사입니다. 무슨 귀신이 당신을 홀리어 이렇게 눈뜬장님을 만들었던 말입니까? 촉각이

없어도 시각만 있고, 시각이 없어도 촉각만 있고, 손과 눈이 없어도 귀만 있고, 다른 아무 감각이 없어도 코로 맡는 힘만 있다면야, 아니, 똑똑한 감각의 썩어 빠진 일부분만이라도 남아 있다면야, 이렇게까지 명령은 부리지 않았을 것을! 수치심이며, 너의 부끄러움은 어디 갔느냐? 음란의 정욕이며, 네가 나이 먹은 부인 뼈다귀 속에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진대, 끓어오르는 청춘 속에서는 숙덕(淑德)이 초처럼 스스로의 불에 녹아 흐름도 당연하리라. 서리도 불이 붙고, 이성이 정욕의 앞잡이 노릇을 하거든 참을 수 없는 정욕이 치밀어 올 때에 청춘은 부끄러움을 말할 필요도 없다.

왕비 그만해 두오. 동궁의 말을 들으니, 자연히 내 눈이 내 마음속을 굽어보게 되오. 가슴속에 보이는 건 시꺼멓게 물들은 자국들, 아무리 씻는대도 그 빛은 지워지지 않으리다.

햄릿 그래 봤자 땀이 뻘뻘 흐르고 기름이 질질 도는 포대기 속에서 땀국물에 끓으면서 돼지들처럼 꼴꼴거리고 정답을 교환하는 것이 고작이죠.

왕비 제발 그만 두오. 동궁의 말이 꼭 단도처럼 귀로 달려드는구려. 제발 부탁이오, 그만해 두오.

햄릿 사람을 죽인 악한 선왕의 발곱째기만도 못한 놈, 임금 앞에서 어릿광대 노름을 하는 못난이. 나라와 정치를 허물어 가는 소매치기. 선반에서 귀중한 왕관을 훔쳐다가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왕비 제발 그만—

햄릿 거지발싸개 왕!

혼령 등장

수호 천신들이여, 나를 구원하시고 내 위에 날개를 펼치시어 비호하여 주옵소서. 폐하. 이렇게 나타나심은 무슨 연고이시뇨?

왕비 아아, 동궁이 미쳤구나!

- 햄릿 당신은 이 불초자식이 어물어물하여 때를 놓치고 열을 잃어 두려운신
당신 엄명의 실행을 흘려버리는 것을 꾸짖으러 오신 거나 아납니까?
말씀하십시오.
- 훈령 잊지 말라. 내가 이번에 찾아 온 것은 거의 무딘 네 결심의 칼날을 갈
아 주려고 온 것이다. 그렇지만 보아라, 네 어머니는 정신이 산란하여
어쩔 줄을 모른다. 아아, 고민에 쓰러지지 않도록 네 어머니를 도와주
라. 햄릿아, 약한 여자의 신체 속에서 상상력은 가장 강하게 작용을 하
는 법이다. 어머니에게 말을 해 주라.
- 햄릿 어떠십니까? 중전마마.
- 왕비 아아, 동궁이야말로 어떤 일ियो? 그렇게 허공을 노려보며, 아무 실체
도 없는 공기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두 눈에서는 미칠 듯이 정신이
기웃거리고, 마치 잠을 자다가 경보에 놀라 벌떡 일어나는 병정처럼,
고운 머리카락이 하나하나 생기가 팔팔해서 곤두서니 웬일ियो? 불길
처럼 설레는 마음을 진정하고 꼭 참으시오. 그런데, 어디를 그렇게 쏘
아보고 있소?
- 햄릿 아버님을, 아버님을! 좀 보십시오. 저 처참한 눈초리를! 아버님의 저
모습, 그리고 이렇게 현신하시는 그 이유! 비록 목석에게 그것을 호소
한대도 감동을 일으킬 터이지. 제발 나를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애처
로운 표정으로 나를 보시면, 내 실행력이 꺾이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본색을 잃어버리고, 아마도 피를 흘리는 대신에 눈
물을 흘리게 될 터이죠.
- 왕비 누구를 보고 그런 말을 하고 있소?
- 햄릿 아무것도 아니 보입니까?
- 왕비 아무것도 아니 보이오. 실지로 존재하는 거라면 내 눈에도 보여요.
- 햄릿 아무 소리도 아니 들립니까?
- 왕비 아니, 우리 두 사람 말소리밖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오.
- 햄릿 안 보이다뇨? 자, 저기를 좀 보시오. 저곳을, 이제 사라지고 있지 않아

요? 아버님의 생존 시와 꼭 같은 복색으로! 보시오, 저리로 가십니다.
이제 막 문으로 나가십니다. (혼령 퇴장)

왕비 그건 그저 동궁 머릿속에서 만들어 낸 것이오. 광증은 용하게 그런 실
체 없는 환상을 그려 낸다오.

햄릿 광증! 제 맥은 당신 맥만큼이나 순조롭게 뛰어서 건강체의 고동을 울
리고 있습니다. 내 말은 결코 광증에서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저를 시
험해 보십시오. 그 말들을 그대로 다시 읊기리다. 광인이라면야 반드시
탈선할 테죠. 중전마마,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자기 양심에다가
자기 위안의 약칠을 해 가지고,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당신의 죄과가
아니라, 내 광증이라 생각지 마시오. 그것은 다만 헌테를 얹은 파막(皮
膜)으로 덮어 버리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하는 동안에 화농(化膿)
은 자꾸만 속으로 파먹어 들어가서, 모르는 사이에 전신에 퍼지고 맙
니다. 하느님 앞에 자백하십시오. 지나간 일을 회개하고, 앞으로는 몸
을 삼가십시오. 잡풀들에다 거름을 퍼서 그들이 더욱 무성케 하지 마
십시오. 이런 직언을 말씀드리는 무엄을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사정하
는 이유인즉, 요새와 같이 비대해서 숨이 가쁜 세상에서는 미덕이 악
덕에 사과 말씀을 드려야 하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로운 말을 하는
데도 머리를 수그리고 비위를 맞추어야 하는 때문입니다.

왕비 아아, 동궁. 동궁은 내 마음속을 둘로 쪼개었소.

햄릿 아아, 그 나쁜 부분일랑 버리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좀
더 깨끗하게 사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러나 숙부의 자리로 가
지는 마십시오. 정절이 없으시거든 있는 척이라도 하십시오. 습관이라
고 하는 괴물은 나쁜 버릇에 대한 감각을 죄다 먹어 버리지만, 또한 천
사와 같은 일면도 있어, 항상 점잖고 착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에도
쉽게 어울리는 옷을 입혀 줍니다. 오늘 밤에 참고 행하지 않으면, 내일
밤에 참는 것은 쉬워지고, 그다음날 밤은 더욱 쉬워집니다. 대체 습관
이란 우리의 타고난 성격을 거의 일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악마를 아

주 극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놀라운 힘으로써 그를 우리의 정신 밖으로 내던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안녕히 주무십시오. 회개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원하실 때에는 저도 도와서 어머니의 용서를 받겠습니다.

이 영감으로 말한다면 (폴로니어스를 가리키며)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노인을 살해시킴으로써 나에게 벌을 주시고, 또 나를 처벌의 도구로 이용하심으로써 이 노인을 처벌하셨습니다. 이 시체는 제가 처리할 터이오며, 또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제 말씀이 몹시도 가혹한 것 같습니다만, 본의는 진정한 간언(諫言)을 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나쁜 일의 시초이고, 더 나쁜 일이 뒤에 남았습니다. 또 한마디 남아 있습니다.

왕비

나는 어찌할꼬?

햄릿

내가 지금 이르는 일만은 죽어도 마십시오. 술살이 비지 같이 찢 왕이 자리로 꼬이거든, 못 건디는 체 따라잡니다. 왕이 음흉하게 당신 볼을 꼬집으며, 요놈의 생쥐라고 부르면 당신은 몸이 답니다. 텅텅한 주둥이를 들어 대고 두어 번 입술을 맞추고 그 징글맞은 손가락으로 목덜미를 투덕투덕 해 주거든, 그때에는 이 이야기를 죄다 탄로하면서, 내가 사실로 미친 것이 아니라, 양광(佯狂)이라고 해 바칩니다. 왕에게 사실대로 아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적어도 미모와 신종과 현철의 명예를 겸비하는 왕비가 아니고서야, 누가 그런 중대사를 그 두꺼비 아범, 박쥐 서방, 수팽이 늑한테 숨기려 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수작이죠, 아니요. 지각도 비밀도 불구하고, 지붕 마루에 걸어 둔 새장에서 새들을 죄다 날려 보내시오. 그리고 그 유명한 원숭이처럼 나도 한 번 해 본다고 바구니 속에 기어들어가, 뛰어내리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지시오.

왕비 사람의 말이라는 게 입김으로 되고, 입김이 목숨으로 된다면, 동궁이 이제 내게 한 말을 입김으로라도 낼 수 있는 목숨은 내게는 없으니 안 심하오.

햄릿 저는 영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십니까?

왕비 아아 참, 내 잊었군. 그렇게 결정되었다 하오.

햄릿 국서(國書)는 이미 봉함(封緘)되었고, 내 동창 두 명이 칙서(勅書)를 가지고 가는데, 독아(毒牙)를 가진 뱀만큼이나 믿음직한 놈들이오. 그놈들이 길잡이가 돼서 나를 함정으로 몰고 갈 모양이죠. 해 보라시오. 지뢰를 묻은 적군 공병이 제 화약에 터져서, 중천으로 날아올라 가는 꼴을 본다는 건 재미나는 장난거리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내 꼭 그놈들이 묻어 놓은 지뢰 밑을 한 야드 가량 파서, 놈들이 달나라까지 올라가도록 폭발을 시킬 터이니깐요. 아아, 참 재미있다. 원수가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인제는 보파리를 싸야겠는데 이 친구부터 묶어야지, 이 더러운 고깃덩이는 옆방으로 끌고 가자. 중전마마,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 고문관은 생전에는 어리석은 수단꾼이었지만, 지금은 아주 조용하고, 비밀을 잘 지키고 침착해졌습니다. 자, 가 보실까? 일은 끝장을 내야지. 중전마마, 안녕히 주무십시오.

따로 따로 퇴장. 햄릿은 폴로니어스의 시체를 끌고 나간다.

제 4 막

제1장 궁성 안의 한 방

왕, 왕비, 로젠크란츠와 길든스틴 등장

왕 그렇게 자꾸 한숨만 쉬는 것을 보니 무슨 일이 있는가 보구려. 가슴속에서 터져 나오는 한숨의 깊은 의미를 말로 이야기해야죠. 짐도 응당 알고 있어야 하지 않소? 그래 태자는 어디 있소?

왕비 잠시 동안 두 분은 물러 나가시오. (로젠크란츠와 길든스틴 퇴장)
아이고 상감마마, 내 참, 오늘 밤에 끔찍끔찍한 광경을 당했다고.

왕 무슨 일이요? 동궁의 정신 상태는 어떻게?

왕비 바다와 바람이 누가 세냐고 서로 겨누는 것처럼, 아주 미쳐 있습니다. 한참 발광을 하는데, 방장 뒤에서 사람 소리가 나니까, 획 칼을 빼 들더니 “쥐새끼다, 쥐새끼다” 하면서, 정신없이 뒤에 숨어 있던 그 어른을 찔러 죽였습니다그려.

왕 큰일 났구나!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도 봉변당할 뻔하였구나.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 중전에게나, 나에게나,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위험천만한 일이오. 대체 이 참변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을 한단 말이오? 세상 사람들은 이 미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못하도록 미리 경계해서 감금해 두지 못했다고 해서 나를 비난할 테지. 그러나 부자지간에 어찌 옳다고 생각하는 일만 행할 수 있었겠소? 무슨 악질 환자처럼 밖에 소문이 나지 않게 숨기려다가 도리어 목숨까지 좀먹게 내버려 둔 격이 되었구려. 대관절 그 애는 어디로 갔소?

왕비 자기 손으로 죽인 시체를 치우려 갔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맑은 정신이 무슨 광석 속에 묻혀 있던 순금처럼 나타나는 모양이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왕 아아 중전, 자리로 가십시오. 해가 동산에 솟는 것을 기다려 동궁을 배로 떠나보내려 하오. 이 흥행은 짐의 권세로 덮어 누르는 한편, 계책을

써서 변명을 할 수밖에 없소. 어, 길든스턴인가?

로젠크란츠와 길든스턴 다시 등장

너희 두 사람은 다 친구니까 가서 조력하는 데, 딴 사람도 좀 청하라. 동궁이 미쳐서 폴로니어스 노인을 살해했단다. 지금 중전 침전에서 시체를 끌고 나갔다 한다. 어디로 갔는지 가 찾아보아라. 동궁에게는 말을 극진히 하고 시체를랑 예배당으로 모셔라. 부탁한다. 이 일은 서둘러서 처리하라. (로젠크란츠와 길든스턴 퇴장)

자, 중전, 내 지금부터 지략이 많은 심복지인들을 소집하려 하오. 그래서 동궁에 대해서 취할 방침을 말하는 동시에 이 불시의 변도 알리려 하오. 세상의 험구와 소문이라는 건, 지구 한끝에서 저 끝까지 마치 대포알이 똑바로 과녁을 맞추듯이 그 독살(毒矢)이 날아가지만, 이렇게 해 두면 그 옥살도 우리를 맞추지 못하고 허탕을 치리란 말이오. 자, 가십시오. 갈피를 잡을 수가 없이 불안한 생각뿐이오. (퇴장)

제2장 궁성 안의 다른 방

햄릿 등장

햄릿 이만하면 잘 간수가 됐지.

로젠크란츠 }
길든스턴 } 동궁 전하! 동궁 전하!

햄릿 가만 있자, 이거 무슨 소리인가? 누가 동궁 하고 부르나? 오오, 저기에 온다.

로젠크란츠와 길든스턴 등장

로젠크란츠 전하, 시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햄릿 흉과 섞었지. 서로 친척이니까?

로젠크란츠 어디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저희들이 맞들어서 예배당으로 모시려 합니다.

햄릿 믿지 말라.

로젠크란츠 무엇을 믿지 말란 말씀입니까?

햄릿 내가 너희들의 비밀은 지켜 주고, 내 비밀은 지키지 않는다는 것 말이다. 뿐만 아니라 해면(海綿)한테서 질문을 받을 때에 황태자가 어떤 답변을 해야 옳단 말이나?

로젠크란츠 저를 해면으로 취급하십니까?

햄릿 물론이지, 임금의 총애와 은상(恩賞)과 권한을 빨아들이는 해면이지. 그렇지만 그런 이속(吏屬) 나부랭이들이 어떤 소용으로 왕에게 제일 요긴하냐 하면, 임금은 마치 원숭이가 밤통을 입에다 물고 있듯이 그들을 아랫입술 속에다 물어 둔다. 처음에는 물고만 있지만 나중에는 삼켜 버린다. 너희들이 수집한 정보가 필요할 때엔 너희들을 꼭 찌기

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해면이라, 너희들은 다시 말라 버린단 말이다.

로젠크란츠 전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햄릿 거 참, 반가운 말이다. 고언(苦言)이 우이(愚耳)에 무효라 하니까.

로젠크란츠 전하, 시체 두신 곳을 빨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희들과 함께 상감 앞으로 가셔야 합니다.

햄릿 시체는 이미 상감 앞에 가 있다. 그러나 상감은 실체가 없으시다. 상감은 짜시니까.

길트스텐 상감이 짜시라뇨?

햄릿 가짜란 말이다. 자, 이젠 나를 상감 앞으로 모셔라. 꼭꼭 숨어라. 찾으러 간다. (달음질하여 퇴장)

제3장 궁성 안의 다른 방

왕이 시종들을 거느리고 등장

왕 동궁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 시체도 찾아오라고 이제 사람을 보냈소. 이 사람이 이렇게 제 맘대로 나와 돌아다닌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거든! 그렇다고 해서 법률의 힘으로 누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데다가 그것이 몰지각한 우맹들에게서 애호를 받고 있겠다. 참 우맹이란 시비를 가려서 사람을 좋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눈으로 보아서 좋으면 좋아야. 그리고 보니 죄인이 받는 처벌은 생각해도 그 죄는 생각지 않거든. 모든 일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당장에 해외로 떠나보내는데, 그것이 신중 고려한 끝에 나온 처사처럼 보이게 해야 한단 말이다. 비상한 병은 비상한 방문으로 고칠 수밖에는 도리가 없다.

로젠크란츠 등장

웬일이냐? 어떻게 되었느냐?

로젠크란츠 시체를 어디다 감춰 두셨는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왕 그래, 본인은 어디 있느냐?

로젠크란츠 밖에 와 계십니다. 분부가 계실 때까지 감시를 달아 두었습니다.

왕 어전으로 불러들여라.

로젠크란츠 여봐라, 길든스틴, 전하를 어전으로 모셔라.

햄릿과 길든스틴 등장

왕 자, 햄릿아. 폴로니어스는 어디 있느냐?

- 햄릿 식사 중입니다.
- 왕 식사 중이라! 어디서?
- 햄릿 먹는 장소가 아니라, 먹히는 장소입니다. 지금 정치 구더기들이 한참 파먹으면서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구더기라는 건, 먹는 데 관해서는 천하에 일등 가는 제왕입니다. 우리가 다른 동물들을 살찌우는 것은 우리가 살찌자고 하는 노릇이고, 우리가 살찌는 것은 구더기를 살찌우는 것입니다. 살찐 임금님과 여위어 빠진 거지는 요컨대 구더기 식탁에 올라앉은 종류가 다른 두 접시의 요리 격이지요. 결국은 마찬가지로입니다.
- 왕 애, 이것 참!
- 햄릿 왕을 뜯어먹어 살이 찐 구더기를 미끼로 생선을 낚아서, 구더기를 먹어 살찐 그 생선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 왕 그건 무슨 소리냐?
- 햄릿 그저 임금님께서 거지 뱃속을 순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 왕 폴로니어스는 어디 있느냐?
- 햄릿 천당에 있습니다. 승지를 보내어 알아보십시오. 만일 승지가 거기서 찾지 못하거든, 폐하 자신이 또 한군데(지옥)를 찾아보십시오. 그러나 참말로 이달 안에 찾지를 못하시면 험실로 올라가는 층계에서 그 냄새를 맡으실 겁니다.
- 왕 (시종들에게) 거기 가 찾아보아라.
- 햄릿 그놈이 도망가지는 않을 테니, 천천히들 가! (시종들 퇴장)
- 왕 햄릿아, 네가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서는 짐이 몹시 상심하는 바이고, 또한 네 일신의 안전도 소중히 여기는 터이므로, 말한다만, 너의 행동은 네가 화급히 이 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이 하는구나. 그러니 빨리 준비를 하여라. 배는 이미 준비가 되었고, 때마침 순풍이다. 너의 부하들도 대기하여 모든 것이 영국을 지향하고 있다.

햄릿 영국이라뇨?

왕 그렇다, 햄릿아.

햄릿 좋습니다.

왕 내 본의를 알아준다면 과연 그럴 거다.

햄릿 그 본의를 간파하는 천리안 천사가 보입니다. 하지만 가자. 영국으로 떠난다! 그리고 어머님, 안녕히 계십시오.

왕 사랑하는 아버지는? 햄릿아!

햄릿 어머니면 되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남편과 아내, 부부는 일심동체, 그러니까, 어머니면 충분하죠. 자, 영국으로 가자.

왕 곧 뒤를 따라가서, 바로 배에 태우도록 해라. 지체 말라. 당장 오늘 밤으로 떠나보내야 한다. 어서들 가라. 이 일에 관한 모든 절차는 이미 결정을 보아 재가(裁可)를 내리었다. 신신부탁이다. 빨리 행하여라.
(로젠크란츠와 길든스틴 퇴장)

그리고 영국 왕이여, 만약 그대가 짐의 후의를 존중한다면—우리 덴마크 군의 창검이 휩쓸고 나간 뒤 상처가 아직도 생생하여, 당시 강제하지 않아도 자진해서 짐에게 공순의 뜻을 표시하는 것을 보면 짐의 위력은 왕에게 자각심을 주었으리라 믿는다만—성모(聖謨)를 소홀히 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 내용은 이 국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그 취지는 즉시 햄릿을 죽이라는 거다. 영국 왕은 이 일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그자가 마치 부족 병의 신얼처럼 내 혈관 속에서 발악을 하는데, 왕이 내 병을 고쳐 주어야만 되겠다. 그 일이 실행되었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천하 없는 운이 트인다 해도 내 기쁜 날이 시작되지는 않을 거다.
(퇴장)

제4장 덴마크의 평야

포틴브라스, 부대장, 병정들 등장, 행진을 한다.

포틴브라스 부대장. 가서 덴마크 왕께 내 문안 말씀을 여쭙어라. 그리고 포틴브라스는 약속대로 그 군대의 국내 통과를 허락해 주기를 애걸한다고 여쭙어라. 우리들이 만날 장소는 알고 있지. 그리고 또 폐하께서 사알(賜謁)하시어 분부하실 것이 있으시다면, 어전에 나아가 충성을 표시하겠습니다 하고 아뢰어라.

부대장 전하, 분부대로 하옵겠습니다.

포틴브라스 조용조용히 가거라. (포틴브라스와 병정들 퇴장)

햄릿, 로젠크란츠, 길든스톤, 기타 사람들 등장

햄릿 말씀 좀 물어봅시다. 이건 누구의 군대입니까?

부대장 노르웨이 왕의 군대올시다.

햄릿 무슨 목적으로 출정하였습니까?

부대장 폴란드 국토 일부분을 쳐들어가려는 겁니다.

햄릿 그러면 이 군대의 사령관은 누구입니까?

부대장 노르웨이 노왕(老王)의 조카 포틴브라스 전하입니다.

햄릿 폴란드 본토로 쳐들어가는 겁니까, 또는 국경 지방의 어떤 요새를 치러 가는 겁니까?

부대장 보태지 않고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그저 명목밖에는 아무 이득도 없는 손바닥만한 토지를 얻자고 가는 겁니다. 소작료 다섯 더킷(ducat)만 내라고 한대도—단 다섯 더킷 말씀이오—저는 그런 토지를 부쳐 먹지는 않겠어요. 또한 노르웨이 왕이나 폴란드 왕이 그것을 세습 재산으로 처분한대도 그 이상 수입은 안 될 걸요.

- 햄릿 그럼 폴란드 사람들은 그까짓 땅 같은 걸 지키려 하지도 않겠는데요.
- 부대장 왜요, 이미 수비대가 지키고 있답니다.
- 햄릿 2천의 생명과 2천 터컷의 비용을 들여도 이 하찮은 다툼에 끝장은 못 내리라. 이것이 다 부력과 안일에서 생겨나는 내중이라. 내부에서 터지면 외부에는 아무 증세도 나타나지 않고, 까닭 모르게 사람을 잡는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 부대장 안녕히 계십시오. (퇴장)
- 로젠크란츠 이제는 가 보실까요?
- 햄릿 내 곧 따라가마, 먼저들 가거라. (햄릿만 남고, 모두 다 퇴장)
- 눈에 걸리는 일마다 나를 가책하고, 나의 무더진 복수심에다 박차를 주는구나! 먹고 자는 것을 위주로 시간을 허비하여 얻는 것이 그 밖에 없다면, 인간이란 대체 무엇인가? 짐승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넓은 판별력을 주셔서 과거와 미래를 살피도록 해 주심은 그 능력을 쓰지 않고, 우리 속에 묻혀서 곰팡이가 슬도록 하시자 함은 아니었다. 대관절 내 정신이 짐승같이 우매해서 잊기 쉬운 탓인지, 혹은 일의 결과를 너무도 세밀하게 염려하는 생각에서 비겁한 주저심이 생겨나, 그 마음의 사(四) 분지 일(一)이 지혜고, 나머지 삼(三) 분은 언제나 비겁한 탓인지는 모르되, “내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말하면서 어찌 하루하루를 허송하고 있느냐 말이다. 내 그 일을 할 만한 명분과 의지와 실력과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 천지와 같이 소연(昭然)한 실례가 나를 훈계한다. 다수한 인원과 막대한 비용을 들인 저 군대를 좀 보라. 인솔하는 사람은 버들가지처럼 날씬한 귀공자. 그러나 그 정신은 고매한 웅심(雄心)으로 가득해서, 우리의 눈으로 헤아릴 수 없는 미래사를 코웃음 치고, 한 번 죽으면 그만인 이 몸을 내던져 운명과 죽음과 위난을 무릅쓰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나 하면, 달걀 껍질만한 땅이다. 진정으로 위대하다는 것은 대단한 원인도 없이 그저 덤비는 일이 아니라, 남아의 면목이 관계될 때에 지푸라기

만한 문제 속에서도 위대한 싸움을 발견하는 데 있다. 그런데 내 처신이 이게 무어란 말이냐? 아버님의 살해를 당하고, 어머니의 더럽힘을 받고, 그만하면 내 지개(志概)가 각성하고, 피가 끓을 텐데, 여전히 잠꼬대만 하고 있으니! 한편에는 이러한 나에게 부끄러움이라도 주려는 것처럼, 이만(二萬) 군졸의 박두한 죽음이 내 눈앞에 나타나 있지 않느냐? 명예라는 허무한 그림자를 잡기 위하여, 마치 잠자리로 가는 것처럼 무덤을 찾고, 대군이 자웅(雌雄)을 결할 수도 없는 촌지(寸地), 죽은 군사들을 이루 묻을 수도 없는 척토(尺土)를 위하여 싸우려 가지 않는가? 아아, 이제로부터 나의 마음이며 잔인하거라! 그렇지 않거든 전연 무가치한 물건이 되어 버려라! (퇴장)

제5장 엘시노어 궁성 안의 한 방

왕비, 호레이쇼, 신사 한 명 등장

- 왕비 그 애와 만나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오.
- 신사 기어이 만나자고 졸라 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미쳤습니다.
그 정신 상태는 측근히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왕비 어찌해 달라는 거요?
- 신사 자꾸 제 아버지 말을 지껄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별별 괴상한 일
이 다 많다는 소리를 들었노라고 하면서, 예뻐 하고 기침도 해 봤다,
제 가슴도 두들겨 봤다 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지푸라기만한 것이
있어도 참지 못하고 발길질을 하고 야단입니다. 또 무슨 소리인지 잘
의미가 통하지 않는 말들을 알아들을 수도 없이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
습니다. 말의 내용인즉 아무것도 아납니다만, 그래도 듣는 사람들은
하도 애처로워서, 그 되지도 않은 말들에다, 무슨 의미를 붙여 보려고
들 하는데, 그들은 추측으로 저마다 제 생각에 그럴 듯이 이 말들을 맞
춰 봅니다. 그 말들에다 또 그 눈짓, 머릿짓, 팔짓을 보태서 추측하건
대, 그 여자는 물론 막연하게밖에는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무슨 큰 불
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 호레이쇼 만나서서 이야기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으실까요? 저러다가는 사념(邪
念)이 나기 쉬운 우민들의 마음속에다 위험스런 억측의 씨를 뿌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 왕비 불러들이오. (호레이쇼 퇴장)
죄악의 본성이 원래 그런 것이지만, 병든 나의 영혼에 대해서는 사소
한 일 하나가 무슨 큰 재앙의 서곡처럼 보인다. 죄진 높은 겁이 많아
서, 그릇의 물을 쏟뜨릴까 봐 무서워서 두르다가 도리어 물을 쏟뜨리
게 된다.

호레이쇼가 오페리아를 데리고 다시 등장

오페리아 덴마크의 아름다운 왕비는 어디 계세요?

왕비 오페리아야, 너 이거 웬일이냐?

오페리아 (노래 부른다)

유별한 우리님 표적이

뗏이나 사람이 묻거든

죽장망혜(竹杖芒鞋)에 파립(破笠) 쓴

순례의 나그네 우리님.

왕비 아이고 가엾어라! 그 노래의 의미가 무엇이냐?

오페리아 무어나고요? 좌우간 제 노래를 들어 보세요. (노래 부른다)

님은 영 가시고 없으셔

가시고 없으신 우리님

머리 밑에 파란 잔디 풀

발치에 덩어리 돌 하나.

왕비 그렇게 말고, 애 오페리아야—

오페리아 제발 제 노래를 들으시라고요. (노래 부른다)

수익는 묘 위에 눈인 양—

왕 등장

왕비 아이고, 상감마마, 이거를 좀 보세요.

오페리아 (노래 부른다)

꽃 속에 파묻힌 님 뵈셔

북망산 찾아 난 길 위에

진정의 눈물은 비 오듯.

왕 예쁜 아가씨, 이게 웬일이요?

오필리아 네, 고맙습니다. 남들이 그러는데, 올빼미는 빵집 딸이래요. 우리들은
오늘 이려고 있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진지 잡수실 때엔 하느님도 같이 청하세요.

왕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을 하는구나!

오필리아 제발 그 이야기는 그만 두기로 합시다. 그렇지만 무슨 때문이냐고 사
람들이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시오. (노래 부른다)

내일은 발렌타인 명절날,

된새벽 동트는 아침에

창 밑에 가 서죠 님 뵈려

이 몸은 당신의 발렌타인.

사내는 일어나 옷 입고

나와서 방문을 열어 줘,

아가씨 방으로 들어가

나갈 땐 아씨가 아니야.

왕 귀여운 오필리아!

오필리아 내 참, 잡담 제하고 이 일 결판을 낼 테요. (노래 부른다)

예수님 이름에 걸어서

아이고 망측야 내 신세!

남자는 만나면 그 자리

진정 알밋다 그 심사.

자리에 쓰러져 누일 땐

백년을 기약타 말 터니.

그렇게 생각도 되었지

그대와 자 보기 전에는.

왕 (호레이쇼를 보고) 언제부터 저 모양이냐?

오필리아 모든 일이 잘 되겠쥬. 매사를 참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을
래야 안 울 수 없어요. 그분을 차디찬 땅속에 묻은 일을 생각하니. 오

빠 귀에도 그 말이 들어갈 테지. 그때에 일러주신 말씀, 참 감사합니다. 자, 마차야, 가자. 안녕히들 주무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히들 주무세요. 안녕히! 안녕히! (퇴장)

왕 곧 뒤를 따라가라. 제발 단단히 감시해 다오. (호레이쇼 퇴장)

아아, 깊은 슬픔이 그 잔악한 마음을 저 꼴로 만들고 말았구나. 모든 것이 그 아버지의 횡사(橫死)에서 나온 일이다. 아아, 중전, 중전, 불행은 적군의 탐정처럼 한 명씩 오지 않고 군대처럼 떼를 지어 오는구려. 먼저 그 아버지가 살해를 당하고, 다음에는 태자가 가 버리고—태자야 자기의 흉폭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당연한 정배를 가도록 스스로 만들어 낸 일이지만, 그러나 일반 백성은 그 노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억측이 구구해서 시비가 분분하단 말이오. 우리들이 세상 사람 알세라 쉬쉬해 가며 그 시체를 매장했다는 것은 지금 와서 보니,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었소. 첫째로 저 가엾은 오�필리아가 실성을 해서 시비 판단력을 잃고 말았고—시비 판단력이 없다면야 우리 인간은 인간의 그림자라고나 할까, 그저 짐승이라고 할까. 둘째로,—이것은 저 애가 미친 것만큼이나 중대한 일이오만—그 오빠가 비밀리에 프랑스에서 돌아와 있구려. 돌아와서는 나날이 의심만 늘어가서 수심에 싸여 있는데다, 그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역병 같은 소문을 전해다가 그 귓속에 속살거리는 한가한 얘기꾼들이 어찌 없겠소? 소문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그럴 듯이 꾸밀 필요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증명할 재료는 없고 해서 이구전구(以口傳口)로 나를 비난하는 데 무소부지란 말이오. 여보 중전, 이번 일은 꼭 사람 잡는 산탄포와 같구려. 한 알이면 죽한테, 온몸에 여러 알을 맞으니, 죽어라, 죽어라 하는 셈이지.

(안에서 요란한 소리)

왕비 아이고머니, 이게 무슨 소리야?

왕 금위대는 어디를 갔느냐? 빨리들 와서 궁문을 지키라고 해라.

다른 신사 등장

웬일이냐?

신사 상감마마, 빨리 피신하십시오. 해일이 해안을 넘어서 평지를 범람한
들, 이렇게 기세가 급할 수야 있겠습니까? 젊은 레어티즈란 놈이 폭도
를 거느리고 와서 경호대를 함부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합지졸이 그
놈을 영주라 부르고 있습니다. 옛날 일은 죄다 잊어버리고 관습도 모
르는 놈들처럼, 법을 내고 유지하고 하는 것이, 다 저희들에게 달려 있
는 양 해서, 그놈들은 “자 우리 레어티즈공을 왕으로 모시자!”고 고함
을 지르고들 있습니다. 모자를 하늘로 추기고, 손뼉을 치고, 하늘이 무
너져라고, “레어티즈공은 왕이다! 레어티즈공은 왕이다!” 하면서 소리
를 지릅니다.

왕비 이 덜된 덴마크 개들은 제 깐엔 짐승 냄새를 맡고 쫓아가노라고 씩씩
하게 짖어 대는 모양인데 이놈들이 그건 영 판전이다.

왕 문을 부수는구나. (안에서 요란한 소리)

레어티즈 무장하고 등장. 뒤에 군중이 따라온다.

레어티즈 왕은 어디 있느냐? 자, 그대들은 밖에서 기다리시오.

군중 아닙니다. 우리들도 들어갑시다.

레어티즈 제발 이 일은 내게 맡겨 주오.

군중 그렇게 허자, 그렇게 허자. (문밖으로 나간다)

레어티즈 감사하오. 문을 닫으시오.

이 흉악한 왕아, 내 아버지를 내나라!

왕비 제발 진정하라.

레어티즈 그렇게 진정할 수 있는 피가 내 몸속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우리 아버
지의 진정한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 따라서 우리 아버지는 간부의 남

편이 될 것이며, 순결무구한 우리 어머니의 이마 바로 이 맨 가운데에 다 창녀의 낙인을 찍는 셈이죠.

왕 레어티즈야, 무슨 원인이 있기에 그렇게 야단법석으로 반항하는 태도를 보이느냐? 중전, 그대로 내버려 두오. 내 일신에 대해서는 염려 마오. 왕의 일신은 신력(神力)이 막아 주니까, 역신이 설혹 흉측한 생각을 갖고 기웃거리 본대도 그 뜻을 이루지는 못하는 거요. 어디 좀 말해 봐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격분하였느냐? 중전, 내버려 두라니까. 좀 말해 보아라.

레어티즈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했소?

왕 돌아가셨다.

왕비 그렇지만 상감마마께서 어찌하신 건 아니오.

왕 묻고 싶은 대로 물으라오.

레어티즈 돌아가시게 된 연유가 무엇이냐 말시오. 날 속인됐자 안 될 말시오. 충성이고 개 홍문이고 난 모릅니다. 군신의 맹세? 그따위 건 악마 중에서도 그중 흉악한 놈이 와서 물어가라! 양심? 신앙? 그따위 건 지옥의 저 깊은 속으로 쳐박으라! 내 지옥에 떨어져도 좋다. 하지만 이 점만은 분명히 지킨다. 현세와 내세가 어떻게 되든지, 난 모른다! 될 대로 돼라! 그렇지만, 난 내 아버지의 원수를 끝까지 갚고야 말리라!

왕 누가 막는대?

레어티즈 내 뜻이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전 세계가 달려들어 막는대도 당하지 못할 걸요. 내 실력은 비록 적지만 활용해서 조그만 힘으로 큰 효과를 내보일 테요.

왕 이 사람아, 자네 아버지의 사망에 대해서 확실한 사정을 알고 싶은가? 마치 환장을 한 노름꾼이, 지든지 이기든지 난 모른다고 판돈을 죄다 움켜 가는 격으로, 그렇게 친구와 원수를 분간치 않고 함부로 끌어들여야만 꼭 원수를 갚겠는가?

레어티즈 상대야 원수뿐이죠!

- 왕 그럼, 그 원수를 알고 싶은가?
- 레이티즈 아버님의 친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활짝 두 팔을 벌리고, 마치 자기의
살을 물어 뜯어서 새끼를 기르는 다정한 펠리컨 새처럼 내 피를 내서
먹이려 합니다.
- 왕 이제야 과연 훌륭한 신사답게 말하는구나. 내가 너의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전혀 무죄하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뼈
저리게 애통한다는 것, 그것은 햇빛이 네 눈을 찌르는 것처럼 앞으로
네 판단력을 똑바로 뚫고 나가리라.
- 군중 (안에서) 아씨를 안으로 들여보내라.
- 레이티즈 어? 이게 무슨 소리냐?

오페리아 다시 등장

아아, 내 가슴에 붙는 불이여, 뇌장(腦漿)을 말려 주려무나! 눈물은 일
곱 배로 짜져서 내 눈의 시력을 태워 주려무나! 하느님께 맹세코 너의
발광에 대한 원수는 저울대가 기울도록 넉넉히 갚아 주마. 아아, 오월
장미꽃처럼 귀여운 처녀, 다정한 누이동생, 아름다운 오페리아! 하늘
의 신령님들이여, 어린 처녀의 정신력이 늙은이의 목숨처럼 덧없으니
이럴 수도 있습니까? 인간의 성정은 사랑 속에서 극치에 달할진대, 그
사랑이 지극할 때에 사랑하던 사람의 뒤를 쫓아 그 귀중한 성정을 사
랑의 표적 삼아 떠나보낸단 말인가!

- 오페리아 (노래 부른다)
- 관에 없어 맨머리로 떠신고 갔지
난노 난노 이난난노 이나노 난노
무덤에는 눈물들이 소낙비처럼
내 비둘기야, 잘 가거라!
- 레이티즈 네 정신이 있어 나에게 양갓음을 권한대도 내 마음을 이렇듯 감동시키

지는 못할 거다.

오피리아 “지하(地下)자, 지하자, 님 불으소 지하자.”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아아, 참, 아씨의 물레바퀴가 그만인데요! 아가씨를 도둑질한 놈은 심지어 바르지 못한 가령(家令)이래요.

레어티즈 이 아무 의미도 없는 말들이 의미 있는 말보다도 천만 배 감개 깊구나.

오피리아 여기 있는 이 만수향은 잊지 말라는 표적이고요. 여보세요, 제발 날 잊지 말아 주세요. 또 여기 있는 상사꽃은 생각해 달라는 꽃이고요.

레어티즈 생각하고 잊지 말라고 일일이 상정의 꽃 이름을 들어 광언(狂言) 중에도 흔계로구나.

오피리아 이 회향(茴香)꽃과 비둘기꽃은 상감마마께 바치고, 이 회비(悔悲)꽃은 중전마마께 바치죠. 나도 하나 가지고요. 이 꽃을 안식일의 천은초(天恩草)라 불러도 좋죠. 그렇지만 중전마마가 이 꽃무늬를 달 때에는 의미가 달라진다니요. 실국화도 한 봉오리 있어요. 당신에게 오랑캐꽃을 줌 드릴까요? 그렇지만 오랑캐꽃들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던 날에 죄다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분은 극락왕생을 했다고 합디만.

(노래 부른다)

귀여운 파랑새는 나의 사랑새

레어티즈 수심과 번민과 고민, 지옥의 고통까지도 고운 옷을 입혀 알뜰하게 꾸미는구나.

오피리아 (노래 부른다)

다시 오지 않으려가?

다시 오지 않으려가?

아니 아니 아니 오셔.

끝날까지 기다린들

님이야 다시 오실라고.

백설 수염 휘날리며

백마(白麻) 터럭 곱시던 님

님은 가다 님은 가다

한탄한들 다시 오리

명복이나 빌어 볼까?

그리고 모든 선비님들 영혼 위에도 하느님의 축복이 내리기를 빕니다.

안녕히! (퇴장)

레어티즈 자, 어떠하십니까? 저 꼴이.

왕 네 그 쓰라린 심정을 나도 좀 나누어 갖게 해라. 그렇지 않다면 너는 천하의 몸쓸 놈이다. 잠시 이 방에서 나가서, 너의 친구들 중 누구든 지 좋으니, 제일 영리한 놈을 불러다가, 내 말과 네 말을 들어, 시비 판단을 시켜 보려무나. 그래서 직접으로거나 간접으로거나 집에 혐의 짝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짐의 왕국뿐이라, 짐의 왕관과 짐의 생명과 기타 짐의 소유물 일체를 네 속 시원하도록 너에게 다 주겠구나.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엔 잠시 진정하고, 짐의 말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 짐은 너와 일심협력하여 네 한이 풀리도록 힘써 주련다.

레어티즈 그리합니다. 아버님의 돌아가실 때 모양이며, 소홀한 그 장례식이며, 유해를 장식하는 위패도 검도 가문(家紋)도 없이, 숭엄한 예식도 법식대로의 치례(致禮)도 없이 억울한 혼귀의 곡성이 천지에 울리는 듯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진상을 밝혀야만 하겠습니다.

왕 네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마. 그러거든 죄가 있는 곳에 철퇴를 내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퇴장)

제6장 궁성 안의 다른 방

호레이쇼와 하인들 등장

호레이쇼 나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인 뱃사공들입니다. 편지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호레이쇼 불러들여라. (하인 퇴장)
햄릿 전하 말고야 내게 편지를 보낼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뱃사공들 등장

뱃사공 1 문안드립니다.
호레이쇼 안녕하십니까?
뱃사공 1 감사합니다. 여기 편지를 한 장 가지고 왔는데요. 영국 가시는 대사님이 당신에게 보내신 겁니다. 제가 들은 바와 같이 당신이 바로 호레이쇼 선생이시라면.
호레이쇼 (편지를 받아 읽는다) “호레이쇼군, 이 편지를 읽거든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들이 왕과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알선해 주게. 이 사람들은 왕에게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가네. 우리가 떠난 지 이틀도 못 돼서, 어마어마하게 무장한 해적단이 우리를 추격했다네. 우리 배가 속력이 느린 것을 알게 되자, 우리들은 할 수 없이 용기를 내어 싸웠는데, 그 통에 나는 적선으로 갈아타고 말았네. 내가 옮겨 타자마자, 적선은 우리가 뒀던 배에서 물러갔고, 그래서 나 혼자만이 포로가 되었네. 그들은 의적당게 나를 대해 주데. 이것은 다 요량이 있어 한 일이었는데, 사실 내가 앞으로 그들에게 보수를 해 줄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는 걸세. 내가 보낸 편지를 왕이 꼭 받도록 해 주게. 그리고 죽음에서 도망치는 사람만큼이나 급히 나한테로 달려오게. 자네에게 좀 할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들었다가는 자네는 놀라서 말문이 막힐 걸세. 그러나 편지로는 사건의 중대성을 전할 수 없네. 이 사람들은 자네를 나 있는 데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줄 걸세. 로젠크란츠와 길든스틴은 영국 가는 뱃길을 계속하고들 있네. 이 사람들에게 관해서는 자네에게 할 말이 많이 있네. 잘 있게.

자네가 친구로 허해 주시는 햄릿”

자, 자네들이 가지고 온 편지를 전하도록 내가 안내할 테니까, 이리로 들 오시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전하도록 함세. 그래야 이 편지를 주신 양반한테로 나를 안내해 줄 테지. (퇴장)

제7장 궁성 안의 다른 방

왕과 레어티즈 등장

왕 너의 어르신네를 살해한 자가 바로 내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네 귀로 들어 충분히 양해했을 터이니까, 이제는 내가 무죄한 것을 너의 양심으로써 믿고, 나를 너의 둘도 없는 친구로 알아야 한단 말이다.

레어티즈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묻잡고 싶은 것은, 어쩌서 그런 행동에 대하여 상감께서 즉시 처벌을 내리지 않으셨던가요? 성체의 안전으로 보거나, 지혜심으로 보거나, 기타 어느 모로 보거나, 응당 상감께서 몹시도 마음이 격동하실 만한 흉악하고도 가증한 행동이었었는데.

왕 아, 거기 대해서는 두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지. 그 이유라는 게 너에게는 아마도 박약하게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내게는 아주 강한 이유가 된단 말이다. 생모 왕비는 그 녀석 얼굴을 못 보면 하루도 못 살겠다는 위인이다. 또 나로 말하면—그것이 내 장점이 될는지 결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내 목숨과 영혼이 왕비에 폭 빠져 있는 형편이라, 하늘의 별이 제 천계를 떠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나도 왕비를 떠나서 살 수 없구나. 내가 그를 공공하게 처벌한다는 수단을 취하지 못한 또 한 가지 동기는, 일반 백성들이 그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는 점이다. 백성들은 그의 죄과를 애정 속에 담가 놓고 보기 때문에, 마치 나무를 변하여 돌로 만드는 화석천(化石泉)처럼 그놈에게다 족쇄를 채워도 도리어 몸치레로 생각할 만한 형편이다. 내가 쓰는 화살은 그 거센 바람결에 대해서는 너무도 가벼운 재료라, 본래에 겨냥했던 곳으로 날아가지는 못하고, 도로 내게로 돌아오고 말 것이다.

레어티즈 그래서 내 훌륭하신 아버님을 잃고, 누이동생이 절망 상태에 빠지고 말았던 말이군요. 예전 상태로 돌아가서 칭찬할 수 있다면, 제 누이동생의 인품이야말로, 높은 단 위에 올라서서, 나를 당할 자 누구이냐고,

전 세계에 외칠만 했죠. 그렇지만 내 꼭 원수를 갚고야 말 겁니다.

왕 그 점은 안심하고 밤잠을 편히 자거라. 나도 위험이 면대해서 내 수염을 잡아당기는데, 그것을 그저 농담으로만 여길 만큼 한물 빠진 멧돼지 구리는 아니니까. 이제 좀 있으면 다 알 도리가 있지. 나는 너의 어르신네를 지극히 사랑했다. 또 짐 자신도 사랑하고, 이쯤 말해 두면 너도 짐작—

승지 등장

웬일이냐? 무슨 소식이냐?

승지 네, 동궁전하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이것은 상감마마께 올리는 것이고, 이것은 중전마마께 올리는 것입니다.

왕 동궁한테서 왔다? 가지고 온 사람은 누구냐?

승지 뱃사공이라 하는데, 저는 직접으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편지들을 클로디오한테서 받았는데, 클로디오는 직접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서 받았다고 합니다.

왕 레어티즈야, 내 입을 테니 들어 보아라.

(승지에게) 넌 물러가거라. (승지 퇴장)

(편지를 읽는다) “지고지대하신 성상께 아뢰옵니다. 신은 알몸으로 왕토에 상륙했습니다. 내일 배알의 기회를 얻고자 원하오며, 그때에 만일 허락하여 주신다면 신이 이렇게 별안간 귀국하게 된 연유와, 그보다도 더 기이한 귀환의 사정을 아뢰을까 합니다. 험릿”

이건 대체 무슨 영문이냐?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돌아왔단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험잡이나 무슨 그런 게 아닐까?

레어티즈 필적은 알아보시겠습니까?

왕 분명히 험릿의 필적이다. “알몸”이라? 또 여기다간 추백(追白)하고 “단독 귀국”이라 했구나. 넌 무슨 의견이 없느냐?

레어티즈 무슨 통속인지 영 모르겠는데요. 좌우간 오라쥬. 내가 살아서 그놈과

면대하고 “이놈, 네가 바로 이렇게 했겠다” 말해 줄 수 있을 것을 생각하니, 도리어 신이 납니다.

왕 이미 그렇게 되었다면—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만,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없다만—너 내 말 들어 주겠니?

레이티즈 듣고말고요. 다만 그놈하고 원수를 풀라는 말씀만 아니시라면.

왕 네 분한 마음을 풀어 주려는 거다. 만일 저놈이 항해를 중지하고 돌아와서 다시 항해를 계속할 생각이 없다면, 내 그놈에게 어떤 일 한 가지를 권해 보리라. 그 계획은 지금 내 가슴속에서 익었는데, 그놈이 내 계획에 걸려들기만 한다면 쓰러질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나를 비난하는 소리는 입김만큼도 없을 터이고, 심지어 그 생모까지도 계락을 간파하지 못하고, 그저 우연이라 말하게 될 터이다.

레이티즈 폐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특히 저를 그 계략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도록 꾸며 주신다면 더욱 찬성입니다.

왕 매사가 들어맞는구나. 네가 여행 떠난 뒤에 네게 어떤 출중한 재주가 있다고 해서 칭찬이 자자했었다. 그때에 바로 햄릿도 그 자리에 있어 들었지. 네 재주 전체보다도, 특히 그 한 가지 재주를 햄릿은 시기했는데, 그러나 나 보기에는 그로서는 가장 미천한 재주더라.

레이티즈 폐하, 그건 무슨 재주였습니까?

왕 그것은 짧은이 모자에 달려 있는 리본 같은 거라, 부속품에 지나지 않은 거지만, 역시 필요한 물건이지. 말하자면 침착한 노인들에게는 건장에도 좋고, 위품도 있는 검은 수달피 장옷이 어울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치로, 청년에게는 경쾌하고 멋진 옷이 어울리니깐은. 두 달 전에 노르망디에서 어떤 신사 한 사람이 이 대궐을 찾아 왔었다. 나도 과거에 프랑스 사람들을 만나 보고, 또 그들과 싸워도 보았지만, 그들은 말을 잘 타는 백성들이다. 그러나 이 신사는 마술(馬術)에는 아주 귀신이더라. 몸이 안장에서 돌아난 것 같이. 그리고 그 영물(靈物)에다가 온갖 재주를 시켜 보이는데, 마치 인마일체가 되어 반신은 말이 되고 만 것 같더

라. 그 모기는 상상부도처(想像不到處)라. 머릿속에서 아무리 그 모양과 재주를 그려 보려 해도 실제 모양과는 비슷하지도 않더라.

레이티즈 노르망디 사람이었습니까?

왕 노르망디 사람이었다.

레이티즈 정녕코 라몽입니다.

왕 바로 그 사람이다.

레이티즈 저도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프랑스 국민의 보배입니다.

왕 그 사람은 네가 무예에 있어 출중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또 모든 호신술의 학리와 실지, 특히 검술에 명인이라는 말을 하면서, 너의 상대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참 볼 만한 시합이 되리라고 자자하게 칭찬하더라. 그래서 만일 네가 나선다면 자기 나라의 검객들은 운신법(運身法)이나 지신법(持身法)이나 눈의 충기나, 무엇하나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라고까지 단언하더라. 너에 대한 그 사람의 이러한 칭찬을 듣고 햄릿은 시기지심(猜忌之心)에 어떻게든 몸이 달았든지, 네가 빨리 귀국해서 들어서 시합을 해 보자고 그것만을 원하고 청하지 않을 수 없었던 말이다. 사정이 약시하여—

레이티즈 사정이 약시하여 어떻게 된단 말씀입니까? 폐하.

왕 레이티즈야, 너는 너의 선친을 소중히 생각했었나? 또는 슬퍼하는 사람의 회상에 지나지 않아, 얼굴만 슬퍼 보이고 마음은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닌가?

레이티즈 어째서 그런 것을 물으십니까?

왕 뭐, 내가 너의 선친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사랑도 때가 있는 거고, 또 심중팔구 틀림없는 내 경험으로 보아, 애정이 한창 불길처럼 일어날 때에도 그때 사정에 따라서 펍 가감이 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대저 애정의 바로 불꽃 속에 그 불길을 까부라뜨리는 심지가 들어 있는 거다. 이 세상일이 무엇이나 한결같이 좋게만 지속되는 법은 없느니라. 좋은 일도 극도에 차면 도리어 그 과도한 탓으로 해

서 자진하는 법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하고 싶은 욕망이 달았을 제 해야 한다. 그 이유인즉, 이 “하고자 한다”는 마음에 대해서는 세상에 말하는 입과 말리는 손과 막는 힘이 하도 많으니만큼 변할 수도 있고, 힘이 약해질 수도 있고, 지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이 “해야 한다”는 생각도 정력을 낭비시키는 탄식과 같아서, 자꾸만 내쉬면 일시적인 위안은 될지나 몸에는 해롭다. 그러나 단도직입으로 이 종처(腫處)의 아픈 데를 폭 찢어 보자. —지금 햄릿이 돌아왔는데, 그러면 너는 네가 네 선친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말로만 아니라 실지로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고?

레어티즈 교당 안에서 그놈의 목을 자르려 합니다.

왕 그야 햄릿과 같은 대 죄인이 교당 안에 피신한들 모면할 도리야 없지. 복수에는 장소의 제한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 사람, 내 말을 들어. 방 안에 꼭 박혀 있거라. 햄릿이 돌아오면 네가 귀국해 있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마. 사람들을 시켜서 네 재주를 칭찬케 하는데, 프랑스 신사를 한술 더 떠서 네 평판에다 새로 금칠을 한단 말이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 두 사람에게 검도시험(劒刀試合)을 시키는데, 누가 이기는지 내기를 걸기로 하자. 그런데, 꺾자는 주의성이 없는데다, 마음이 너글너글 하여 술책이라는 걸 전연 모르니까, 시험에 쓸 칼을 채 조사해 보지도 않을 거라. 그래서 슬쩍 농간질을 하면 네가 손쉽게 진짜 검(眞劒)을 골라잡을 수 있으니, 그것으로 맵시 나게 한 번 폭 찢어서, 너의 아버지 원수를 갚으란 말이다.

레어티즈 하쵸. 또 일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제 칼에다 독약을 칠하쵸. 어떤 엉터리 주부(主簿)한테서 독약을 샀는데, 그놈이 어떻게든 독하던지, 칼 끝을 잠깐 그 약에 댔다가 사람을 찢어 피를 내면, 비록 살가죽을 벗긴 정도라도 그만, 제아무리 달밤에 채취한 약초를 가지고 만든 영검한 고약이 있어도 목숨을 구할 도리는 없습니다. 이 독약을 조금만 칠하쵸. 그러면 살가죽을 슬쩍 스치기가 무섭게 그놈은 이 세상을 하직할

겁니다.

왕 그 점을 좀 더 우리 생각해 보자. 다시 말하면 어떤 시기에 어떤 수단을 이용해야만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가를 신중히 생각해 보잔 말이다. 만약에 우리의 계획이 서투른 실행으로 말미암아 탄로 된다면 애당초에 시험해 보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을 거란 말이다. 그러니까, 이 계획에는 제2차의 예비 수단이 있어. 제1차 시험이 불시 폭발을 하는 경우일지라도, 끝까지 목적을 완수해야 한단 말이다. 가만 있자, 어떡한다? 두 사람 기술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내기를 건다하고 —옳지, 그렇지! 두 사람이 대활약을 해서 몸이 달아 오면 목이 마를 테지,—또 그렇게 되도록 특별히 맹렬한 시험을 해 줘야만 되겠는데. 그러면 그놈이 물을 청할 테니까, 그때 미리 준비해 두었던 물 잔을 내 준다. 그때 그놈이 요행 네 독인(毒刃)을 면했다 해도 그 물 한 모금만 마시면 우리의 목적은 도달된다.

왕비 등장

웬일이오? 중전!

왕비 재앙이 서로 꼬리를 물고 자꾸자꾸 달려드는구려. 레어티즈야, 네 동생이 물에 빠져 죽었구나.

레어티즈 물에 빠져 죽다니요? 어디서요?

왕비 시냇물 위에 비스듬히 솟아난 버드나무가 있는데, 그 애가 미나리아재비와 췌기풀과 실국화와 그리고 또 무식한 목동들은 좀 더 상스러운 이름으로 부르지만, 얌전한 아가씨들은 사인지(死人指)라고 부르는 자란(紫蘭)꽃으로 만든 괴상한 화관을 쓰고 버드나무 밑에까지 와서 구부정한 나뭇가지에 화환을 걸려고 올라가는 참에, 잔가지가 시기를 했던지 꺾이고 말았다. 그래서 사람과 꽃이 한꺼번에 흐느껴 우는 시냇물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떨어질 때에 옷자락이 활짝 벌어져서 마

치 인어 모양으로 물에 둥둥 떠다니며 옛날 노래 곡조들을 구절구절 부르는데, 제 몸에 닥쳐 온 위험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또는 물에서 사는 생물 같기도 하더라. 그러나 그것이 오랠 리는 없고, 옷들이 물을 빨아들여 무거워지자, 그 가엾은 것을 물속으로 끌어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던 처녀는 그만 진흙에 묻혀 죽고 말았다.

레이티즈 아아, 그러면 누이동생은 물에 빠져 죽었던 말인가요?

왕비 그렇다. 물에 빠져 죽었다. 물에 빠져 죽었다.

레이티즈 그만하면 물은 넉춘할 터이니, 가엾은 오피리아야, 내 눈물을 금하련다마는, 이것도 천성, 자연히 솟아나는 눈물을 막을 수야 있냐? 옷을 낚은 옷어라. 눈물이 나올 대로 나오면 여자 같이 약한 마음도 없어질 테지, 상감마마, 물리가겠습니다. 속에서 불이 붙어서, 이 어리석은 눈물로 끄지 않는다면 불길 같은 욕설이 터져 나올 것만 같습니다. (퇴장)

왕 중전, 우리 저 사람 뒤를 따라갑시다. 저 사람 격분을 진정시키느라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시오? 이번 일로 그 격분이 다시 터져 나올까 봐 무섭소. 그러니 우리가 뒤를 쫓아가 봅시다. (퇴장)

제 5 막

제1장 묘지

두 명의 어릿광대가 삼 등 기타의 연장을 가지고 등장

- 광대 1 제멋대로 영혼의 구제를 청한 여자를 기독교식으로 매장해도 되는가?
- 광대 2 된다는데 그래.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어서 무덤이나 파. 검시관이 이 여자 사망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정식으로 매장해도 좋다고 판결했는데 뭘.
- 광대 1 자기를 지키려다가 익사하지 않은 이상에야 그럴 수가 있나?
- 광대 2 글썄 그렇게 판결이 났어.
- 광대 1 그럼 사건은 정히 정당행위로군. 그게 틀림없지. 대저 요점은 약시하니까. 가령 내가 고의로 익사를 하면 그 행동은 법적으로 행위라는 것이 증명된다. 무릇 행동에는 세 부문이 있는데, 즉 행과 동과 위가 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고의로 익사했던 말이야.
- 광대 2 어 참, 그렇지만 말이야, 이 사람이 땅 파는 사람이 뭘—
- 광대 1 잠깐만 내 말 들어 줘. 여기 물이 있네, 똌지? 여기 사람이 있네, 똌지? 만약 이 사람이 이 물까지 와서 빠져 죽는다면, 그건 의사 여부없이 그 사람이 자작(自作) 가서 죽은 거야. 알겠나? 그렇지만, 만일 물이 사람한테로 와서 그를 빠뜨려 죽였다면, 그건 자작 빠져 죽은 것은 아냐. 그러므로 자살죄를 범하지 않은 자는 스스로 목숨을 줄인 것은 아니야.
- 광대 2 그것도 법률인가?
- 광대 1 안, 그렇고말고. 그게 검시관의 검시법이란 거야.
- 광대 2 자네, 사실 내용을 알려 줄까? 만약 이것이 세력가의 여자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교당 묘지에다 묻어 주진 못했을 거야.
- 광대 1 허, 그걸 다 알고 제법인데. 그렇지만 세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이 세상에서 보통 신자들보다도 특별히 취

급해 준다는 것은 펍 동정할 만한 일인데. 자, 삼이나 이리 내게. 유서가 깊은 양반의 집치고 그 조상이 옛날에 밭을 파거나, 도랑을 파거나, 무덤을 파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 그들은 다 아담의 직업을 대물리는 거지.

광대 2 아담도 양반이었었나?

광대 1 그 양반이야말로 참 이 세상에 처음 나오시는 장하신 양반이지. 우선 연장을 가졌고, 둘째로 가문(家紋)을 팔에 달았으니 완장(腕章)을 가졌고.

광대 2 아담이 완장은 무슨 완장이야?

광대 1 이 사람, 자네 그래도 신자인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 거야? 성경 말씀이 “아담 땅을 파니라” 했어. 완장(頑丈)한 힘이 없이 어떻게 땅을 파? 내 또 하나 질문할까? 똑바로 대답 못 하면 자백하고—

광대 2 재수 없는 소리 말아.

광대 1 석수보다도 조선공(造船工)보다도 목수보다도 튼튼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광대 2 교수대 만드는 사람이지. 교수대는 사람이 천 명 다녀 나가도 끄떡도 없으니까.

광대 1 그거 참 재미나는 말이다. 교수대는 참 말 잘 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 잘 하느냐? 교수대는 잘못된 놈을 잘 처치하니까, 잘 하지. 그런데 말이야, 자네가 교당보다도 교수대가 더 튼튼하다고 말한 것은 잘못이야. 그러므로 교수대가 자네를 잘 처치해야 한단 말이야. 자, 다시 한 번 해 봐.

광대 2 “석수보다도 조선공보다도 목수보다도 튼튼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지?

광대 1 그래 대답해 봐. 대답하면 일을 준다.

광대 2 쟈장, 이번에는 꼭 한다.

광대 1 해 봐.

광대 2 아이고, 못 하겠는데.

멀리 햄릿과 호레이쇼 등장

광대 1 이젠 그 문제를 가지고 골을 패지 말라고. 어차피 자네 같은 둔마(純馬)를 아무리 패 보았자, 속력을 낼 리도 만무한 거고. 이번엔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받거든, “무덤 파는 유대군”이라 해 두게. 그 군이 짓는 집은 최후 심판 날까지 견딜 테니까. 자, 저 연안 집에 가서 술이나 한 되 받아 오게. (광대 2 퇴장)

(무덤을 파며 노래 부른다)

젊어서 청춘엔 사랑도 많았건만
그 시절 사랑은 사랑 꿀 달았건만
세월이, 여영차, 여류해, 어기어차
여영차, 허사라, 던져라, 어기어차

햄릿 이놈이 무덤을 파며 노래를 하고 있으니, 자기 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아니하단 말인가?

호레이쇼 하도 익숙해 놔서 쉽살한 모양이쥬.

햄릿 과연 그렇다. 쓰지 않는 손은 아프기도 더하니.

광대 1 (노래 부른다)

원수의 노년이 슬며시 찾아와
역세인 아귀에 우지끈 휘잡아
땅속에 내동댕이쳤으니 허풀사
이 신세 될 줄이야 뉘 알았단 말인가.

(해골바가지를 한 개 던져 올린다)

햄릿 저 해골 속에는 한때는 혀가 달려 있어 노래를 부를 수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저 녀석이 그것을 땅에 내던지는 품이, 마치 인류 최초의 살인을 범한 카인의 터거리 빼나 되는 것 같구나! 지금 이 바보가 삼으로

들어 올리는 저 해골이 어떤 책사(策士)의 대굴통이었는지도 모른다.
하느님에게 골탕을 먹이는 책사의 대구리. 그렇지 않은가?

호레이쇼 그럴지도 모르죠.

햄릿 혹은 또 어떤 궁중 관리의 대갈통이었을지도 모르지. 저것이 “대감, 안녕하십니까? 대감, 요새 편안하십니까?” 하고 아침의 수작을 지껄였을 테지. 혹은 또 모모(某某) 대감의 말을 보고, 나중에 빌릴 심산으로 그 말 참 잘생겼습니다, 하고 칭찬한 모모 대감의 대구리인지도 모르지. 그렇지 않은가?

호레이쇼 그럴지도 모르죠.

햄릿 꼭 그렇지. 그런데 지금은 구더기 부인의 패물이란 말이야. 터거리 뼈는 달아났고, 유대군이 삽으로 대굴통을 후려갈기니. 유위전변(有爲轉變)이라더니, 참 재미있게 굴러다닌다. 우리가 볼 줄 아는 눈만 있다면 참 재미있어. 기를 때에는 무척 공이 들었으련만, 이제는 공장난감이 되고 마니, 생각하면 내 골통이 지끈지끈 아프이.

광대 1 (노래 부른다)

삽이라 곡괭이 삽이오
어여차 천금(天銀)을 덮어라
파거라 흙 속에 구덩이
이 손님 모시기 마침집.
(또 하나 해골바가지를 던져 올린다)

햄릿 어, 또 하나 나온다. 저것이 변호사의 해골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도 없지. 그렇다면 그 괴변과 엉터리와 소송과 소유권과 술책은 다 어디로 갔을꼬? 지금 저 무식한 작자가 더러운 삽으로 대갈통을 때리는 대로 내버려 둔다? 그리고 구타 소송을 일으킨다고, 야단 한 번도 못 치는가? 이자는 생전에 큰 지주라, 차압 집행 증서니, 금전 차용 증서니, 시담(示談)이니, 이중 증인이니, 토지 반환 소송이니 해서 야단법석을 했을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 시비를 잘 하던 머릿속에 시세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이 그 시담금에서 떨어지는 시세이고, 그 반환 소송에서 돌아온 반환물인가? 그의 증인들이 그의 토지 매수를 증언해 주고 이중 증언을 해 주고 한 결과가 오마 할부계약서(割符契約書) 두 장밖에 안 된단 말인가? 토지 양도 증서만 해도 좁은 통 속에 미쳐 들어갈 수가 없을 텐데, 양수자(讓受者) 본인은 그 골통 하나밖에는 소유하지 못한 단 말인가? 허허 참.

호레이쇼 그 이상은 눈곱만치도 소유 못 하죠.

햄릿 토지 문권은 양가죽으로 만들지 않는가?

호레이쇼 물론 그렇습죠. 또 송아지 가죽으로도 만듭니다.

햄릿 그러한 양가죽이나 소가죽 속에서 보증을 얻고자 하는 놈들은 양이나 송아지만큼 미련한 놈들이어. 내 저놈한테 말을 걸어 보겠다. 여봐라, 그게 누구 무덤이냐?

광대 1 제 것이올습니다. (노래 부른다)

파거라 땅속에 구덩이

이 손님 모시기 마침집

햄릿 과연 네 것으로 생각한다. 네가 거짓말로라도 그 안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광대 1 도령님은 그 밖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도령님 무덤은 아닙니다. 저로 말씀하면 거짓말은 아니합니다마는 역시 제 것이올습니다.

햄릿 네가 그 안에 거주하니까 네 것이라는 건 거짓말이다. 무덤이라는 건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데고, 산 사람이 들어가는 데는 아니다. 그러니까 네 말은 거짓말이다.

광대 1 그건 산 거짓말이라 움직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 무덤은 제 소유로부터 도령님 소유로 넘어갈 테니.

햄릿 어떤 사내를 위해서 그 무덤을 파고 있느냐?

광대 1 어느 사내도 아닙니다.

햄릿 그러면 어떤 여자냐?

- 광대 1 여자도 아닙니다.
- 햄릿 누구를 그 무덤에 묻자는 거냐?
- 광대 1 전에는 여자였습니다만, 나무아미타불, 지금은 죽었습니다.
- 햄릿 놈 참, 깍듯도 하다. 분명히 말을 해야지, 어림찍은 수작을 하다가는 경을 치는 판이다. 그렇지 않냐? 호레이쇼군, 내 오래전부터 관찰해 오는 터인데, 근자의 세상이 어떻게든 깔깔해졌는지 농사꾼의 발끝이 대감님 발뒤꿈치를 따라와서 튼 살을 갉아 준단 말이야.
- 헌데, 너 언제부터 무덤을 파먹고 사니?
- 광대 1 일 년 삼백 예순 날 하고도 닷새 중 어느 날에 되었느냐 말씀하시라면, 저는 선왕께서 포틴브라스와 싸워서 이기시던 그날부터 이것이 되었습죠.
- 햄릿 그게 얼마 전 일이나?
- 광대 1 아, 그걸 모르셔요? 바보라도 다 알 텐데요. 햄릿 태자가 나시던 날이지 뭐예요? 그분도 이제는 미쳐서 영국에 정배(定配)를 갓습니다만.
- 햄릿 그런데 참, 그 태자는 어쩌서 영국에 정배를 가게 되었니?
- 광대 1 왜라니요, 미쳤으니깐이죠. 거기서 옳은 정신을 회복시키자는 건데, 뭐 회복 아니 돼도 거기서는 상관없어요.
- 햄릿 어쩌서?
- 광대 1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테니까요. 거기서는 사람들이 다 태자만큼이나 미쳐 있는 걸요.
- 햄릿 어떻게 해서 미치게 되었니?
- 광대 1 풍문에 들은즉 참 괴상하답니다.
- 햄릿 어떻게 괴상해?
- 광대 1 예, 정신을 잃으면서 미쳤대요.
- 햄릿 어디서부터 생겨난 일이나?
- 광대 1 어디라뇨, 이 덴마크 나라죠. 저는 소년 시절부터 삼십 년 동안이나 이 절에서 역승(役僧) 노릇을 하고 있어 잘 알고 있습니다만.

- 햄릿 사람은 무덤 속에서 얼마나 되면 썩느냐?
- 광대 1 요새 같아서는, 담으로 죽은 시체가 많아서요. 그런 건 미쳐 매장할 겨를도 없이 썩어 버립니다만, 그렇게 죽기 전부터 썩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8~9년은 감조, 가죽을 다루는 피쟁이는 9년 갑니다.
- 햄릿 그것은 어쩌서 더 오래 가느냐?
- 광대 1 거 다, 장사 속으로 가죽이 아주 미끄러워졌습죠. 그래서 꽤 오래 물을 튀긴답니다. 물이라는 게 경칠 놈의 시체를 썩히는 데는 아주 그만이니깐요. 여기 해골바가지가 또 하나 나옵니다. 이 해골바가지는 20하고도 3년을 땅속에 묻혀 있었습시다.
- 햄릿 누구의 해골인가?
- 광대 1 어떤 경칠 미친놈의 해골입니다.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햄릿 모르겠단.
- 광대 1 이 경칠 미친놈, 급살병(急煞病)이나 집어갔으면! 아, 언젠가는 제 머리에다 포도주를 병채 들어붓지 않았어요? 이게 누군고 하면, 바로 저 임금님의 어릿광대 요리크의 해골입니다.
- 햄릿 이것이?
- 광대 1 과연 틀림없습시다.
- 햄릿 어디 좀 보자. (해골을 손에 든다)
- 아아, 요리크, 이 꼴이 됐구나! 호레이쇼군, 나는 이 사람을 알고 있어. 참 무궁무진한 재담꾼이라, 기막히게 재미나는 소리를 잘 했건만, 줄곧 나를 업어 주었지! 지금은 생각만 해도 끔찍해서 구역질이 난단만. 원(原)은 여기 매달려 있던 두 입술, 내가 그 입술에다 몇 백번이나 키스를 했는지! 죄중을 포복절도시키던, 그 농담, 그 익살, 그 노래, 그 재치 있는 명답은 다 어디로 갔느냐? 지금 턱이 달아나고 눈알이 뺨하게 뚫린 네 꼴을 비웃어 댈 만한 농담도 재치도 없어졌느냐? 자, 귀부인 침실에 가서 설명해 주어라.—분을 한 치쯤 더 바른대도 어차피 이런 얼굴이 되고 만다고. 그래서 귀부인을 웃겨 보려무나. 호레이쇼, 자

네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일이 하나 있네.

호레이쇼 무엇입니까?

햄릿 알렉산더도 땅 속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보였으리라고 생각하나?

호레이쇼 과연 옳습니다.

햄릿 또 이렇게 냄새도 나고, 앵 튀! (해골을 땅바닥에 놓는다)

호레이쇼 과연 옳습니다.

햄릿 사람이 죽어서 무슨 하찮은 일에 쓰일는지 알게 뭐야? 고귀하던 알렉산더의 신체가 죽어 마지막엔 술통 마개가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나?

호레이쇼 그렇게까지 생각하신다면, 그건 좀 지나친 상상이실까 합니다.

햄릿 아니, 조금도 지나칠 것 없지. 아주 소극적으로 생각해도 거기까지는 갈 터이고, 따라서 과연 있음직한 추측에 지나지 않는 거야. 한 번 해볼까? 알렉산더가 죽었다, 알렉산더는 매장되었다, 알렉산더는 진토로 돌아갔다. 진토는 흙이다. 진흙은 흙으로 된다—그러면 알렉산더의 변신인 진흙으로 맥주 통 마개를 만들지 못해?

지존하신 시제가 죽어서 흙이 되면

구멍 때워 바람막이 될 수도 있으려다.

오호라! 일세를 풍미턴 그 진토가

벽을 때워 엄동설한 북풍을 막다니!

그렇지만 가만 있자! 가만 있자!

이 자리를 비키자. 저기 오는 게 왕.

사제들이 행렬을 지어 나온다. 오피리아의 유해, 레어티즈

기타 조상객(弔喪客)들이 따라나온다. 왕, 왕비, 종들 등장

왕비하고, 궁중 신하들. 저렇게들 앞세우고 가는 고인은 대체 누구일까? 식도 아주 간략한데. 저렇게 식이 간략한 것을 보니 저 사망인이

무모한 손으로 자기의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상당히 신분 있는 사람이었군. 잠시 꾸그려 앉아 자세히 살펴보자.

(호레이쇼와 같이 물러간다)

레이티즈 (사제 보고) 식은 이것뿐이요?

햄릿 (호레이쇼 보고) 저긴 레이티즈로구나. 참 훌륭한 청년이지. 잘 보아 두게.

레이티즈 이 밖에는 아무 식도 없소?

사제 1 이분의 장례식은 저희들의 권한이 허락하는 정도까지 정중히 해 드렸습니다. 이분의 사망에 대해서는 의문스러운 점도 있고 해서, 대명(臺命)이 항례(恒例)를 굽혔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최후 심판 날 까지 부정한 땅에 묻혔을 것이고, 또 고별 기도 대신에 사금파리나 부싯돌이나 조약돌을 던져 넣게 될 뻔 했습니다. 그런 것이 이번에는 특별히 처녀의 화관을 쓰고, 처녀의 꽃을 뿌리고, 종을 쳐서 모시는 모든 절차가 허가되었답니다.

레이티즈 그러면 이 이상 해서는 안 되단 말ियो?

사제 1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곁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처럼 이분에게도 진혼가를 불러서 후생의 안락을 축수해 준다면, 그것은 매장례(埋葬禮)를 모독하게 될 것입니다.

레이티즈 그럼 물어라. 아름답고 순결한 저 몸에서 오랑캐꽃이라도 돌아나려무나! 이 야박스런 중놈아, 내 미리 일러둔다. 너는 지옥에서 신음소리를 하면서 누워 있을 때에, 내 누이동생은 천사가 되리라.

햄릿 뭐라고? 저 아름다운 오펔리아가!

왕비 고운 아가씨에 고운 꽃들을. 잘 가져라! (꽃을 뿌린다)

내, 네가 햄릿의 아내가 되기를 바랐건만. 고운 아가씨야, 이 꽃들은 네 혼석(婚席) 자리에 뿌려 주려고 생각했었지.

네 무덤에 뿌려 줄 줄이야 꿈엔들 생각했으랴!

레이티즈 오오, 세 곱 재앙이 서른 곱으로 죽일 놈, 머리 위에 쏟아져 내려오라.

몹쓸 짓을 해서 너의 그 정묘한 정신을 빼앗아 간 그놈 머리 위에. 흠
끼었는 것을 잠깐 중지하라. 내 다시 한 번 누이동생을 껴안아 주련다.
(무덤 속으로 뛰어 들어간다)

그 흠일랑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위에 똑같이 쌓아 올려서 이 평지가 산
이 되어, 저 옛날 펠리온(Pelion) 산이나 또는 하늘을 찌르는 저 푸른
올림포스(Olympos) 산보다도 더 높게 하여라.

햄릿 (앞으로 나가면서) 대체 어떤 인간이기에 그 한탄 소리가 이다지도 요란
하냐? 그 비분강개(悲憤慷慨)의 문구를 들으면 하늘을 순행하는 별들
도 홀리어, 마치 감탄에 넋을 잃은 청중처럼 정지를 하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나는 덴마크의 햄릿이다. (무덤 속으로 뛰어들어간다)

레이티즈 이놈 귀신이나 물어 가라! (서로 격투한다)

햄릿 그런 욕지거리하면 너 좋지 못하다. 제발 내 목에서 손을 놔라. 나도
성을 잘 내는 경솔한 인간은 아니다만, 내 가슴속에 지금 위험스런 것
이 들어 있다. 두려워하는 것이 너의 현명한 책이란 말이다. 손을 놔
라.

왕 뜯어말려라!

왕비 동궁, 동궁!

모두들 자, 두 분—

호레이쇼 전하, 진정하십시오. (시종들이 뜯어말린다. 두 사람이 무덤에서 나온다)

햄릿 그렇다. 내 이 문제를 가지고는 내 눈을 감을 때까지 저자와 싸우련다.

왕비 동궁, 무슨 문제요?

햄릿 나는 이 여자를 사랑했었다. 사만 명의 오래비가 그 애정 전부를 합친
대도, 내 사랑에는 감히 따르지 못하리라. 네 따위가 이 여자를 위하여
뭘 한다는 거냐?

왕 아아, 레이티즈야, 그거 미친 사람이다.

왕비 제발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오.

햄릿 경칠 놈, 어디 하고 싶은 대로 해 봐라. 너 울래이? 너 싸워 볼래이?

너 굶을래이? 너 사지를 자를래이? 너 초를 실컷 마셔 볼래이? 너 악어를 먹을래이? 나는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너 여기에 잉잉 울러 왔니? 무덤 속에 뛰어들어가서, 내 사랑을 무색케 하러 왔니? 너 누이 동생과 같이 어디 산 매장을 당하려무나. 나도 그리하마. 너 만일 산을 운운하면, 그 산이 수백만 에이커의 흙을 우리들 위에 던져 이 땅이 높아져서, 그 꼭대기가 열일황도(烈日黃道)까지 솟아올라 데어 벗어지고, 오사(Mount Ossa)의 높은 산을 흙으로 보이게 하려무나. 그렇다. 네가 아가리를 놀려 큰 소리를 친다면, 나도 너만큼이나 장담하마.

왕비 이것은 그저 미쳐서 하는 소리입니다. 잠시 동안은 저렇게 광증이 발동해서 야단을 치지만, 조금만 지나면 이행시(二行詩)같이 귀여운 황금색 병아리 두 마리를 끼놓은 암비둘기처럼 온순해져서 침묵이 머리를 수그리게 될 거요.

햄릿 레어티즈군, 내 말을 좀 들어 보게. 무엇 때문에 내게 이런 욕을 뱉는 건가? 나는 항상 자네를 사랑해 왔네. 그러나 이것도 다 쓸데없는 소리다. 헤라클레스(Hercules)와 같은 거인이 아무리 힘을 써 보았자, 자연의 상리(常理)를 이길 수는 없는 일이라, 팽이는 여전히 야옹야옹을 터이고, 개는 여전히 멍멍 짖을 것이다.

왕 호레이쇼야, 저 사람이 무슨 철따구니 없는 짓이나 아니하는가 수고스럽지만, 너 좀 따라가 보아라. (호레이쇼 퇴장)
(레어티즈에게) 어젯밤 내가 이야기한 것을 명심하고 잠시 꼭 참아라. 그 일을 곧 착수하련다.
중전, 태자를 좀 단속하시오.
이 무덤에다 산 기념비를 세우리다.
어언간 고요한 시절도 돌아오겠지.
그때까지는 꼭 참고, 일을 진행하자. (퇴장)

제2장 궁성 안의 홀

햄릿과 호레이쇼 등장

햄릿 그 이야기는 그만 해 두고, 이번에는 또 한쪽 이야기를 함세. 자세한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지?

호레이쇼 기억하고말고요.

햄릿 내 가슴속에 일종의 번민이 있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네. 조용히 생각을 해 보니, 내 신세가 철사에 발목을 결박당한 반란 선원보다도 더 비참하네그러. 그래 참 무모하게도—그런데 무모하다는 것도 이렇게 되고 보니, 참 고맙데. 사실 우리의 심려원모(深慮遠謀)가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 때에, 우리의 무모한 행동이 우리의 도움이 되는 수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하네. 그것만 보더라도, 아무리 인간이 건목만 쳐 놓은 나무토막일지라도 그것을 다듬어서 모양을 만들어 놓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호레이쇼 과연 참 그렇습니다.

햄릿 무모하게도 선실에서 일어나서, 뱃사람들이 입는 외투를 걸쳐 입고, 그놈의 편지를 찾아내려고 어둠 속을 더듬어서 갔네그러. 과연 목적물을 발견해서 살그머니 그 꾸러미를 빼 가지고 다시 내 방으로 돌아왔지. 불안한 생각에 예절도 체면도 잊어버리고, 대담하게도 그 장한 국서 피봉을 뜯어보았더니, 아, 이런 죽일 놈의 왕 봤겠나. 나를 살려 두면 무슨 도끼비나 귀신을 내버려 두는 것 같아서, 덴마크 왕의 옥체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영국 왕의 목숨까지도 위태롭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잔뜩 늘어놓고 나서, 이 칙서를 읽는 즉시로 지체 말고, 아니, 미쳐 도끼날을 갈 새도 없이, 그 목을 치라고 추상(秋霜) 같은 명령이 써여 있네그러.

호레이쇼 어디 그럴 수도 있을까요?

햄릿 여기 그 칙서가 있네. 이걸 나중에 틈을 타서 읽어 보게. 그 뒤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할까?

호레이쇼 네, 말씀하십시오.

햄릿 꿈쩍없이 도둑놈 굴에 빠졌는데—어떻게 한다고 미쳐 서막을 쓰기도 전에 내 머릿속에선 벌써 연극이 시작되네그려. 그래 내 앉아서 새로 칙서를 하나 꾸며 냈지. 아주 달필이었어. 나도 이전에는 정치가들을 본떠서, 글씨 잘 쓰는 것을 비천한 일로 알고, 되도록이면 서도(書道)를 잊어버리려고 애를 썼네만, 이번엔 그 서도가 펍 도움이 되었어. 내가 쓴 칙서의 내용을 알고 싶은가?

호레이쇼 네, 알고 싶습니다.

햄릿 왕의 간곡한 청탁을 말하는데, 우선 “영국 왕은 짐의 충실한 신하이니만큼”, “양국 왕 간의 사랑은 파초 나무처럼 번성하기를 원하느니만큼”, “평화의 여신은 항상 밀 이삭 화관을 쓰고 양 국가 친선의 인연이 되어야 하느니만큼”, 그 밖에도 이만큼을 당나귀 짐바리만큼 달아 놓고 나서, 칙서를 피견(披見)하여 내용을 지실(知悉)하는 즉시로 조금도 지체 말고, 칙서 지참인 두 명을 사형에 처하되, 최후 참회의 여유도 주지 말라 하였네.

호레이쇼 그래, 편지를 어떻게 봉인했습니까?

햄릿 글썄 말이오. 바로 여기서도 하느님의 인도하시는 힘이 나타났다니까. 마침 선왕의 옥새를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었어. 현왕의 옥새는 이것을 본떠 새긴 걸세. 그래 이전 편지와 꼭 같은 모양으로 접어서 어명을 쓰고 옥새를 누르고, 농간질의 자취를 전연 모르게 살그머니 갖다 본디 자리에 넣어 두었지. 그리고 그 이튿날은 해적과 싸우던 날이야. 그 뒤에 어떻게 됐다는 것은 자네도 이미 잘 알고 있지.

호레이쇼 그럼, 길든스틴과 로젠크란츠 두 군은 가실 모양이로군요.

햄릿 그야 두 사람이 자청해서 나선 길이니까, 끝까지 가야지. 나는 조금도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어. 자승자박(自繩自縛)이니까. 양웅(兩雄)이 칼

을 엿걸어 불이 뛰는 속으로, 되지 못한 상놈이 뛰어들어 온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지든.

호레이쇼 왕도 참 지독하군!

햄릿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선왕을 시역하고, 왕비를 간음한 자가 내 앞에 불쑥 나타나서 내 대통(大統)을 이을 길을 막고, 내 목숨을 낚으려고 간책을 쓰니, 이런 놈은 손으로 처치해 버리는 것이 내 마땅히 할 일이며, 또 양심상 떳떳한 일이 아닌가? 우리 인간계의 독버러지를 살려 뒤서 이 이상 해독을 끼치게 한다면 처벌이 무섭지 않은가?

호레이쇼 영국에서는 일 처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필시 영국 왕이 곧 기별해 올 텐데요.

햄릿 곧 올 테지. 그렇지만 그동안 시간은 내 것이거든. 인간의 목숨이란 “하나!” 할 동안에 날아가니까. 그렇지만 자네, 내가 레어티즈에 대해서 격분한 나머지엔 정신을 잃었다는 것은 참 유감일세. 내 비분(悲憤)한 생각에 비추어 본대도, 그 사람의 비분도 똑똑히 알 수 있네. 가서 사과를 하려네.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도 야단스럽게 슬퍼하는 바람에 나도 울화가 치밀어 올라왔단 말이야.

호레이쇼 쉬! 누가 오는 모양입니다.

오즈릭 등장

오즈릭 동궁전하의 귀국을 충심으로 환영하옵니다.

햄릿 황송한 말씀이요. (호레이쇼에 대하여, 방백) 물 위에 날아다니는 이 파리를 아나?

호레이쇼 (햄릿에 대하여, 방백) 모르겠습니다.

햄릿 (호레이쇼에 대하여, 방백) 그런 무사분주한 친구는 모르는 것이 상팔자일세. 그런 것을 아는 놈은 나쁜 놈이니깐. 저래 뵈도 저놈이 옥답(沃答)을 많이 가지고 있다네. 짐승도 장수가 되면 구유를 왕의 식탁 옆에

다 놓을 수 있지. 저것은 지출새인데, 이제 내가 말한 것처럼 광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오즈릭 전하께서 여가가 계시다면 상감마마의 분부를 전해 드릴까 하옵니다.

햄릿 부지런히 들지. 그 모자는 제자리에 놓으시오. 모자라는 건 머리에 쓰는 물건이요.

오즈릭 황송하옵니다. 하도 더워서요.

햄릿 천만에, 오늘은 정말 추워요. 복풍이 불어서.

오즈릭 네, 사실 꽤 춥군요.

햄릿 그렇지만 나 같은 체질을 가지는 인간에는 몹시 무더운데.

오즈릭 과연 참 몹시 무덥습니다. 이를테면—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템쇼, 전하. 폐하께서 전하의 머리예다 굉장한 내기를 거셨다는 말씀을 전하시라시는 분부입니다. 내깃거리인 즉은—

햄릿 제발 모자를—(오즈릭의 손을 잡아 모자를 씌우려 한다)

오즈릭 아니, 상관없습니다. 저예겐 사실 이게 편합니다. 그런데, 전하. 요새 레어티즈 도령이 마침 귀국했는데, 참 출중한 각종 기예를 두루 겸비하고 대인사교가 지극히 온유하고도 기품이 고귀한, 그야말로 완전무결한 신사입니다. 적절히 말해서 그분이야말로 신사도의 지남판이요, 달력입니다. 어쨌건 신사된 사람이면 한 번 보고 싶을 만한 가지가지의 특징이 그 양반 속에서 전부 나타나 있거든요.

햄릿 설명이 그럴 듯해서, 당신 손으로 판다면 그 사람도 밀지지는 않겠소. 하지만 그렇게 재고품 정리식으로 그 잘난 점을 세목별로 늘어놓는다면, 수판이나 놓으면 몰라도, 이루 기억하려다가는 골치병이 생길 지경인데, 그래도 기억력에 아무리 뜻을 달고 달음질쳐도 미처 따라가지 못할 지경이요. 그러나 사실대로 칭찬을 한다면, 그는 극귀(極貴)한 인품이라, 그 속에 들어 있는 천품은 회한하고도 귀중해서, 진실한 평을 하자면 그의 비류(比類)는 그의 거울 뿐, 그의 뒤를 따르려는 자는 수하를 막론하고 그 그림자밖에는 아니 되오.

- 오즈릭 전하의 말씀에는 추호의 착오도 없습니다.
- 햄릿 대체 이젠 다 무슨 소리요? 그렇게도 훌륭하신 양반을 무엇 때문에 우리의 무잡(蕪雜)한 말로 꾸러 대느냐 말ियो.
- 오즈릭 네?
- 호레이쇼 그렇게 사치한 말은 할 줄 알면서도 보통 말은 못 알아듣는단 말ियो? 힘써 보시오, 알아들으리다.
- 햄릿 대체 그 양반의 이름을 끌어낸 목적이 무엇ियो?
- 호레이쇼 저자의 말주머니가 이제는 빈탕이 되었습니다. 말밑천을 죄다 써 버렸어요.
- 햄릿 그렇소.
- 오즈릭 전하께서도 바이 모르시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 햄릿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아니라, 생각해 준다면 다행이지. 뭐 그렇게 생각해 준댔자 내 잘난 것도 없지만, 그래서?
- 오즈릭 레어티즈 도령이 얼마나 출중한가는 전하께서도 모르시지는 않으리라—
- 햄릿 내가 감히 그 양반을 이해한다고야 말할 수 있나? 나는 인금 잘난 걸 가지고 그 양반과 겨뤄 볼 생각이 없소. 남을 알려면 나부터 알아야 하니까.
- 오즈릭 아뇨,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술로 출중한단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즉 천하에 상대가 없답니다.
- 햄릿 좋아하는 무기는 무엇ियो?
- 오즈릭 세장도(細長刀)와 단도입니다.
- 햄릿 그제 그 사람의 무기라. 무방하지. 그래서?
- 오즈릭 네, 그래서 상감마마께서 레어티즈 도령과 내기를 하셨는데, 바버리(Barbary) 말 여섯 필을 거셨답니다. 여기 대해서 레어티즈 도령은 제가 알기에는 여섯 자루의 세장도와 단도를 대었죠. 그런데 그 세장도와 단도에는 혁대, 칼 고리, 기타 부속품 일체가 달려 있고, 그중에서

도 패색(掛索) 세 개는 알뜰한 취미를 발휘해서 칼자루와도 잘 어울리고 오밀조밀한 솜씨를 보이는 지극히 정교한 패색입니다.

햄릿 그 패색이란 무엇이요?

호레이쇼 저 양반 설명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주석이 필요하리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즈릭 패색이란 칼 고리 말입니다.

햄릿 옆구리에다 대포라도 매달고 간다면 그 말은 좀 더 적절할 것 같소. 그렇게 될 때까지는 역시 칼 고리라 해 둥시다. 하지만 이야기를 계속하십시오. 여섯 필의 바버리 말 대(對) 여섯 자루의 프랑스 검과 그 부속 일체, 가외에 오밀조밀한 솜씨의 패색이 세 개. 그러니까, 프랑스식 대 덴마크식의 내기란 말이지?

그런데, 당신 말마따나 이 내기는 무엇을 위해서 대는 거요?

오즈릭 전하와 레어티즈 도령 두 분이서 12회 게임을 하시는데, 레어티즈 도령은 3점밖에 못 따리라 하는 것이 상감마마의 예산이십니다. 그래서 3점은 놔주고, 나머지 9점을 가지고 결승하는데 상감마마는 전하께서 5점 득점으로 결국 전하가 이기신다는 내기입니다. 응답해 주신다면 곧 시합이 열리겠습니다.

햄릿 내가 “싫다”고 응답하면 어떻게 한다?

오즈릭 아니올습니다. 시합장에서 몸소 응답하신단 말씀입니다.

햄릿 처분대로 하시라오. 내 이 홀 안에서 소풍하고 있을 테니. 마침내 운동 시간도 되고 하니, 도령님 의향이 좋다 하시거든, 또 폐하께서 여전히 시합을 원하신다거든, 시합도를 가져오게 하시오. 되도록이면 폐하를 위해서 이겨 드리고 싶은데. 불연이면 내 소득은 망신과 뇌주는 3점뿐이오.

오즈릭 바로 그대로 아뢰오리까?

햄릿 내 뜻을 아뢰오. 다만 그 뜻을 어떤 미사여구(美辭麗句)로 읊기든지, 그건 자량(自量)대로 하시오.

- 오즈릭 앞으로도 전하의 중복이 되기를 자천(自薦)하옵니다. (오즈릭 퇴장)
- 햄릿 돈수(頓首), 돈수.
자천이 상책이지. 저따위 물건을 천거해 줄 시럽의 잡념은 없어.
- 호레이쇼 저 술딱새가 알 껌질을 뒤집어쓰고 도망칩니다.
- 햄릿 저놈은 제 어머니 젖을 빨아먹기 전에 젖꼭지더러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한 놈일세. 그래서 저놈은 그리고 한 배에 끼놓은 듯한 같은 종자들이 이 지게미 같은 부박한 세상에서 쪽쪽거리며 지내는 꼬라지를 내 많이 보는데, 놈들은 시절에 맞는 노래 곡조나 외어 가지고, 걸만 뻗지르르한 사교술이나 배워 가졌지. 놈들은 기주 거품처럼 빈말투성이라, 아무리 키로 까부르고 채로 치고 한 엄정한 여론일지라도 술술 새빠져 나온단 말이야. 그렇지만 한 번 시험삼아 혹 불면 그만 거품은 날아가거든.

귀족 한 명 등장

- 귀족 전하께 아뢰옵니다. 폐하께옵서 오즈릭 청년에 시키시어 말씀을 들었더니, 돌아와 아뢰기를, 전하께서 홀에서 기다리신다고요. 그래, 재차 저를 보내시어 레어티즈와의 시험에 지금도 의향이 여전하신지, 또는 좀 더 시일의 여유를 바라시는지, 여쭙어 보라는 분부이십니다.
- 햄릿 내 의향은 변함이 없소. 상감 의향을 따를 뿐이오. 그러니까 상감께서 좋으시다면 나는 언제든지 상관없소. 이제도 좋고, 또 신체 상태만 좋다면 아무 때나 좋소.
- 귀족 상감마마와 중전마마가 시종들을 거느리고 지금 오십니다.
- 햄릿 그건 마침 잘 됐군.
- 귀족 중전마마께서 분부하시기를 시험을 시작하시기 전에 레어티즈 도령에게 점잖게 인사하시라 하십니다. (귀족 퇴장)
- 햄릿 지당한 말씀이오.

- 호레이쇼 이번 시합은 전하의 패가 되오리다.
- 햄릿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네. 그가 프랑스로 간 이래로 나는 쪽 연습을 계속해 왔으니까. 놔주는 3점으로 이기겠지. 그러나 자꾸만 이렇게 가슴이 설레는 걸 자네는 모를 테지. 하지만 상관없어.
- 호레이쇼 아니올시다. 전하, 그래도—
- 햄릿 그저 어리석은 생각일세. 하지만 여자 같으면 아마도 걱정을 하게 될 그런 종류의 불안감일세.
- 호레이쇼 마음에 거리끼시는 일이 있거든 그대로 복종하십시오. 저들이 지금 이리로 오는 앞장을 질러서, 전하의 신체 상태가 지금 적당치 못하다고 아뢰올 터이오니.
- 햄릿 나는 예감 같은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데도 특별하신 섭리가 있다네. 죽음이 이제 오면 장래에는 아니 올 터이고, 장래에 아니 오면 이제 올 터이고, 이제 아니 온다면 장래에는 올 터이지. 평소의 각오가 제일이야. 어차피 우리가 죽을 때에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는 못하는 이상, 젊어서 죽는다고 슬퍼할 겨야 있나? 만사는 될 대로 되는 거지.

왕, 왕비, 레어티즈, 귀족들, 오즈릭 및 검과 수갑,

탁자, 술잔들을 든 시종들 등장

- 왕 자 동궁, 가까이 와서 내 손에서 이 손을 받아라.
(왕은 레어티즈의 손을 햄릿 손에 쥐어 준다)
- 햄릿 용서해 주시게. 요전에 자네께 실례가 많았네. 신사답게 용서하시게. 내가 심한 정신병에 걸려 있다는 것은 여기 좌중이 다 아시는 터이고, 또 자네도 이미 소문을 들어 알 겠세만, 내 소행은 자네의 자연적인 감정과 영예에 대한 본능심과 무례심을 일으켰을지도 모르지만, 그건 다만 광증이 일으킨 일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단언하네. 레어티즈에

게 폭언한 것은 햄릿인가? 그건 결코 햄릿이 한 일은 아닐세. 만약 햄릿이 그 본성을 떠나서 그 자신이 아닐 때에 레어티즈에게 어떤 무례한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햄릿이 행한 것이 아닐세. 햄릿은 그것을 부인하네. 그럼 누가했는가? 그의 광증이 했네. 만약 그렇다면 햄릿은 불법 행위를 받은 측의 사람일세. 광증은 가없는 햄릿의 원수니까, 내가 고의로 행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는 데서 언명하니 내가 한 일은 마치 자기 집 지붕마루로 쏜 살이 자기 형제를 맞춘 격이라고쯤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고, 널리 용서해 주시기 바라네.

라이어티즈 그 말을 들으니 맘이 풀리는 것도 인정이라 할까요. 인정으로 말한다면야, 이번 일엔 당연히 최고도의 복수심을 분발해야 옳을 일이지요만. 그러나 명예 일점에 관해서는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이 공인하는 신사도의 대가가 나와서 화해해도 좋다는 의견을 말해 주든가, 또는 그런 전례를 보여 주어서, 내 명예가 손상되지 않고 지낼 수 있을 때까지는 어떠한 타협도 받아들이지는 않으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전하의 우정은 우정으로서 받지, 그것을 또다시 모욕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햄릿 그 말을 반갑게 반네. 그러면 이 형제간의 시합을 허심탄회하게 해 보려네. 장도(粧刀—試合刀)를 가져오라. 자아.

라이어티즈 자, 하나는 나를 다오.

햄릿 내 자네 장식(粧飾) 노릇을 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내게 대해서 자네의 능숙한 재주는 마치 암야의 명성처럼 찬란한 광채를 발사할 테지.

라이어티즈 사람을 놀리지 마십시오.

햄릿 천만의 소리요.

왕 오즈리학아, 두 사람에게 시합도를 갖다 주어라. 동궁, 내기를 걸었다는 것은 알지?

햄릿 잘 알고 있습니다. 상감마마께서 약한 편에 득점을 해주셨다는 것을.

왕 네 실력을 염려하지는 않는다. 내 두 사람 기량을 보아서 잘 알고 있

다. 아무래도 저편이 연습을 더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너에게 득점을
나준 것이다.

레이티즈 이 칼은 내게는 좀 무겁군. 다른 칼을 보여 주시오.

햄릿 이 칼이 맘에 든다. 이 칼들은 길이가 같은가?

(두 사람이 시험 준비를 한다)

오즈릭 예, 같습니다.

왕 그 포도주 큰 잔들을 저 탁자 위에다 벌려 놓아라. 만일 햄릿이 제1차
또는 제2차 게임에서 점을 따든가, 혹은 제3차에서 대신 질러 1점을
얻거든 성 마루의 모든 대포들은 일제히 방포를 하도록 해라. 짐은 시
합이 끝날 때까지 동궁의 건강을 축수하기 위해서 축배를 들리라. 그
리고 동궁 술잔에다 진주알을 넣는데, 그것은 덴마크의 사조역대왕(四
朝歷代王)이 왕관에 달았던 것보다도 더 훌륭한 진주알이다. 술잔들을
이리 다오. 축배를 들 때에는 가마복을 쳐서 나팔수에게 전하고, 나팔
수는 성 밖 포대에 알려져 대포를 터치어, “성상께서 시작 축배를 드신
다”고 천상에 은은히 고하고, 땅도 이에 호응하여 진동케 하라. 자, 시
작! 그리고 심판제공, 정신 차려 보아라.

햄릿 자, 달려들어!

레이티즈 자. (두 사람이 시험한다)

햄릿 한 대.

레이티즈 아닙니다.

햄릿 심판!

오즈릭 한 대 들어갔습니다. 정통으로 한 대입니다.

레이티즈 자, 다시 한 번.

왕 잠깐 기다려라. 술을 다오. 햄릿, 이 진주 술은 네 잔이다. 너의 축배를
올린다. (안에서 나팔 소리, 대포 놓는 소리)
이 잔은 동궁에게 주어라.

햄릿 먼저 이 승부부터 내겠습니다. 술잔일랑 잠시 곁에 놔두십시오.

- 자, (두 사람이 시합한다) 또 한 대. 어떻게?
- 레이티즈 약간 스쳤습니다. 사실 약간입니다.
- 왕 동궁이 꼭 이길 것 같은데.
- 왕비 땀꾸리기라, 숨이 가빠해요.
- 동궁, 여기 내 손수건이 있으니 이마의 땀을 씻으오. 나는 동궁의 축배를 드오.
- 햄릿 감사합니다.
- 왕 중전, 그거 마셔서는 안 되오.
- 왕비 상감, 마시겠어요. 용서하십시오.
- 왕 (방백) 저건 독이 든 술인데. 아이고 벌써 마시는구나!
- 햄릿 중전마마, 저는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뵈다 마시죠.
- 왕비 이리 오오. 내, 얼굴의 땀을 씻어 줄 테니.
- 레이티즈 상감마마, 이번엔 제가 한 대 먹이렵니다.
- 왕 웬걸.
- 레이티즈 (방백) 애, 암만해도 꺼림직한데.
- 햄릿 자, 세 번째다. 레이티즈군, 자네 일부러 힘을 빼네그려. 좀 맹렬히 찢러 봐. 날 어린애 취급하는 것 같애.
- 레이티즈 그렇다면 자 들어갑니다. (두 사람이 시합)
- 오즈릭 양편이 다 아직도 못 들어갔소.
- 레이티즈 이번엔 한 대 먹어라! (레이티즈 햄릿을 부상시킨다. 격분하는 도중에 두 사람은 서로 칼을 바꾼다. 햄릿이 레이티즈를 부상시킨다)
- 왕 뜯어말려라. 정말 싸움이 되겠다.
- 햄릿 아닙니다. 자, 또 한 번. (왕비가 쓰러진다)
- 오즈릭 저 누구, 중전마마를 간호해 드려라.
- 호레이쇼 양쪽이 다 피를 흘리고 있다. 전하 어떻게 되셨습니까?
- 오즈릭 레이티즈 도령님 어떻게 되신 일입니까?
- 레이티즈 아이고 오즈릭아, 왜가리 모양으로 내 뒷에 치었구나. 내 술책에 죽게 됐

다.

햄릿 중전마마는 어찌 되신 일입니까?

왕 두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기절하였다.

왕비 아니다, 아니다. 그 술이, 그 술이 내 아들 햄릿아—그 술이, 그 술이—독약이다. (죽는다)

햄릿 이런 죽일 놈! 여봐라, 문을 잠가라. 흥계가 있다. 범인을 수색하라.

레이티즈 범인은 여기 있습니다. 동궁전하. 전하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약을 가지고도 회복 못 하실 겁니다. 앞으로 반시간 생명밖에는 없습니다. 그 흥기 끝을 그대로 두고 독약을 칠한 칼끝은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여기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전하의 어머니도 독살당하셨습니다. 아이고 힘이 까부라지는구나. 저 왕, 저 왕이 장본인입니다.

햄릿 음, 칼끝에까지 독을 칠하다니! 그렇다면, 이놈 독약 맛을 보아라!

(왕을 찌른다)

모두들 역적이야! 역적이야!

왕 아이고 이놈들아, 와서 좀 막아 주려무나. 상처는 아직도 아다.

햄릿 예 왔다. 살인 강간을 한 이 덴마크 왕 놈아, 이 독약을 마셔라. 이 술 속에 너의 진주알이 들어 있느냐? 우리 어머니 뒤를 따라가라.

(왕이 죽는다)

레이티즈 그놈, 제 손으로 제 목을 끊었습니다. 그 술은 저놈이 손수 제조한 독약. 거룩하신 동궁전하, 서로 죄를 용서합시다. 저와 저의 아버님의 죽음에 대한 죄를 전하에게 돌리지 아니하오니, 전하와 죽음에 대한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죽는다)

햄릿 하느님이시여, 저의 죄를 사하옵시기를! 레이티즈, 나도 자네 뒤를 따라가네! 호레이쇼 나는 죽네!

가엾은 중전마마, 고이 가옵시오!

이 참변을 당하고 얼굴이 파래져서 벌벌 떠는 여러 친구님들, 여러분

은 이 비극에 대해서는 무언 배우나 관객밖에는 못 됩니다. 시간만 있다면—하지만, 이 몸쓸 저승 귀족이 한시의 여유도 없이 나를 붙잡아가는구나.—아아, 시간의 여유만 있다면 여러분에게 충분한 설명을 할 수도 있으면만. 하지만 무가내하다. 호레이쇼, 나는 가네. 자네는 살게. 살아서 나라는 사람과 내가 지켜온 바 대의명분을 의아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똑바로 전해 주기를 바라네.

호레이쇼 결코 저를 그렇게는 생각지 마십시오. 몸은 비록 덴마크에 태어났지만, 정신은 대의를 위해서 자인(自刃)한 저 로마의 영웅들—브루투스나 카시우스처럼 생각해 주십시오. 이 잔에는 아직도 독약이 남아 있습니다.

햄릿 자네는 남아가 아닌가? 남아답게 그 잔을 날 주게. 나라. 천하 없어도 그 잔은 내가 마신다. 호레이쇼 형장, 이대로 죽어 버린다면 어떤 누명이 후세에 남을 것인가? 자네가 잠시라도 나를 소중히 생각했다면, 천상의 행복을 잠시 물리치고 이 몸쓸 세상에 목숨을 보존하여 내 이야기를 후세에 전해 주게. (멀리서 행진곡, 나팔 소리, 은은한 포성)

저 상쾌한 소리는 무슨 소리냐?

오즈릭 폴란드에서 전승하고 돌아오는 젊은 포틴브라스가 영국 사신들에게 예포를 놓고 있습니다.

햄릿 아아, 호레이쇼, 나는 죽네. 굳센 독 기운에 정신이 까부라져 들어간다. 영국서 오는 소식도 듣지 못할까 보다. 그러나 덴마크의 대통령은 포틴브라스가 이를 것으로 예언한다. 이것은 내 유언이다. 이렇게 전하여 주게. 그리고 사태가 여기에 이르게 된 그간 사정을 대소막론하고 그 사람에게 전하여 주게. 남은 말은 이루 다 못 하겠네. (죽는다)

호레이쇼 구슬 같던 정신이 이제 깨졌구나! 인자하신 태자님, 고이 잠드십시오. 천군천사(天軍天使)는 노래를 불러 님을 영면의 나라로 보낼지이다. 가까이 들려오는 저 소리는 무슨 연유인가?

안에서 행군 소리

포틴브라스, 영국 사신들, 기타 등장

포틴브라스 이야기에 들던 광경은 어디메요?

호레이쇼 보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요? 만일 비참한 광경이나 놀라운 광경이라면 먼 텔 찾으실 것 없이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포틴브라스 너더분한 시체들이 낭자한 참극을 말하는구나. 위력을 자랑하는 사신(死神)이며, 그대의 영원한 지하실에서 무슨 잔치를 베풀기에, 이렇듯 다수한 왕후 귀족들을 한칼에 이렇게도 참혹하게 쓰러뜨렸느냐?

사신 1 인목불견(忍目不見)의 참상입니다. 영국서 저희들이 가지고 온 용건은 만도(晩到)입니다. 저희들의 복명을 들어 주실 께하는 이미 돌아가시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려. 대명을 이행하여 로젠크란츠와 길든스틴을 처단했다는 말씀을 아뢰옵고자 왔삽더니, 저희들은 치하 말씀을 어디서 받을까요.

호레이쇼 비록 그 입이 살아서 말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입에서 치하의 말을 듣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는 양인의 사형을 명령한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 비극이 연출된 거와 때를 같이 하여 두 분이 이렇게 한 분은 폴란드에서, 또 한 분은 영국에서 오셨으니, 이 시체들을 높은 단 위에 모시어 사람들이 보게 하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를 저로 하여금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하도록 해 주십시오. 간음, 시역, 우연한 제재, 고의가 아닌 치사, 할 수 없이 계략으로써 사주한 처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말에 와서 간계로써 사람을 죽이려다가, 착오가 생기어 도리어 그 같이 장본인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된 경우를 제가 진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포틴브라스 빨리 그 이야기를 듣기로 하자. 또 고귀하신 어른들을 청해다가 다 같이 듣게 하라. 나는 애도하는 마음으로써 이 행운을 맞이한다. 나는 이

왕국에 대하여 어떤 자격을 갖는데,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으리라. 지금 형편으로 보아 나는 그 권리를 주장하는 바이다.

호레이쇼 그 점에 대해서도 저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햄릿 전하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 아마 다수한 사람들의 찬동을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일부터 곧 실시시키십시오. 인심이 달뜬 이때에 실행함이 좋습니다. 음모나 또는 오해에서 이 이상 불행한 일이 생겨날까 두려워합니다.

포틴브라스 네 명의 대장으로 하여금 햄릿 폐하를 군인 대우로 단상에 운반케 하여라. 저분이 만약 그 자리에 앉았었다면 세상에서도 훌륭한 국왕이 되셨으리라. 군악과 장례포로써 그 붕어(崩御)를 은은히 고하여라. 이 시체들을 치워라. 전장에는 어울릴지나, 이 자리에선 보기 흉한 광경이다. 자, 가서 사병들에게 방포를 명하라.

장송곡 울리는 소리. 시체를 들고 퇴장.

이어서 일어나는 은은한 포성.

지은이 소개 | **윌리엄 셰익스피어** (1564~1616)

영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시인 겸 극작가. 초·중급 학교에서 고전 수사학 및 라틴어를 중심으로 한 고전교육을 수학하였고, 그의 작품에 토대가 된다. 1590년 전후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예술 후원에 힘입어 그의 능력이 심분 발휘되고, 1603년 즉위한 제임스 1세의 후원으로 궁정에서도 작품을 상연한다. 〈햄릿〉을 포함한 〈오셀로〉 〈리어 왕〉 〈맥베스〉 등 4대 비극이 이 시기의 작품으로, 셰익스피어 극작의 절정을 이룬다. 사후 450년이 지난 지금도 문학을 포함한 모든 예술 분야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무후무한 희대의 작가이다.

옮긴이 소개 | **최재서** (1908~1964)

문학평론가이며 영문학자. 황해도 해주 출신. 1931년 경성제국대학 영문과 졸업, 1933년 동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고, 영국 런던 대학 유학 후 모교 강사 및 보성전문학교·경성법학전문학교 교수를 거쳐 광복 후 연세대학교·동국대학교 대학원장, 한양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문학원론》 《문학과 지성》 《셰익스피어 예술론》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햄릿》 《아메리카의 비극》 《주홍글씨》 등이 있다.

햄릿

©사단법인 올재

발행 | 2014년 2월 15일

펴낸이 | 홍정욱

기획·편집 | 이상민 김화란

표지제호 | 강병인

편집디자인 | 황인정

인쇄·제작 | (주)헤럴드

펴낸곳 | 사단법인 올재

출판등록 | 2011년 11월 4일 제300-2011-188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157-78

전화 | 02-720-8278

팩스 | 02-773-0250

홈페이지 | www.olje.or.kr

ISBN | 978-89-97876-27-3

*표지 제호 저작권은 캘리그래퍼 강병인 님께 있습니다.